

文學博士 學位論文

책거리 기물들에 표현된 젠더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崔 聖 珍

2021年 6月

책거리 기물들에 표현된 젠더

指導教授 張 英 洙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6月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崔 聖 珍

최성진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오세덕



審査委員

도진영

도진영

審査委員

장영추

장영추

審査委員

정병모



審査委員

윤열수



慶州大學校 大學院

2021年 6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고찰.....	6
4. 연구내용.....	10
II. 연구 배경.....	15
1. 책거리의 개념.....	15
2. 젠더의 개념.....	21
III. 조선시대 성리학이 젠더형성에 미친 영향.....	23
1. 조선시대 젠더의식의 변화과정.....	23
1) 조선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	23
2) 성리학적으로 고착화된 남성과 여성젠더.....	31
3) 여성 자의식의 성장.....	39
2. 조선후기 남녀 젠더의 정의.....	47
3. 책거리에 표현된 성리학적 남녀젠더의 모습.....	54
4. 책거리의 수요증가에 따른 젠더의식의 확산.....	59
IV. 책거리에 표현된 남녀젠더.....	62
1. 책거리에 나타난 젠더의 상징 기물.....	62
1) 다남과 길상을 상징하는 기물.....	63

2)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	71
3)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	81
2. 젠더에 따른 책거리 분석.....	84
1) 남성 책거리.....	87
2) 여성 책거리.....	128
3) 인물이 등장하는 책거리.....	135
4) 남녀젠더가 조화로운 책거리.....	141
5) 탈성리학적 책거리.....	149
6) 한글 소설을 통해 본 여성 자의식의 성장.....	155
V. 결론	173
〈그림〉.....	176
〈참고문헌〉.....	241
초록.....	249
Abstract.....	252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 책거리(단위: 점). 2021. 4월 기준.	5
〈표 2〉 성리학적 젠더의 관점에 따른 표본의 분류	11
〈표 3〉 고려와 조선 초의 오복제도와 급가제도의 비교	25
〈표 4〉 성리학이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의 인생에 미친 영향의 차이	29
〈표 5〉 『사소절』의 구성	33
〈표 6〉 아내살해 사건의 재구성(단위: 건)	36
〈표 7〉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사건	37
〈표 8〉 18세기 활동한 여성 문인과 학자	45
〈표 9〉 책거리에 표현된 남성성을 나타내는 기물	57
〈표 10〉 책거리에 표현된 여성성을 나타내는 기물	58
〈표 11〉 책거리에 많이 나오는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과 유래	65
〈표 12〉 책거리에 나오는 길상을 상징하는 기물들	68
〈표 13〉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72
〈표 14〉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분석	82
〈표 15〉 젠더의 기준으로 분류한 분석 대상 책거리	84
〈표 16〉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89
〈표 17〉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92
〈표 18〉 〈리움미술관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	96

〈표 19〉 〈리움미술관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97
〈표 20〉 〈리움미술관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01
〈표 21〉 〈리움미술관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03
〈표 22〉 〈리움미술관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03
〈표 23〉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07
〈표 24〉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08
〈표 25〉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10
〈표 26〉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	111
〈표 27〉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114
〈표 28〉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	115
〈표 29〉 〈조선의 민화 수록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17
〈표 30〉 〈북한의 한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20
〈표 31〉 〈북한의 한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21
〈표 32〉 〈안동 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123
〈표 33〉 〈안동 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	124
〈표 34〉 〈계명대박물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	126
〈표 35〉 〈계명대박물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27
〈표 36〉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30
〈표 37〉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30

〈표 38〉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에 나타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31
〈표 39〉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31
〈표 40〉 〈개인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34
〈표 41〉 〈개인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과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34
〈표 42〉 〈개인 소장 책거리 2〉에서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36
〈표 43〉 〈개인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여성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분석 ·	137
〈표 44〉 〈계명대학교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	138
〈표 45〉 〈계명대학교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38
〈표 46〉 〈개인 소장 책거리 3〉에서 다남을 나타내는 기물분석	140
〈표 47〉 〈개인 소장 책거리 3〉에 나타난 길상의 기물분석	140
〈표 48〉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기물·	141
〈표 49〉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기물분석 ...	144
〈표 50〉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1, 112〉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47
〈표 51〉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1, 112〉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물분석	147
〈표 52〉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1, 112〉에 나타난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	148
〈표 53〉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3, 114〉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48
〈표 54〉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3, 114〉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물분석	148

〈표 55〉 〈온양민속박물관 책거리〉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51
〈표 56〉 〈온양민속박물관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52
〈표 57〉 〈프랑스 기메박물관 2쪽 책거리〉에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54
〈표 58〉 〈프랑스 기메박물관 2쪽 책거리〉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54
〈표 59〉 〈개인 소장 책거리 4〉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156
〈표 60〉 〈개인 소장 책거리 4〉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57
〈표 61〉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64
〈표 62〉 〈개인 소장 책거리 5〉에 나타난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165
〈표 63〉 〈개인 소장 책거리 5〉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167

〈그림 목차〉

〈그림 1〉 다보각	176
〈그림 2〉 성월스님 진영(眞影)	176
〈그림 3〉 민평우 소장 책거리	177
〈그림 4〉 리움미술관 소장, 이형록, 8폭 병풍	177
〈그림 5〉 이종현, 이유민, 이형록의 가계도	178
〈그림 6〉 여사서와 주자대전이 있는 책거리	178
〈그림 7〉 이형록(1827~1863)의 책거리	179
〈그림 8〉 〈그림 7〉의 다시점 분석	180
〈그림 9〉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자수 책거리	180
〈그림 10〉 자수사계분경도-포도	181
〈그림 11〉 자수사계분경도-매화	181
〈그림 12〉 자수사계분경도-연꽃	181
〈그림 13〉 자수사계분경도-매화	181
〈그림 14〉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82
〈그림 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책거리	182
〈그림 16〉 책거리 본(本) 1, 2	183
〈그림 17〉 책거리 본(本) 3, 4	183

〈그림 18〉 실내 장식에서 민화, 책거리 활용의 예.	184
〈그림 19〉 김세종 소장 책거리.	184
〈그림 20〉 사랑방의 모습	185
〈그림 21〉 안방의 모습	186
〈그림 22〉 국립수목원 소장 가구 1	187
〈그림 23〉 국립수목원 소장 가구 2	187
〈그림 24〉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소장 책거리	188
〈그림 25〉 〈그림 24〉의 일부	188
〈그림 26〉 〈그림 24〉의 일부	188
〈그림 27〉 화로	189
〈그림 28〉 화로 세트	189
〈그림 29〉 부채의 종류-윤선, 포선	189
〈그림 30〉 부채의 종류- 태극선, 백우선	189
〈그림 31〉 부채의 종류- 미선, 오엽선	189
〈그림 32〉 접선(摺扇)	190
〈그림 33〉 선추 장식	190
〈그림 34〉 태극선	190
〈그림 35〉 〈그림 38〉의 일부분	190
〈그림 36〉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1	191
〈그림 37〉 〈그림 36〉의 일부	192

〈그림 38〉 〈그림 36〉의 책 부분.	192
〈그림 39〉 다양한 길이의 담뱃대와 담배합.	193
〈그림 40〉 장죽꽃이와 담배통받이	193
〈그림 41〉 다양한 안경과 안경집	194
〈그림 42〉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2	195
〈그림 43〉 〈그림 42〉의 왼쪽	195
〈그림 44〉 〈그림 42〉의 오른쪽	196
〈그림 45〉 책거리에서 자명종의 표현 1	196
〈그림 46〉 책거리에서 자명종의 표현 2	196
〈그림 47〉 책거리에서 자명종의 표현 3	196
〈그림 48〉 책거리에서 자명종의 표현 4	196
〈그림 49〉 〈그림 48〉과 유사한 자명종	196
〈그림 50〉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	197
〈그림 51〉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 8폭 병풍	197
〈그림 5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	198
〈그림 53〉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 8폭 병풍	198
〈그림 54〉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	199
〈그림 55〉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 8폭 병풍	199
〈그림 56〉 조선시대 여성의 방한모의 종류	200
〈그림 57〉 오천원권의 정자관	201

〈그림 58〉 정자관의 종류	201
〈그림 59〉 독립운동가 김가진의 초상	201
〈그림 60〉 이채의 초상	201
〈그림 61〉 조선민화 수록 책거리	202
〈그림 62〉 흑피화	203
〈그림 63〉 목화	203
〈그림 64〉 목화 착용의 예	203
〈그림 65〉 봉황도의 예	204
〈그림 66〉 북한 책거리	205
〈그림 67〉 팔 시루떡과 상달 고사 상차림	206
〈그림 68〉 대모 장도	206
〈그림 69〉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	207
〈그림 70〉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 3폭 병풍	207
〈그림 71〉 두정갑(頭釘甲)	208
〈그림 72〉 투구의 각 부분 명칭	208
〈그림 73〉 조선시대 투구	208
〈그림 74〉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박물관 소장 갑주의 구성품	209
〈그림 75〉 구군복(具軍服)의 구성	209
〈그림 76〉 방호갑(防護甲)	209
〈그림 77〉 창 의 종류	210

〈그림 78〉 민화 속의 남성 화장갑 1	210
〈그림 79〉 민화 속의 남성 화장갑 2	210
〈그림 80〉 민화 속의 남성 화장대	210
〈그림 81〉 남자 화장대 속의 물건-풍잠, 빗, 살쩍 밀이	210
〈그림 82〉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거리 1	211
〈그림 83〉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거리 1, 8폭 병풍	211
〈그림 84〉 운현궁에 전시된 조총	212
〈그림 85〉 운현궁에 전시된 조총과 홍이포.	212
〈그림 86〉 조총과 화승포	212
〈그림 87〉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책거리	213
〈그림 88〉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책거리, 6폭 병풍	213
〈그림 89〉 여러 가지 은장도	214
〈그림 90〉 다양한 장식의 장도	214
〈그림 91〉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	215
〈그림 92〉 18세기 화협옹주 묘에서 출토된 화장도구들	216
〈그림 93〉 삼합지함	216
〈그림 94〉 삼태극 지함	216
〈그림 95〉 개인 소장 책거리 1	217
〈그림 96〉 개인 소장 책거리 1, 8폭 병풍	218
〈그림 97〉 단 폭 책거리, 개인 소장 2	219

〈그림 98〉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2	219
〈그림 99〉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거리 2, 6폭 병풍	220
〈그림 100〉 개인 소장 책거리 3	221
〈그림 101〉 개인 소장 책거리 3, 4폭 병풍	221
〈그림 10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	222
〈그림 103〉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 4폭 병풍	222
〈그림 104〉 공명도의 예	223
〈그림 105〉 새해 부적, 관화	223
〈그림 106〉 금계	223
〈그림 107〉 민화 속의 금계	224
〈그림 108〉 금계가 있는 병풍, 개인 소장, 8폭 병풍	224
〈그림 109〉 조선 민화 박물관 소장 책거리, 7폭 병풍	225
〈그림 110〉 용과 두꺼비	225
〈그림 111〉 청학	225
〈그림 112〉 백학	225
〈그림 113〉 공작	225
〈그림 114〉 공작	225
〈그림 115〉 하마선인도	226
〈그림 116〉 〈그림 110〉의 일부.	226
〈그림 117〉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	227

〈그림 118〉 프랑스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책거리 1	228
〈그림 119〉 프랑스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책거리 2	228
〈그림 120〉 〈그림 118〉의 왼쪽 윗부분이 같은 본을 쓴 책거리	228
〈그림 121〉 개인 소장 책거리 4	229
〈그림 122〉 구족반(狗足盤)과 호족반(虎足盤)	230
〈그림 123〉 나전칠기 호족반	230
〈그림 124〉 다양한 크기의 붓	230
〈그림 125〉 장죽 통 안의 장죽과 받침	231
〈그림 126〉 책거리 속의 화로 1	231
〈그림 127〉 향로와 부삽, 부젓가락	231
〈그림 128〉 실제 향로와 부삽, 부젓가락	231
〈그림 129〉 책거리 속의 화로 2	231
〈그림 130〉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책거리	232
〈그림 131〉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책거리, 8폭 병풍	232
〈그림 132〉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바늘꽃이	233
〈그림 133〉 룡정조선족 민속박물관 소장 낫바늘집	233
〈그림 134〉 연변박물관 소장 바늘방석	233
〈그림 135〉 개인 소장 책거리 5, 2폭 가리개	234
〈그림 136〉 나리(백합) 도안의 상징	234
〈그림 137〉 등잔	235

〈그림 138〉 교회동의 산수화	236
〈그림 139〉 등잔과 남포등	236
〈그림 140〉 강세황의 국죽석도	237
〈그림 141〉 조희룡의 국화도	237
〈그림 142〉 김수철의 국화	238
〈그림 143〉 안중식의 국화도	238
〈그림 144〉 〈농가의 내부〉	239
〈그림 145〉 〈독서〉	239
〈그림 146〉 〈사서〉	240

I. 서론

우리는 요즘 들어 젠더(gender)라는 말을 정치나 사회뉴스 등의 분야에서 자주 들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젠더의 문제가 개인이나 그가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이슈로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보통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사회 내에 권력이 있는 모든 분야가 전적으로 남성의 손에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질서 안에서 인식되지 않았음에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생득적 우월성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양성간의 체제를 통하여 그 어떤 형태의 차별보다 확고하고 그 어떤 형태의 계급 차별보다 완강하며 획일적이고 영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¹⁾고 하는 급진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더라도 조선후기는 가부장제 사회였으므로 책거리에도 이러한 가부장제의 흔적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

젠더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한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 정치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생활 규범으로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 정해진 양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성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性)인 젠더로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모습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시작한 나라였고 나라의 체제나 사회구조, 가족관계에도 성리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한 성리학은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를 만들었음에도 그 시대 보편적인 윤리였다. 우리들의 사고 속에도,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성리학은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 이러한 성리학적 이념을 파악하는데 젠더라는 틀이 유용하리라고 보았다.

여성 인권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간단히 분류하자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19세기 후반에서 1914년까지의 여권운동과 제2의 물결인 1968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여성해방운동이 있었고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1990년대 이후의 젠더리즘이다.²⁾ 젠더라는 용어의

1) Kate Millet(2006). 성 정치학, 서울: (주)쌤앤파커스, 67-75.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 『제2의 성』에서 시몬느 드 보브아르(Simone de Beauvoir)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한 이후 사회적 성별로서 젠더 개념은 여성 억압의 이유를 사회화 과정에서 찾으면서 페미니즘 논의에 새로운 분석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여성대회에서 sex대신 gender를 사용하기를 결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리학과 젠더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성리학 기반의 사회이고 21세기의 사상체계 중 현실 속의 성리학과 가장 화합하기 어려운 페미니즘을 빼고서는 성리학을 사회학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III장에서 정의한 성리학적 젠더 또는 남녀젠더라는 용어를 I 장, II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서술하면 조선시대 성리학적 가치관의 기준에 맞추어 남녀 모두에게 강요된 성역할을 성리학적 젠더라고 하고 그러한 조선후기 젠더를 본 연구에서 간단히 젠더라 부르기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왜냐하면 성역할이라는 것은 태생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산물이며 사회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 남성젠더 중심적 문화와 젠더의 사회화의 이념적 근거가 바로 성리학이었다. 젠더에 대한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조선후기의 젠더의식은 얼마나 성리학적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었는지 또,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조선후기 회화 중에서 민화의 한 영역인 책거리에는 책과 더불어 많은 상징 기물들과 생활용품들이 그려져 있다. 민화 책거리 작가들은 상류층 책거리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의 표현과 강조를 위한 매개체로 기물들을 사용하였다. 앞서가는 유행의 흐름을 타서 세련되어 보이고, 각자가 바라는

2) 한국여성연구소(2014). 젠더와 사회, 서울: 동녘, 47.

복을 준다 하여 처음 정조의 학문 숭상의 책거리와 거리가 먼 길상적인 기물들을 그려내었다. 이처럼 상류층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는 기물들은 단순한 물체가 아닌 성리학의 프로퍼간다가 되어 기물들로 성리학적 젠더를 확고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거리에 나타난 성리학의 기준에 의한 남녀 젠더를 분석한다면 책거리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성역할 분담을 통한 성(性)에 따른 가치관과 생활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역을 확장하여 조선후기 민화의 다른 영역에서도 성리학적 남녀젠더를 새로운 그림 분석의 잣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젠더에 대한 고찰이 조선시대 회화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거리를 포함한 조선후기 회화에서도 젠더적 접근에 대한 연구나 젠더를 근거로 한 분석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리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사회 모든 곳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조선후기에 그려진 한 여성 책거리를 보고 ‘성리학이 사회의 가장 엄격한 규범이 되었던 조선후기의 책거리에서 왜 이렇게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여성의 모습이 표현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책거리가 그려졌던 조선후기에, 성리학이 중심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그 시대에 책거리에 나타나는 젠더적 개념은 어떤 것인지, 즉 **조선후기의 젠더적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개개인의 사고나 생활을 어떻게 변하게 하였는지, 그것이 책거리에는 어떠한 표현을 하게 했는지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물들이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젠더의식이 잘 반영된 민화의 한 영역인 책거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음양의 이치나 음양의 조화처럼 태생적인 성의식이 아닌 후천적인 사회상을 반영하는 젠더를 기준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성리학의 강한 영향으로 젠더에 대한 역할분담이 분명했던 조선후기의 책거리에 나타난 그 시대 사

람들의 사고와 사회상황, 제작 의도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민화에 대한 연구에서 현대적 젠더의 개념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갖는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미는 크다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민화의 책거리에 묘사된 기물들을 성리학적 남녀 젠더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책거리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파악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성역할 분담을 통한 사고방식과 생활 모습을 추정하며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책거리가 묘사된 작품분석을 병행하였다. 회화를 연구하는데 원본인 1차 자료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나 원본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책거리는 전시회 도록이나 민화박물관에서 수집한 2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책거리 작품분석에 활용한 가회민화박물관 소장의 40점 이상의 책거리 병풍, 단 폭 책거리들과 『*Chaekgeori*』, Dahalmedia, 2017, 『한국의 채색화 03: 책거리와 문자도』, 다할미디어, 2015, 『한국의 민화 2』, 한국학자료원, 2015. 『민화의 계곡Ⅱ』, 조선민화박물관, 『길상』, 가나아트, 국립해양박물관 2018년 기획전시 도록,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경기도 박물관, 2012. 『한국민화전집 2, 5, 6』, 한국학자료원, 2019, 『李朝の民畫』, 강담사, 1982. 『朝鮮の民畫』, 미술문화원, 1911. 『민화,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도록』, 도서출판 예경, 2004. 등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고 미술 서적 중에는 『*Ch'aekkori Painting, A Korean Jigsaw Puzzle*』, Sahoipyounghon Academy, 2020 등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책거리들 중에서 책거리의 분석 대상은 남성과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남성젠더가 표현된 책거리 중 서가식 책거리인 이용록의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책거리>, 호피 장막도라는 별칭이 있는 <리움 미술관 소장 책거리 1>, <리움 미술관 소장 책거리 2>를 분석하였고 민화 책거리는 매미나 거북, 갑옷과 투구, 조총 등이 표현된 7개의 책거리를 더 분석하였다. 성리학적 여성젠더가 표현된 책거리로는 절개와 다남을 상징하는 도상들이 같이 들어간 책거리 유형들인 4점의 책거리를, 인물이 등장하여 실천적 성리학적 젠더를 강조하는 책거리 3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적 젠더를 수용하는 태도가 앞의 책거리들과 다른 책거리들을 분석하였다. 남녀 젠더를 조화롭게 표현한 <조선 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와 젠더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남녀의 방의 모습을 나타낸 <프랑스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책거리>,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하층민과 여성들이 한글이라는 문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대를 보여주는 책거리인 한글 소설이 8권이나 꽂혀 있는 <개인 소장 책거리 3>과 침선도구(針線道具)인 바늘방석이 놓인 여성의 방에서 바닥에 펼쳐진 책 두 권이 나타난 <팔공산 자수박물관 책거리>와 여성이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는 <개인 소장 책거리 4>를 분석하였다.

회화자료의 1차와 2차 자료를 보면 책거리는 연폭(聯幅)으로 그려진 서가식 책거리 말고는 대부분의 민화 책거리는 병풍이라도 한 폭씩 독립된 그림으로 볼 수 있고 병풍은 12폭, 10폭, 8폭 등 짝수로 제작되는데 훼손이나 분실되어 홀수로 남아있는 책거리도 많다. 그래서 구한 자료들을 병풍이 몇 점인지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폭 수를 기준으로 자료의 합계를 내었다. 그 결과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책거리(단위: 점). 2021. 4월 기준.

단폭	쌍폭	3폭	4폭	5폭	6폭	7폭	8폭	10폭	청대	합계
27	19	4	7	2	16	3	59	21	2	160 병풍수
27폭	38폭	12폭	28폭	10폭	96폭	21폭	454 폭	210 폭	5폭	901 폭 수

3. 선행연구 고찰

책거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경향은 초기에는 궁중 장식화로 시작한 서가식 책거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민화 책거리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궁중 장식화로 시작한 서가식 책거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서가식 책거리에 대한 역사기록을 기반으로 한 그 연원에 대한 연구와 특정한 책거리로 범위를 한정된 선행연구들이 많다. 최근에 들어와서 민화책거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민화 책거리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조형적인 분석, 그림 속에 나오는 기물들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책거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2000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책거리에 대한 관심은 1959년에 일본인 민예 연구자인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³⁾가 민화 책거리에서 받은 감동을 “불가사의한 민화”라는 글을 통해 극찬하면서 책거리는 민화의 한 영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2년 이원복의 「책거리소고」의 내용은 책거리에 대한 선구자의 본격적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원복은 첫째, 책거리는 조선에서 형태가 만들어진 독특하고 개성 있는 구성과 특징을 드러내 보인 그림이며 화풍 상의 뚜렷한 특징이나 대단한 유행을 보여주는 수량적인 측면도 역시 다른 나라와 구분된다고 하였다. 둘째, 궁중 장식화로 궁중 화원에 의해 그려진 것은 책가도로 분류하고, 민간수요에 의해 제작된 것들은 문방도로 분류하였다. 이 논문에서 책거리를 ‘책가(冊架)’로 통칭하고 책가에는 책가도와 문방도의 큰 두 흐름이 있다고 하였으며, 책거리에 는 일반회화와 민화로 구분되는 다른 두 영역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로 18세기 이전의 책가도의 연원을 기명도 계열에서 찾았던 종전과 달리 청대의 다보각, 다보격⁴⁾을 우리식으로 평면화하여 그린 것으로 서술했고 순수 민화 계열에서는 불화의 조사도⁵⁾ 등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하였다.⁶⁾ 이는 책가도와 문방도가 전혀 다른 연원을 두고 있다기보다 상호

3) 야나기 무네요시, 이길진 역(1994). *조선과 그 예술*, 서울: 신구문화사, 320 - 324.

4) 정병모, 김성림(2017). *Chaekgeori*. 서울: Dahalmedia, 24.

〈그림 1〉, 청나라 장식장의 일종.

5) 〈그림 2〉

6) 이원복(1992). 책거리 그림 소고. *근대한국미술논총*(12), 103 - 126.

보완이나 결합되고 절충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원류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원적인 구분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책거리의 분류에서 처음에는 서가식 책거리로 궁중 화원에 의해 그려졌지만, 당시에 조선에 없던 서가라는 가구에 대한 거부감으로 서가는 없어지고 책과 기물들만 나열한 나열식 책거리로 발전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 다른 선구적 연구는 1993년 Kay E. Black과 Edward W. Wagner의 「*Ch'aekköri Paintings: A Korean Jigsaw Puzzle*」⁷⁾이 있다. 미국의 Columbia 대학의 소장품을 시작으로 박물관 수장고, 각 나라의 개인 소장품들, 옥션과 딜러들의 숨겨놓은 책거리들을 15년간 150여 개의 책거리를 보고 연구한 결과이다. 그는 책거리의 분류를 isoiated type(나열식), table type(탁자식), trompe l'oeil type(서가식)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서가식 책거리 속의 인장(印章)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들 인장에서 Trompe l'oeil 화법(서가식 책거리의 서양식 원근법)을 썼던 작가들은 혁신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밝혀놓았고 특히, 책거리에 나타나는 인장과 채색과 형태, 경향 등으로 궁중 화가인 이응록과 이형록, 이택균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형록의 가계도를 밝혀 6세대에 걸쳐 15명의 궁정 화원을 배출한 걸출한 집안이었으며⁹⁾ 궁중 화원들의 혼맥까지 찾아내 증인계급이었지만 그림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서가식 책거리는 왕실과 지배층의 엘리트 계급이 향유하던 문화였고 그 뒤로 일반 백성에게 확산되었다고 밝혀 서가식 책거리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 그의 연구에서 서양식 원근법인 Trompe l'oeil¹⁰⁾(서가식 책거리)의 다시점(多視點)¹¹⁾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금도 많은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다. 위의 두 선행연구는 민화와 책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고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2000년을 넘어서는 책거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다. 2001년 강관식의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¹²⁾ 2004년

7) Kay E. Black, Edward W. Wagner(1993). *Ch'aekköri Paintings: A Korean Jigsaw Puzzle*, *Archives of Asian Art XL(VI)*, 63 - 75.

8) <그림 3>

9) <그림 5>

10)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1998). 미술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67.

눈속임 기법이라는 뜻으로 처음으로 우리 회화에 서양식 원근법을 적용하여 평면의 표현대상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됨.

11) <그림 7>, <그림 8>

이인숙의 「冊架圖, 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¹³⁾ 2007년 방병선의 「이형록의 책가문방도 팔곡병에 나타난 중국 도자」¹⁴⁾ 2007년 이현경의 「책가도와 책거리의 시점에 따른 공간해석」¹⁵⁾ 2010년 신미란의 「책거리 그림과 기물연구」¹⁶⁾ 2018년 한세현의 「19세기 책가도의 새로운 경향: <호피장막도를 중심으로>」¹⁷⁾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성과들을 통해 지금의 책거리에 대한 정의와 분류법 등이 정리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책거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책거리의 정의는 ‘책과 기물들을 그린 정물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외국학자 중 Kay E. Black과 Edward W. Wagner 등도 ‘books and things’로 정의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책거리에 대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된 두 저술인 정병모의 『책거리』와 Kay E. Black의 『*Ch'aekkori Painting*』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여 책거리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2020년 정병모의 책거리 분류는 서가식 책거리와 나열식 책거리 말고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 서가가 없어지고 탁자나 서안, 경상 등의 가구 위에 책과 기물들을 쌓아 놓은 듯한 탁자식 책거리와 문방도로 부터 비롯된 평면적인 구성 속에서 책과 기물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독특한 조형미를 갖는 가장 민화다운 특색을 보이는 밀집식 책거리로 나누었다. 책거리에 시를 적어 넣기도 하고 길상의 상징인 동물들과의 결합, 문자도 책거리, 자수 책거리로의 확장 등에 대하여 다루는 등 책거리의 다양한 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2020년에 발간한 40여 년간의 연구내용을 300페이지가 넘는 내용으로 집대성한 Kay E. Black의 앞의 저서에서 대만의 고궁박물관의 옹정황제 왕좌의 뒤에 5폭의 자수 액자

12) 강관식(2001).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 미술 자료 66호, 79-95.

13) 이인숙(2004). 冊架圖, 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조선후기 민속문화의 주체(6), 169-237.

14) 방병선(2007). 이형록의 책가문방도 팔곡병에 나타난 중국도자, 강좌미술사(28), 209-238.

15) 이현경(2007). 책가도와 책거리의 시점에 따른 공간해석, 민속학연구(20), 145-165.

16) 신미란(2010). 책거리 그림과 기물연구, 미술사학연구 268, 169-294.

17) 한세현(2018). 19세기 책가도의 새로운 경향:<호피장막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35), 191-219.

<그림 9>의 예를 들어 시간의 차이는 조금 나지만 중국에서는 나열식(isolated type) 형식의 책거리가 서가식 책거리보다 앞서 나타났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보 제653호이며 14세기 고려 때 제작된 4쪽의 자수 화조화인 사계분경도(四季盆景圖, 그림 10~13)를 예를 들어서 정물화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먼저 우리만의 전형을 지니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Trompe l'oeil(서가식 책거리) 형식에서 중국의 책거리 작가들은 기물들을 좋아하고 한국의 책거리 작가들은 책을 더 좋아하여 기물들의 수는 더 적게 크기는 더 크게 그렸고 음영은 더 강하게 그린 다음 책갑에 정교한 무늬를 넣었다고 양국의 책거리를 비교하였다. 또 서가식 책거리에 나타나는 '혜춘'이라는 작가의 낙인이 있는 2쪽 책거리¹⁸⁾를 보고 궁중 화원을 배출한 두 가문의 족보를 연구하여 이형록의 가문을 포함한 세 가문의 인맥과 혼맥 등 인장의 연구를 통하여 인장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그가 속한 상류층의 인맥도 연구하였다. 상징 기물에 대해서도 특정한 두 책거리에 나오는 기물들을 비교하여 한정적으로 분석하였거나, 특정한 서가식 책거리에 나오는 중국 도자(陶瓷)에 대한 연구 등 그 범위를 한정시켜 기물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있었다.

본 연구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차이점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성리학적 젠더를 재해석하여 책거리에 나오는 기물들에 적용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징 기물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없었으나 여성젠더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 저술은 있었다. 책거리의 여성젠더에 대하여 반성리학적 시선으로 2013년 정병모의 『무명 화가들의 반란, 민화』에서 시작하여 2017년의 『민화는 민화다』, 2020년의 『책거리』¹⁹⁾에서 선구적으로 다루지고 있는데, 세 개의 책거리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여성 책거리가 수량적으로 희소한 자료이고 젠더적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화나 책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전개되는 중의 한 부분에 젠더적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는 것으로 젠더적 개념

18) <그림 3>

19) 정병모(2013).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서울: 다홍미디어, 97-99; (2017). 민화는 민화다, 서울: 다홍미디어, 63-67; (2020). 책거리, 서울: 다홍미디어, 193-199.

으로의 확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 같은 반(反)성리학의 성향이 나타난 책거리이다.

본 연구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기물들을 분석하여 책거리에 나오는 기물들의 상징성과 젠더적 성격을 찾기 위해서 그 연원을 찾는 데 있어 다른 학자들의 저서에서 근거가 있는 것들을 모아 분석하였다. 특히 성리학과 젠더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젠더를 재해석하여 성리학의 여성관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나 성리학적 젠더의 여성 억압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보는 두 극단적인 입장과는 달리, 제3자의 시각에서 보다 중립적으로 다루려고 하였다.

4.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시대 젠더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으로 성리학적 남녀젠더를 정의하고 이것이 책거리에 표현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책거리들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남녀 공동의 젠더인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과 젠더적 경향 없이 길상을 나타내는 기물들을 나누어 분류하고 나서 성리학적 남성젠더가 많이 표현된 책거리를 찾아 기물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성리학적 여성젠더가 있는 책거리에 대하여 앞의 방법과 같이 분류하였고 셋째, 성리학적 남녀 젠더가 같이 표현되어 조화로운 책거리를 분석하였고 넷째로 성리학적 젠더의 수용 태도가 다른 책거리들을 분석하였다. 성리학적 젠더의 수용 태도의 변화는 처음에는 조화로우미 당연하였는데 남녀 사이의 표현이 성리학적 가치관을 넘어 자유로움을 표현하기도 하다가 시대 흐름에 따라 여성이 책을 읽는 상황들이 반영되는 책거리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해주는 것은 책거리에 나타난 상징 기물들이고 이러한 기물들에 대한 분석은 책거리의 주제를 표현하는 소재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러한 상징 기물들을 화면에 그려 희망과 길상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도 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책거리를 걸어두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

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유형별로 표본에서 선택한 책거리들은 <표 2>에서 정리하였다.

<표 2> 성리학적 젠더의 관점에 따른 표본의 분류

젠더	대상 책거리		그림 번호
성 리 학 적 남 성 젠 더	서 가 식 책 거 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그림24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1	그림36
	민 화 책 거 리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2	그림4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	그림50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	그림5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	그림54
		『조선 민화』 수록 책거리	그림61
		북한 책거리	그림66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	그림69
		계명대학교 소장 책거리 1	그림82

젠더	대상 책거리		그림 번호	
성 리 학 적 여 성 젠 더	민화 책거리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그림87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	그림91	
		개인 소장 책거리 1	그림95	
성 남 리 녀 리 젠 학 더	민화 책 거리	인물	여성이 표현된 책거리, 개인 소장 2	그림97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거리 2	그림98
		개인 소장 3	그림100	
	조화로 운 젠 더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	그림102	
		조선 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그림109	
탈 수 성 용 리 태 학 도 학 적	남성 책거리	표현의 자유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그림117
	여성 책거리		프랑스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그림118 그림119
소 여 설 성 을 자 통 의 한 식 의	민화 책 거리	한 글 소설	개인 소장 4	그림121
		책 읽는 여성 1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그림130
		책 읽는 여성 2	개인 소장 5	그림135

젠더	대상 책거리			그림 번호
성 장	유럽 회화	책 읽는 여성 3	농가의 내부(Farmhouse Interior), Johanne Mathilde Dietricson, 1875.	그림144
		책 읽는 여성 4	독서 Federico Faruffini, 1865.	그림145
		책 읽는 여성 5	The Librarian, Fellician Rops, 1878,	그림146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전개는 다음과 같다. I 장에서 책거리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책거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II장에서 이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책거리와 젠더의 개념을 정리하고 책거리에 나타난 젠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조선시대 젠더의식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성리학적 남녀 젠더를 정의하고 책거리에 나타난 성리학적 젠더가 아닌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격을 가진 기물들을 분류하였다. IV장에서는 성리학적 남녀 공동의 젠더인 다남과 길상을 나타내는 기물들을 살펴보았고 또, 책거리에 나타난 성리학적 남성젠더와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을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리학적 이념 위에 세워졌던 조선에서 후기로 갈수록 왜 기존의 성리학적 여성젠더에 맞지 않는 책거리가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고 거기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책거리를 젠더의 시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성리학에서의 남녀젠더의 형성 환경과 고착화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남녀에 대한 교육과 형법의 적용 방법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의 자의식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형태로 태생적 불만을 표현되었는지 내방가사를 살펴보고 18세기 많은 여성 학자들의 출현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천주교와 동학, 기독교의 영향 등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책거리에서 어떠한 소재들로 화면을 구성하여 그러한 성리학적 젠더를 표현하였는지를 서술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리학적 젠더의

기준에 따라 책거리에 자주 나오는 기물들의 상징성을 조사하여 성리학적 젠더의 성격을 가진 기물들을 정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젠더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기물들 여러 개가 하나의 세트처럼 표현되는 형태도 알아보았다. 성리학에 의거한 남녀젠더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앞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도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거리에 나오는 기물들을 성리학적 남녀젠더에 맞게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작업 후에 만들어진 성리학적 젠더의 잣대를 적용하여 책거리를 분석하면 각 책거리가 나타내고자 했던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리학적 남성젠더와 성리학적 여성젠더가 나타난 그림을 보면서 두 특성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한글 소설을 매개로 여성 자의식이 성장하는 면모도 발견할 수 있었다.

II. 연구 배경

1. 책거리의 개념

책거리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을 풍미하던 우리만의 정물화이다. ‘책들과 기물들’이란 의미로 영어로는 ‘books and things’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⁰⁾

본 연구에서 책거리는 형태상이나 수요층이 다르고 화가의 계층과 가물들의 차이 등으로 서가식 책거리와 민화 책거리로 구분하기로 한다. 서가식 책거리는 정조시대 궁중 장식화로 시작하여 상류계층으로 확산된 것으로 궁중 화원에 의하여 그려지기 시작하였고 민화 책거리는 주로 서민 화가들이 제작하였다.

18세기 말의 문화적 분위기는 고유 전통문화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국제적 감각과 고유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조화를 이룬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서가식 책거리의 출현 배경에는 정조의 학문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과 북학이라는 시대사상과 급격한 사회변화의 시대에 궁중에서 외래화풍이 수용될 수 있었던 점이나 이질적인 화풍을 소화할 수 있었던 화원들의 역량과 함께 개방적인 회화관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서가식 책거리는 서양식 원근법의 신기한 눈속임 효과(trompe-l'oeil)라는 새로운 장식적 기법과 책, 청동기, 도자기, 옥기, 소과, 화훼 등으로 표현되는 학문 숭상과 고상한 청완취미(淸婉趣味), 길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성으로 상류계층의 수요에 부합하였다. 그리고 서가식 책거리의 가장 큰 회화적 특징인 서가의 입체적 공간감이라는 외래화풍의 요소는 그대로지만, 서가 형식이 청의 다보각, 다보격에서 조선의 책가로 바뀐 것과 조선의 서적을 배치한 것 등에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주체적 수용의 모습을 볼 수 있다.²¹⁾

또한, 책거리에서 책과 문방청완(文房淸婉)의 기풍은 사회지도층인 사대부층의 기본적인 교양이자 문인사회에서 교제와 생활의 필수적인 조건이

20) 정병모(2020). 책거리. 서울: 다홀미디어, 8-9.

21) 이인숙(2004). 앞의 논문, 169-237.

었다. 특히, 17·18세기 유럽에서 불었던 ‘시누아즈리(chinoiserie)’가 18세기 조선의 상류계층에도 유행하여 중국의 서화고동(書畫古銅)과 서양의 선진 문물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문화가 유행했으므로 이러한 소재의 책거리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였다. 조선에서 볼 수 없는 중국의 화려한 다채색 도자기들과 청동기와 더불어 시계나 나침반 등의 서양의 신기한 문물에 대한 이국적인 취향을 만족시켜 주는 책거리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검약이 중요한 미덕이었던 성리학적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백자만을 고집했던 사대부들이 명분을 지키기보다는 실제로는 중국과 일본처럼 다채색 도자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가식 책거리를 상류계층의 명분과 실리의 양면처럼 책으로 가득한 책거리(그림 14)와 중국과 서양 기물들로 가득 찬 책거리(그림 15)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²⁾

이는 조선후기 사대부들을 포함한 문인들의 문화로서 시서화(詩書畫)를 겸비하고 서화고동(書畫古銅)을 수집, 완상, 감상, 품평하는 명나라 말기의 심미주의적인 문인 주의가 서울의 경화세족(京華世族)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이러한 청물애완(淸物愛玩)의 문화가 비 양반 출신인 중산층과 일반 백성까지 상류층 예술의 저변화가 확장되어 양적·질적 성장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경제적 여력과 도시 발달을 배경으로 한 심미의식의 출현과 풍류 생활과 호사 취미를 가진 수요층으로 확대되면서 일반 백성으로까지 확대되어 갔다.²³⁾ 정조 15년(1791년) 시전(市廛)의 특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매매를 허가하는 신행통공(辛亥通共)을 공포하여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이 가속화되어 서민층의 경제력이 향상되자 시각이 넓어지고 문화 향유의 욕구와 함께 미술품의 소비로 이어졌는데 조선후기 미술문화의 생산과 소비는 상층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활발했다. 이는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로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수공업품 중에는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다. 순조 3년(1803) 자비대령화원 녹취제²⁴⁾에 속화 화문(畵間)으로 출제되었던 ‘광통교매화(廣通橋賣畵)’는 지금의 청계천 입구의 광통교 그림 시장의 풍경을 그리도록 한 것으로, 광통교 서남쪽 개천가에 글씨와 그림을 파는 서화책사

22) 정병모(2013). 무명작가들의 반란, 민화, 서울: 다홍미디어, 78-79.

23) 홍선표(1999). 조선 시대 회화사론, 서울: 문예출판사, 231.

24) 강관식(2002). 조선후기 화원 회화의 변모와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 제도, 미술사학보(17), 8.

(書畫冊肆)에서 오봉도 병풍이나 세화(歲畫) 등을 팔았다. 오원 장승업도 여기서 자신의 그림을 팔았다고 한다.²⁵⁾ 이러한 그림을 팔고 사는 분위기는 궁중 화원만 그린 것이 아니라 서민 화가들도 그림을 그렸고 수요자가 사대부에서 일반 백성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반 백성의 책거리에 대한 소비는 장소에 따라 용도가 다양한 병풍부터 다락벽, 장지문, 벽장문, 대문 등 각각 용도에 맞는 그림이 실용적인 목적과 더불어 감상용으로도 팔리게 되었다. 사대부층과 상류층에서 소비되었던 장식화와 다른 수요층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업적 그림은 사대부들의 정형화된 책거리와 다른 민화 책거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상류층의 문화가 외국 선진문화의 유행을 따라간다면 일반 백성은 상류계층의 문화 형태를 모방한다. 그래서 민화 책거리에는 당시의 궁중·양반·중국의 문화나 미술의 경향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서민문화의 성격상 차별성보다는 필요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²⁶⁾ 처음에 정조의 서가식 책거리가 최고의 도화서 화원에 의해 그려졌을 때 책거리의 수요층을 고려해보면 정조가 우리나라 최초의 책거리의 기획자이자 수요자였을 것이다. 조선후기 화가들의 전기를 정리한 이규상(李奎象, 1728-1799)의 『일몽고(一夢稿)』에 의하면 궁중 장식화인 이 서가식 책거리 수요자를 ‘귀인(貴人)’이라 했는데 이는 『일몽고(一夢稿)』의 내용 중 〈화주록(畫廚錄)〉에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당시 화원(畫院)의 그림이 처음으로 서양 나라의 입체감 나는 사면척량(四面尺量) 화법을 본떴는데, 그림이 이루어져 한쪽 눈을 감고 보면, 모든 기물이 가지런하게 서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는 이를 ‘책가(冊架)’라고 불렀다. 그림에 반드시 채색을 칠하고, 한때 귀인들의 벽에 이 그림을 바르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김홍도가 이 기법에 뛰어났다.”²⁷⁾

25) 강관식(2001). 조선후기 궁중 화원 연구 上, 파주: 돌베개, 589.

26) 이인숙, 앞의 논문. p. 235.

27) 이규상(1997). 18세기 조선 인물지, 서울:창작과 비평사, 150-151, 285.

(當時院畫創倣西洋國之四面尺量畫法, 及畫之成, 瞬一目看之, 則凡物無不整立, 俗目之曰, 冊架, 畫筆染丹青, 一時貴人壁, 無不塗此畫, 弘道善此技)

위의 기록으로 보아 귀인은 당대 최상류층으로 궁중 화원이 그린 장식화를 집에 걸어두었다. 이때의 책거리에 가장 가까운 책거리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8폭 책거리의 형태로 추정된다(그림 4). 궁중 화가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모여서 주문받은 책거리를 함께 그리기도 하였으며²⁸⁾ 이러한 작품들이 시중에 풀리면서 모방작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쉽게도 김홍도의 책거리는 전해지지 않고 70년 뒤 유재건이 지은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에서 정조가 말한 책거리를 그리지 않아 파면되어 귀양을 가야 했던 화원이종현의 아들인 이유민과 손자 이형록 부자가 책거리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 다음과 같이 전한다.

“화사(畫史) 이윤민은 문방제구를 잘 그려서 사대부가의 병풍은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당시에 교묘하여 짝이 될 사람이 없다고 일컬어졌다. 그의 아들 형록도 가업을 계승하여 정공(精功)이 극치에 이르렀다. 내게 여러 폭의 문방도 병풍이 있는데 매양 방에 쳐놓으면 간혹 와서 보는 사람이 책들이 책꽃이에 가득 찼다고 여기다가, 가까이 와서 살펴보고는 웃었다. 그 정묘하고 씩진(幅眞)²⁹⁾함이 이와 같았다.”³⁰⁾

앞의 화주록(畫廚錄)의 글에서는 ‘책가’인 서가식 책거리를 이 글에서 문방도로 부르고 귀인에서 수요자가 사대부가로 바뀌었다. 이형록의 서가식 책거리는 현재 10개 정도가 남아 전하는데 그 중 (그림 4)는 현전하는 책거리 가운데 원근법과 투시법이 가장 서양화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가식 책거리는 병풍으로 제작되어 유재건이 ‘방에 펴서 두면(設於房舍)’이라고 했듯이 생활공간에 설치하는 가구 같은 역할을 하는 ‘바람막

28) 강명관(1997). 조선후기 여향문학연구, 서울:창작과 비평사, 174-175.

여향문학: 18세기부터 양반사대부가 아닌 계층인 중인 이하 상인·천인까지 포함하는 하급계층의 한문학 활동.

別提 김홍도, 萬戶 신한평, 主簿 김응환, 主부 이인문, 主부 이종현 등 이름난 화사들이 중부동 牧官강희언의 집에 모여 공사의 주문에 불만한 것이 많았다. 나는 평소에 그림을 좋아하므로 봄부터 가을까지 드나들었는데, 감상을 하기도 하고 화제를 쓰기도 하였다(馬聖麟목, 『平生憂樂總錄』).

29) 씩진(幅眞): 실물과 아주 비슷함.

30) 李畫師潤民, 字載化. 善畫文房, 搢紳家屏障, 多出於其手, 時稱高妙無儔. 其子亨祿, 亦承箕裘, 極其精工. 余有數幅文房圖屏, 每設於房舍, 或有來見者, 認以冊帙滿架, 近察而哂之. 其精妙逼真如此.

이'나 '가리개'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다보격에서 출발하였던 서가식 책거리는 정조 이후 서양식 원근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사용되어 관심을 끌었으나 왕을 비롯한 최상류계층의 장식물로서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보각 같은 진열장 형식의 유사한 가구가 없었던 조선의 생활환경에 정착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서가는 그대로 두고 기물들을 변화시켜 중인층이나 서민층의 문화로의 변화도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상류층 문화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막을 내리며 쇠퇴해져 갔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회지도층인 사대부들에게 서화고동(書畫古銅)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것은 교양이었고 문인들 교류의 필수요소여서 책거리의 소재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망한 명나라 문인들의 서재(書齋) 문화로서 시서화를 겸비하고 서화고동을 수집하여 감상하고 품평하고 감상하는 탈세속(脫世俗)적이고 심미주의의 문인문화가 서울에서 유행하였다. 이어진 문인화 사조의 유행으로 서가는 사라지고 내용물이었던 책과 서화고동은 여전히 책거리의 소재가 되어, 서가를 빼고 기물들은 그대로 배치되어있는 나열식 책거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후기 일반 백성들의 향상된 경제력은 벽이 많은 조선의 가옥구조와 맞물려 미술문화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문상점에서 병풍 용의 대규모 그림에서부터 대문, 다락벽, 장지문, 벽장문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그림이 판매되었다. 조선후기 민화의 대량 생산과 소비는 병풍의 유행과 그림을 벽에 바르는 도배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민화의 표현물인 병풍은 일생의 중요 의례에 사용되었던 필수품이었는데, 장소에 따라 그림이 결정되고 장소에 알맞은 소재를 조합하는 관습에 따라 정형화된 유형이 생기고 그에 따른 본(本)(예:그림 16, 17)을 사용되게 되었다.

민화 책거리의 시작을 생각해보면 처음 화원이 그린 책거리의 본(本)이 반복 재생산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착오나 변용, 서민 화가의 독자적인 창의적 시도와 수요자의 요구, 화가의 능력 등에 의해 조금씩 변형되어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의 것과는 다른 민화만의 독자적 양식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방식은 처음의 서가식 책거리에서 나열식 책거리, 탁자식 책거리, 밀집식 책거리, 장막식 책거리 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책거리는 중국의 연화(年畵)가 공방에서 생산되었던 것에 반해 유통체계를 갖추지 않고 그려졌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은 없어도 각각의 책거리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관습에 물들지 않은 작가만의 창의성이 살아있다. 31)

민화 책거리는 궁중 화원이 아닌 조선후기 일반 백성의 시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어려운 서양식 원근법을 모르던 서민 화가들은 기물들의 원근감이나 입체적 표현을 자기만의 관찰법에 의하여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서양식 원근법이 화가의 시각인 고정된 하나의 소실점에서 기물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방법이였다면 이동하는 시점인 다시점으로 원근감을 표현하고 이를 하나의 화면에 표현한 것은 서양식 원근법에 우리만의 시각적 표현을 더하여 야나기 무네요시가 극찬하였던 불가사의한 민화가 되었을 것이다.³²⁾ 서가식 책거리에서 표현하고자 하던 청물완상이나 유학적 가치관으로 통속적인 표현을 자제했던 부드러운 길상적인 표현들이 민화 책거리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유적인 표현보다 더 직접적이고 통속적으로 표현되어 길상적 표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해지게 된다. 민화의 주된 소비층이 일반 백성이라고 하지만 조선후기 서민예술의 부흥 속에서 민중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판소리와는 소비층의 범위가 다르다. 책거리는 특정한 하나의 사회계층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이 주요 소비층이라고 생각된다.

책거리는 집안에 걸어두는 그림으로 수요자의 삶의 무대를 장식하는 배경 화면이다. 온갖 신기한 선진문물과 현실적인 욕망들을 품격 있는 표현들로 가득 채운 사대부층의 서가식 책거리와 달리 민화 책거리는 이념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삶의 진솔함에서 우러나는 모습과 경계를 허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이 더 추상적이고 현대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³³⁾ 그리고 민화 책거리는 작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독창적이고 자유분방한 작가 각자의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책거리에 나타나는 기물들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기물들의 다양성은 민화 화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명료하고 강하게 그리는 데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기물들을 성리학적 젠더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고 이 성리학적 젠더의 갖대가 책거리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그림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듯 조선후기에 맞는 사회적 기

31) 세리자와 케이스케. (1982). 李朝民畫, 하권, 6-8.

32) 정병모. (2020). 책거리. 다홀미디어, 125.

33) 위의 책, 132-133.

준을 가진 성리학에 기준을 둔 젠더의 분석은 조선후기 사회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책거리를 분석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책거리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젠더의 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젠더(gender)라는 개념은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고, 사회 안에서 주어진 성역할의 차이로서의 남성/여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는 자연인이 아닌,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역할 분담으로 정의한다.³⁴⁾ 간단히 말하면, 한 개인에게 그가 속한 사회에서 바라는 성역할(性役割)이고 사회가 정해 놓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결혼한 사대부가 요리를 한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집안의 흉이었지만 현재의 남성이 요리를 잘한다면 많은 여성이 매력으로 느끼는 장점이 된다. 그리고 ‘어떤 남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어떨까?’, ‘남자는 인생에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또 어떤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문화권에 따라 답과 해석이 다른데, 이는 질문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젠더에 대한 그가 속한 사회의 젠더 적합도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반드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사회가 바라는 여성의 역할이었다면 현재의 여성에게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조선후기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불효이고 죽어 마땅한 죄였지만 현재도 그러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처럼 젠더는 생물학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의해 행동 양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젠더는 사회 전반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젠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남자답지 못하다거나 여자답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젠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잣대에

34) 로빈 라일(2018). 젠더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10-14.

맞춰 자신의 젠더를 행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젠더에 맞는 모든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젠더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잣대에 맞는 구성원으로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초기 농경사회에서 시작된 젠더 역할은 종교와 사회규범을 통하여 지속되어져 왔는데,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남편에 의존하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⁵⁾ 하지만 조선후기의 성리학적 사회에서 남성이 출세하기 전까지는 샅바느질을 하든, 농사를 짓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부업(婦業, 女工)³⁶⁾에 해당하는 여성의 의무였다. 그것이 젠더의 영향력이고 사회적 관계를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이다.

가장 앞서가는 분야인 패션계에서부터 이제는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성의 구분을 없애고 중립성을 택하는 것으로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해 왔고, 남녀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지만,³⁷⁾ 이제는 성의 구분을 없애고 각기 다른 개성과 취향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재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35) 셸리 하인즈 저, 조현준 역 (2019). 젠더, 정체성은 변하는가?. 서울: 도서출판 자유의 길, 50.

36) 『맹자』

37) 김용섭(2018). 젠더 뉴트럴, 서울: 부키(주), 25.

Ⅲ. 조선 시대 성리학이 젠더형성에 미친 영향

1. 조선시대 젠더의식의 변화과정

이 장에서 성리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에 딱 맞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조선 시대 젠더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려고 한다. 먼저 조선 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고려 말의 유교 제도의 영향 아래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와 그러한 유교 제도가 여성 개개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 후, 소종법(小宗法)이 강화되어 보편화 되었던 17세기 중반부터의 강한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 압박에 의한 성리학적 남성과 여성 젠더의 형성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도하고 무거운 여성젠더가 18세기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들의 영향들과 함께 여성들의 자의식이 생기는 단계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 조선 전기의 여성의 지위

조선 전기의 여성의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려말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친족제도를 조사하여 여성의 주 활동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 내의 지위를 먼저 알아보하고자 한다. 고려에서의 종법 제도는 중국의 종법(宗法) 제도를 가져와 처음에는 중국의 제도를 모형으로 하면서도 고려 고유의 제도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층의 관인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제도로 설정되어 국가권력과 직접 관련된 공적 분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 백성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아니었다. 신라 시대부터 자리를 잡은 우리의 친족제도가 고려에서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출발하였고, 유교적 친족제도를 모형으로 채택한 후에는 가부장제를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까지 조선 중기 이후와 같은 부계 편중적인 가부장제를 점차 강화하는 방향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친족제도는 호적제도(戶籍制度), 오복제도(五服制度), 재산상속제도(財産相續制度), 혼인금지제도(婚姻禁忌制度), 상피제도(相避制度), 음서제도(蔭序制度) 및 혼인제도(婚姻制度)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공적이나 외적으로 드러

나는 호적제도(戶籍制度)와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복제도와 연관 있는 급가제도(給暇制度)도 조선 전기 여성의 지위와 연관 지어 서술하여 보겠다.

고려의 호적제도는 봉권적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 신분과 관련하여 호적제도에는 호주 부처(夫妻)의 조상을 추심(推尋)³⁸⁾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한 개인의 신분이 일정한 범위 내의 조상의 신분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외가나 처가의 어느 범위까지 추심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것과 같을 것이다. 외가와 처가의 범위가 친가와 같을수록 친족제도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위상은 평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호적에는 사조호구(四祖戶口)와 팔조호구(八祖戶口)가 있었다. 사조호구(四祖戶口)는 호주 부처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와 외조(外祖)까지를 보는 것이었고 팔조호구(八祖戶口)는 사조호구(四祖戶口)에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 외조부모(外祖父母), 처부모(妻父母)의 사조를 더 넣는 방식이다³⁹⁾. 사조호구는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널리 사용되면서 고려 시대부터 구한국(舊韓國) 초까지 유지되었다. 그에 비하여 팔조호구는 주로 관에 출사한 상층 신분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 초에 폐지된 제도이다. 『세종실록』에는 그것이 2품 이상의 호구 양식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본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뽑는 관청의 호구 양식으로 출발하여 후기에 오면서 신분을 확인,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원래는 관리들을 등용할 때 신분을 가리기 위해 발전된 제도였다. 이러한 폐단으로 팔조호구를 폐지하였는데 『태종실록』에서 “조상의 오래된 문계(文契)를 추심하기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국가에 폐만 있고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인 것⁴⁰⁾같이 설명하고 있다. 팔조호구의 적용 범위를 보면 모계 및 처계(妻系) 친족도 매우 중시하면서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도 겸하는 제도였다.

38)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그 신분과 배경을 조사하는 일.

39) “禮曹啓, 謹稽高麗士大夫戶口式 只錄四祖者 謂之四祖戶口, 其祖父母 · 曾祖父母 · 外祖父母 · 妻父母之四祖具錄者, 謂之八祖戶口, 今以八祖戶口觀之, 父之內外鄉, 祖之外鄉, 曾祖之外鄉, 母之內外鄉, 妻之內外鄉, 共八鄉最爲切近, 不可闕一, 竊疑, 世俗相傳, 二品以上八鄉之說, 以此耳, 據此八祖戶口之式 二品以上八鄉, 六品以上除妻鄉, 而以六鄉爲定, 參外除祖及曾祖外鄉, 以四鄉爲定, 無職衣冠子弟, 除父母外鄉, 而以二鄉爲定, … 從之” (『世宗實錄』 권69, 세종 17년 을묘 9월 기사삭조).

40) 『太宗實錄』 권30, 태종15년 을미 12월 병신조.

조선 초에 이르러 이러한 팔조호구식을 폐지하고 사조호구식으로 호구를 통일한 것이 친족제도의 유교화와 더불어 팔조호구에 반영된 전통적 친족제도가 부계 편중적인 제도로 변천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조선 초의 친족제도 중 초상이 났을 때 상복을 입는 복상제도(服喪制度)를 말하는 오복제도와 상중의 관리에게 휴가를 주는 일수를 말하는 급가제도(給暇制度)를 살펴보려 한다. 이는 그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망인과의 관계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계를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므로 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망자와의 친족 관계에 따라 5개 등급의 상복을 입는데 참최(斬衰), 제최(齊棨),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로 나누어진다. 다음은 고려와 조선의 오복제도와 급가제도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3〉 고려와 조선 초의 오복제도와 급가제도의 비교

친족 관계		고려	조선
본종	부	참최 3년	참최 3년
	모	제최 3년	제최 3년
	형제	제최주년	기년
	조부모	제최주년	제최부장기
	증조부모	소공 5월	제최 5월
	고조부모	시마 3월	제최 3월
외족	외조부모	제최주년	소공 5월
	내구	대공 9월	소공 5월
	내구처	소공시 5월	시마 3월
	종모(이)	(이재실) 대공 9월	소공 5월
	생질(외생)	(이적인) 시마 3월	소공 5월
	여서	소공 5월	시마 3월
	당구	시마 3월	
	구이형제자	시마 3월	
	매		시마 3월

친족 관계		고려	조선
처족	처	제최주년	기년
	처부모	소공 5월에서 공양왕 3년에 개정하여 제최주년	시마 3월

41)

표를 보면 본가일 경우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변동이 별로 없는데 비해 외족에 있어서 내구(외숙)의 경우 상복은 대공에서 소공으로 급가(給暇)는 9개월에서 5개월로 하향 조정되었다. 처부모의 경우는 관리의 부모와 대조적으로 상복은 고려 때 참최나 제최에서 소공으로 하향되었다가 공양왕 때 제최로 다시 변경되었고 조선 때는 관리 자신의 부모는 참최와 제최인데 반해 처부모에 대해서는 상복도 다섯 번째 시마에, 급가는 고려 때 5개월에서 공양왕 때 1년으로 조정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3개월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 두 가지의 제도만 보아도 본격적인 친족제도의 강화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에 팔조호구식을 폐지하여 호구를 사조호구식으로 통일하고 주자가례에 따른 오복제도를 통해 외가와 처가를 배제하여 가부장제를 강화하였다.

조선전기의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위상은, 여성의 불평등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시대의 이미지와는 다음과 같이 다른 부분이 있다.⁴²⁾

첫째, 족보의 기록방식에서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나이순으로 기재했으며 외손이 기록되었고 양자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과 재가 기록이 보인다는 점 등의 특징을 15·16세기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상속제도에서 조선전기에는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상속하여 결혼한 딸도 남편의 재산과 별도로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상속과 관련하여 윤회봉사(輪回奉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유산의 균등한 분배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41) 최홍기(2006).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서울:아카넷, 11-81.

42) 이남희(2011). 조선 사회의 유교화(儒敎化)와 여성의 위상- 15·16세기 족보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48), 135-168.

셋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을 들 수 있다. 이는 고구려부터 내려온 서옥제(壻屋制)에서 내려온 풍속으로 신부의 집에서 결혼하여 자녀들이 장성한 후 분가하거나 평생 처가에서 살기도 하였다. 신사임당의 경우에는 시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친정에서 자신의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로부터 알 수 있는 조선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조선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없지는 않았으나 일반 백성들의 범위까지 미치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의 관인들이 즐겨 쓰던 ‘전조 말에 예제가 문란하고 기강이 문란했다(前朝之李 禮制紊亂 紀綱紊亂)’는 말이 있다. 이는 고려 때 처첩제의 무분별함에서 오는 신분제의 문란을 의미하였다. 그런 이유로 조선 초기에 고려의 체제를 지우고 질서 확립을 위해 처첩분변(妻妾分辨)⁴³⁾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처첩분변은 성리학이 이론적 배경이 되었는데 그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효경』의 12장(규문장[閨門章])에 “규문 안에서도 예가 갖추어져야 하니, 이는 엄한 아버지와 엄한 형이 있음이며 처자나 신첩은 오히려 백성이나 심부름하는 사람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주석에 따르면 ‘엄한 아버지는 임금의 도가 있음이고 엄한 형은 어른의 도가 있음이며 처자나 신첩은 곧 백성이나 심부름꾼처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리가 사사로운 마음을 제어하여 높고 낮음, 그리고 안과 밖이 분명한 조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 도와 가정을 다스리는 도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⁴⁴⁾ 새로운 왕조의 이념인 성리학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족제도의 정립은 사회질서를 정립하는 기반이었다. 처첩분변은 이러한 유교 윤리관의 확립에서 출발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지 못하는 관인은 지배층 신분에서 멀어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유배나 삭직, 또는 폐서인의 엄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건국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새 질서는 성리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부장적 지배구조가 강조되어 실제 가족의 의미는 ‘사적(私的)’인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갔다. 이

43) 『太祖實錄』 권9, 태조 5년 5월 .병자.

44) 박용옥(2001).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108.

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는 지배구조의 강화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여성의 불평등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고 상류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녀 개인에게 미치는 변화의 영향도 미미하였다. 그 이유로는 자유로웠던 고려 시대의 풍습이 아직 남아 있었고, 풍습이 일시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점과 유교 윤리가 수도와 멀리 떨어진 향리나 낮은 신분의 백성들에게까지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조선전기에 편찬되었던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⁴⁵⁾에는 한번 결혼한 여성은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과부의 재혼 금지’를 법으로 정해 놓았다. 또한, 『삼강행실도』는 조선의 지배층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서로 편찬한 것으로 세종 16년(1434)에 처음으로 한문본이 반포되고 성종 12년(1481)에 첫 언해본인 열녀(烈女)편이 간행된 이래, 증보를 거듭하면서 17차례나 인쇄되었다. 일반 백성들의 교육용으로 전국에 배포되었던 이 『삼강행실도』의 「열녀편」에 실려있는 수나라때 원씨(元氏毀面, 隋)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화양왕 양해의 비는 황문시랑 원암의 딸이다. 자색이 있고 성품이 완순하여 비에 뽑혔다. 얼마 안 되어 양해가 유폐되었으나 비는 더욱 공경하며 양해를 섬겼다. 양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빛을 보일 때면 언제나 의리를 개진하여 위로하고 타이르니, 양해가 비를 매우 공경하였다. 江都의 난에 양해가 살해되자 우문화급이 비를 그의 도당 원무달에게 바쳤다. 원무달이 꾀박하였으나 비는 스스로 맹세하고 굽히지 않았다. 원무달이 노하여 매를 백 여 차례 때렸으나 비는 말과 안색이 더욱 강렬하였다. 드디어 그 얼굴에 스스로 상처를 내어 피와 눈물이 함께 흘러내리니, 원무달이 비를 석방하였다. 비가 도당에게 말했다. “내가 일찍 죽어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욕을 당하게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하고는 먹지 않고 죽었다.⁴⁶⁾

45) 이남희(2011),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여성의 재가(再嫁) 문제, 조선시대사학보 57, 47.

46) 〈元氏毀面(隋)〉, 『三綱行實烈女圖』. “華陽王楷妃, 黃門侍郎元巖女也. 有姿色, 性婉順, 以選爲妃, 未幾而楷被幽廢, 妃事楷愈謹, 每見楷有憂懼色, 輒陳義理以慰諭之, 楷甚敬焉. 及江都之亂, 楷遇害, 宇文文化及, 以妃賜其黨元武達, 武達逼之, 妃自誓不屈, 武達怒, 撻之百餘, 詞色彌厲, 乃自毀其面, 血淚俱下, 武達釋之, 妃謂其徒曰: “我不能早死致命, 將見侵辱, 我之罪也.” 因不食而卒.”

이러한 교육방식으로 자기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젠더의식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열(烈)의 의무는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었다. 이러한 삼강행실도를 통한 교육은 가부장적인 질서의 내면화 과정을 거쳐 지배층의 권력 행사의 수단이자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조선전기의 사회에서는 일부 상류계층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대부분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조선전기의 이런 상황에서 예술적 천재성을 가진 두 여성 작가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젠더에 의해 각자의 인생이 어떻게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후에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16세기 퇴계 이황(1501~1570)이나 율곡 이이(1536~1584)가 주자 성리학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주자소종법(周子小宗法)이 백성들의 생활까지 파고들어 자리를 잡기 전의 변곡점에서 살았다. 고려부터 내려오던 유습이었던 남귀여가혼의 막바지에 살았던 신사임당과 당대 명문가이면서 며느리에게 새로운 성리학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적용을 했던 안동 김씨 가문에 시집을 간 후 고된 시집살이로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허난설헌의 인생을 비교해보면서 시간적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동시대에 한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만든 젠더가 평화로웠던 유년기를 보낸 두 재능있는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사후의 평가에 이르기까지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표 4>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표 4> 성리학이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의 삶과 사후 영향의 차이

	신사임당	허난설헌
출생~사망	1504~1551, 49세 사망	1563~1589, 27세 사망
환경	무남독녀로 태어나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학문을 배웠다.	3남 3녀 중 3녀 성리학 하나로 고착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열려있는 학풍을 가진 명문가에서 남자 형제들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

	<p>남편인 이원수와 시어머니의 도량으로 결혼 후에도 부모와 친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가에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 고달픔이 없었다. 남편은 사임당의 자질을 인정해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고 신사임당의 그림을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재능을 인정하였다.</p> <p>자녀로는 4남 3녀를 두었고 특히, 삼남인 율곡 이이(栗谷 李珥)의 어머니이다</p>	<p>김성립과 15세에 결혼했는데 5대째 벼슬을 한 명문가였고 여성에게 글조차 가르치지 않는 사상적으로 성리학에 고착화된 보수적인 가문이어서 여성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학대와 무능하고 속이 좁은 남편,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슬픔, 친정의 몰락으로 건강을 잃고 쇠약해져 자신의 작품을 다 태우고 27세에 죽음.</p> <p>아들과 딸은 병으로 죽고 생김 아이는 유산하여 자녀가 없다.</p>
	그림	시
사 후 (死後) 평 가 와 영 향 의 차 이	<p>시집살이를 별로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순종적이기보다 강한 주관으로 남편을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과 사고는 현모양처라는 용어에 맞아 떨어지지 않았지만 17세기 중엽부터 율곡의 어머니라는 영향으로 현모양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신사임당의 시대에는 산수화를 잘 그렸던 천재화가로서 명성이 더 높았다.</p>	<p>천재적인 시인이었으나 성리학 적 가부장제가 적용되었던 안동 김씨인 시집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성리학적 가부장제 사회가 정착되고 발전해 갈수록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대변되는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다 27세의 나이에 요절(夭折)하였다.</p> <p>중국까지 명성을 떨쳤던 작품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비관과 폄훼의 대상이 되어 여성의 교육은 위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예시가 되었다.</p>

허난설현의 시는 중국에서 대형 시집에 지속적으로 수록될 만큼 그 문학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동생 허균이 공주 목사로 있을 때, 친정에 남아 있던 글과 허균이 외우고 있던 시만으로 사후 20년 후에나 「난설헌집」이 출간되었고 사후 100년 뒤 1692년에서야 두 번째 판본인 「송정후임신동래부중간(崇禎後任申東萊府重刊)」이 나왔다. 사후의 여러 평가 중에서 이수광은 그의 『지봉유설(芝峰類設)』에서 억지스러운 추측이 섞인 해석으로 그녀의 시상(詩想)이 방탕하다고 폄하하였으며, 박지원조차도 『열하일기(熱河日記)』의 내용 중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허난설현을 소개하는 글에서 규중 부인이 시를 읊는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하였는데 16세기를 살았던 허난설현에게 그가 썼던 시에 대하여 20세기 초까지 비난이 이어졌다.

2) 성리학적으로 고착화된 남성과 여성 젠더

성리학적 젠더의 고착화는 남녀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성리학적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을 교육하는 것을 기초로 삼았다. 그러한 교육의 효과로 젠더의 차별성과 젠더 위계화를 만들어 성리학에 맞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배층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재구성하고 강화시켜 나가게 되었다.

17세기 사대부 집안들이 내세울 만한 명분에 입각한 소종법의 적용으로 종가(宗家)건설 운동이 시작되었다. 명나라가 망하자 조선중화주의(朝鮮中和主意) 이데올로기로 이어지면서 순정 주자 성리학 운동과 예학 운동도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종가(宗家)건설 운동은 사대부층 전반에 적장자 단독상속 및 제사 독점을 통한 가부장제 강화라는 종법적 사회체제로의 변화를 불러왔는데, 이는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라는 의제적 의미가 더 강화되는 일종의 남녀 간의 신분 위계질서 강화 현상이었다. 특히 18세기, 정조의 통치 기간 동안 남녀의 내외구분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내용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당시 여러 교육서들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실학자였던 이덕무(1741-1793)의 『사소절』을 살펴보려 한다. 많은 교육서 가운데 『사소절(士小節)』을 선택한 이

유는 단지 여성의 교육서가 아니라 남성, 여성, 아동 모두를 위한 교육서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교육내용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삼강행실도』처럼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교육서가 아닌 책거리가 유행하던 시간대인 18세기에 새로 만들어져 당시의 변화한 교육관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소절(士小節)』은 남성, 여성, 아동 모두를 위한 교재이지만 독신 여성이나 미혼 여성에 대한 교육내용은 없는데 다른 많은 여성 교육서들에서도 독신 여성이나 미혼여성의 교육내용이 없다는 점은 그 당시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의 교육서를 답습하던 종전과 달리 『사소절』의 내용은 그 당시 우리의 다양한 환경과 풍습에 맞게 매우 자세하게 각각의 상황에 맞는 행동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덕무는 이러한 사소한 행동 규범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행할 올바른 도리라고 하였다. 『사소절』은 조선 시대 대표적인 교육서 중 하나로 전편에 걸쳐 인도주의, 평등주의, 실질주의 등의 주장과 교육에 있어서 개인차의 존중, 생활지도에 있어서 중용사상과 대인관계 등은 현대 교육에서도 자료로 삼을 수 있을 정도라고 호평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실학자인 이덕무는 여성 교육의 내용에서는 그의 진보적인 면을 찾아보기 힘들어 여성을 남성의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시켰는데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의 사고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사소절』의 내용은 남성 교육내용에 관한 사전(士典) 편과 여성 교육내용인 부의(婦儀) 편과 아동 교육인 동규(童規) 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편은 4~10개로 나누어져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규범이 제시되어 있다. 이 교육서에 있는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남성 교육내용인 사전(士典)에는 예법을 통하여 남자가 행해야 할 근본 도리에 대한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교육인 사전(士典) 편에는 있지만, 여성 교육인 부의편(婦儀編)에 보이지 않는 항목은 근신(謹慎)과 어하(御下)이다. 근신(謹慎)은 관직자와 야인의 처신 방법을 말한 것이고, 어하(御下)는 첩과 자제, 비복, 천인 등 아랫사람을 부리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의(婦儀)에 근신(謹慎)과 어하(御下)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덕무가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남성만의 고유 역할로 생각하고 여성의 역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을 동등한 지위

47) 유제연(2004). 한국전통 아동교육이 발달지체아동 교육에 주는 함의- 『사소절』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5(2), 25-46.

로 인정하지 않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반면 교육(教育)과 제사(祭祀)는 남성 교육인 사전(士典)에는 보이지 않고 여성 교육인 부의(婦儀)에만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이덕무는 이를 여성의 고유영역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⁴⁸⁾

〈표 5〉 『사소절』의 구성

편별 篇別	장별(章別)										계
	성행 性行	언어 言語	복식 服食	동지 動止	근신 謹慎	교습 教習	인륜 人倫	교접 交接	어하 御下	사물 事物	
사전 士典 남성	44	38	57	72	49	49	37	121	22	73	562
부의 婦儀 여성	26	15	42	22		17	26	8		43	199
동규 童規 아동				33		38	21			32	124
계	70	53	99	127	49	104	84	129	22	148	885

『사소절』은 이덕무의 젠더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그 당시의 앞서가는 이덕무의 시각으로 여성의 고유영역으로 인정된 것은 자식교육과 제사이었으며 결혼 이전부터 여성에게는 제도권 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남성에게 주어지는 제도권 내의 교육은 수신과 인륜에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여성은 몸가짐에 대한 것과 가사와 관련된 지식을 주입받았을 뿐이다.

48) 유미림(2004). 조선후기의 젠더의식에 관한 연구-이덕무의 사소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2), 29-58.

이는 맹자의 노심(勞心, 정신노동)에 해당하는 역할을 남성에게만 부여 하였던 사고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맹자의 노심은 다음과 같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홀로 맡 같고 또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인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백성)이 하는 일이 있다. 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의 하는 바(백가지 기능)가 있으니, 만약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 쓴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번잡한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정신노동을 하고 어떤 이들은 육체노동을 하며, 정신노동을 하는 이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게 하여주며,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이다.”

49)

여성 교육은 대부분이 가부장제의 순수혈통을 지키기 위해 여성으로서 몸가짐에 대한 수신서였으며 내외법과 정절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조선 시대 대표적 여성 교육서인 『여사서』, 『내훈』, 『여논어』, 『사소질』 등에는 그 내용에 모범사례들을 예시로 실어서 좋은 사례들을 동일시하는 교육을 하였다. 또 여성의 성리학적 젠더 형성에는 주변 환경적 요인인 사회제도에서부터 중국의 공자에게서 나온 칠거지악(七去之惡)⁵⁰⁾ 까지도 여성의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교육이나 생활 규범에서 시작된 부계 중심제의 강화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윤상(倫常)’⁵¹⁾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에 이 윤상(倫常)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배계층에서 일반 백성에서 천민까지 부계 중심제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일반 백성에게 부계 중심제를 엄격하게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장자상속제를 해도 물려줄 재산이 없고, 친영제를 실시하라고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던

49) 然則治天下獨可耕且爲與?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身, 而百工之所爲備. 如必自爲而後用之, 是率天下而路也. 故曰: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

50) 박용옥(2001). 앞의 책, 109.

공자의 칠거지악과 삼종제는 부(夫)가 처에 대한 전제와 횡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된다.

51)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이룸.

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내살해사건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 ‘살인’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판결은 피지배층의 일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아주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위계질서 강화는 일반 백성들의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록한 『추관지』⁵²⁾의 아내살해사건의 경우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6>에서 아내를 죽였을 경우 아내가 아닌 첩이라고 하고, 자살이나 타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아내살해사건이 아니라고 모두 판결을 내렸는데 8건 모두 대명률에 의해⁵³⁾ 불문에 부치는 무죄나 석방이 되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이 난 경우, 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석방이 아내 한조이를 살해한 것으로 접수된 사건(아내살해, 정조 5년, 1781년)을 보자.

남편 석봉이 홑김에 밥상을 던진 것은 밥상을 박살내려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아내가 여기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조이는 분을 풀지 못하여 밤새도록 밖에서 지냈으므로 바람을 쐬어 상처가 덧나서 마침내 죽은 것입니다.

부부인 두 사람이 밥을 먹다가 의견의 충돌이 있어 남편인 석봉이 구타를 하여 아내인 한조이를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아내살해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판결의 결과는 사실을 뒤집어 피해자인 한조이의 탓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죽은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다. 표의 아래쪽의 아내살해사건이라고 판결이 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거나 칠거지악의 죄 중 시부모에게 불손한 불효의 죄나 간통의 항목에 적용되어 쫓겨나야 할 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가 되어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아내살해 사건인 모두 35건 중 아내를 죽인 남편 4명만이 유죄를 받게 되어 젠더 위계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가해자인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 재편성을 지적할 수 있다.⁵⁴⁾

52) 조선후기 정조시대에 간행된 일종의 형벌관련 판례집이다. 『추관지』에는 가족관계에서 벌어진 살해사건이 주요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아내살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실려있다.

53) 『大明律』, 刑律 鬪毆 妻妾毆夫先行審問夫婦 如願離異者 斷罪離異.

여기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와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 사이의 처벌의 경중은 차이가 커서 처벌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평등이 깔려 있는 점도 중요하다.

54) 문현아(2011). 판결문 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 사례를

〈표 6〉 아내살해 사건의 재구성(단위: 건)

판결		아내살해사건	간통으로 인한 아내살해사건	합 계
아내살해 사건 아님	아내 아닌 첩	1	1	2
	자살	1	0	1
	타살로 보기 애매함	5	0	5
소계		7	1	8
아내살해 사건임	고의성 없음	6	1	7
	죽어 마땅함	5	11	16
	남편의 잘못	3	1	4
소 계		14	13	27
총 합		21	14	35

표의 아래쪽의 경우 고의성 없음은 죽이려고 폭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죽어버렸다는 것이고 죽어 마땅한 경우가 16건이 있다. 죽어 마땅한 조선 시대의 아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젠더를 자신의 내면에 새겨야 하는 걸 까를 살펴보려면 칠거지악(七去之惡)⁵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칠거지 악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악행’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정하였다.

- ① 불순부모(不順父母: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 ② 무자(無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
- ③ 음(淫: 아내가 간통을 하는 경우),
- ④ 투(妬: 아내가 질투를 하는 경우),
- ⑤ 유악질(有惡疾: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⑥ 다언(多言: 말이 많은 경우),
- ⑦ 절도(竊盜: 물건을 훔친 경우)의 내용들이 아내가 집에서 쫓겨 나는 이유들에 해당한다.

아내살해 사건의 배경으로 정리된 항목은 세 개의 항목과 관련되어 있다. 이 중 ③ ‘간음’으로 인한 항목이 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건에

중심으로, 진단학보(113), 171.
55)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口多言去 竊盜去(大大禮, 本命).

달하는 내용이 ① ‘부모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이 ④ 질투로 인한 살해사건이다. 특히, ‘시부모에 순종하지 않음’은 조선 시대 며느리의 역할이 남편에게보다 해당 가문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효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아내를 내쫓는 행위는 국가로부터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⁵⁶⁾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의 칠거지악에 해당되어 죽어 마땅했던 16명의 해당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추관지(秋官志)』에는 ‘아내살해 2 (정조 5년, 1781년)로 가해자는 이군빈, 피해자는 김여인’ 이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연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생략하여 간단히 다음의 <표 7>로 정리하였다.

<표 7>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사건

항목	사건 수
질투로 인한 살해	3
부모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살해	5
간음으로 인한 살해	8
계	16

위의 <표 7>에서 부모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살해의 경우는 5건인데 그중에서 한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초기에는 부모에 순종하지 않아 아내가 쫓겨나는 경우는 국가에서 문제 삼지 않았고 그 여성이 쫓겨난다고 해도 국가가 그 ‘출처’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했다. 조선후기에 이 항목에 대한 판결의 결과는 변화되어 갔는데 분류된 5건 중 1건을 통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죽임을 당한 원매가 평상시에 늘 시어머니를 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원매가 입을 삐죽거리며 시어미를 욕하지 아니하는 날이 없었으니 남편인 이이금이 그 어머니를 위해 처를 찌른 것은 사사로운 싸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대명률』)에 임의 살해한 남편(夫)을 장 1백에 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고 한 것은, 이미 처, 첩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구타하거나 꾸짖고 욕하였거나를 막론하고 이미 죽을죄

56) 장병인(1997). 조선 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서울: 일지사, 253.

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의살해로 하여도 또한 해당되는 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처나 첩이 남편의 조부모, 부모를 구타, 매리(罵詈: 욕하고 꾸짖음)하므로 남편이 임의 살해한 경우에는 장 1백에 처한다’하는 『대명률』의 조항은 『추관지』에서 판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용된다. 이에 따르면, 원매가 입을 빼죽거리기만 했어도 살해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를 욕해서 ‘매리’의 조항에 걸리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맥락이 바뀐다. 『대명률』에서 소개된 내용은 아내가 시부모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남편이 마음대로 살해한다면 ‘처벌’당해 마땅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되는 조선후기의 현실은 ‘시어머니를 구타했다면 이미 죽을 죄를 범하였다’로 뒤바뀌어 있다. 적용되는 원칙이 ‘자살’로 정리된 사례에서는 ‘사실’ 관계를 뒤바꾸어 진행되더니, ‘살해’사건에서는 이제 ‘형률’의 적용 내용을 뒤바꾸는 것으로 나아간다. 즉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피해자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결국 판결 결과는 『대명률』의 처벌을 초월하여 가해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게 되었다.

다른 한 경우(아내살해, 정조11, 1787년, 가해자: 김삼남, 피해자: 박조이)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며느리가 시어미에게 불순하면 아들은 의당 처를 꾸짖어야 하니 분한 김에 치명적인 곳을 가리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살인을 범한 것이다. ... 설령 박여인이 이로 인해 죽었다 하더라도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일이 큰 것이고 처를 살해한 죄는 의심스런 것이니, 진실로 용서해줄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를 남편이 꾸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측면은 꾸짖음이 ‘분노’로 이어져 이것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지점이 ‘꾸짖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어버이에 대한 순종’은 큰일이고, ‘처를 살해한 죄는 의심’된다는 결론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어버이에 대한 순종이 ‘칠거지악’으로 쫓겨나야

하는 조건임에도 ‘살해’를 했다는 측면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이다. 쫓겨날 조건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살해’의 조건으로 뒤바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칠거지악의 조건들은 ‘살해’의 동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⁵⁷⁾. 이러한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혹한 형법의 적용은 남녀의 젠더 위계화의 단적인 예인 것이다.

위의 교육과 형법의 적용 예에서 알아본 것처럼 성리학의 사상적 배경을 이론의 논거로 하여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의미 없는 말이 지배층의 의도에 맞게 재단되고 새로운 규범으로 재편성되면서 성리학적 남성과 여성의 젠더는 차별과 위계화가 자리를 잡게 된다.

3) 여성 자의식의 성장

여성 자의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한글의 보급으로 인한 문자 생활, 내방가사, 한글 소설, 여성학자들의 출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18세기 후반 천주교와 19세기 후반 동학의 인간 평등사상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18세기가 되면서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1791년 정조는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육의전 외에 모든 난전에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게 하였다. 상공업과 수공업의 성장은 평민층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소비하게 되었다.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고착시키고자 한글로 제작된 여성 교육서를 통한 철저한 한글 교육 덕분에 여성들은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여성들의 문화였던 내방가사가 그중 하나였다.

내방가사는 성리학적 여성젠더에 눌러 살아가야 하는 자신 내면의 괴로움을 내방가사라는 여성만의 공통된 매체를 통해 눌렀던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공유하고 공감하였고 이와 더불어 한글 소설들에서 보여주는 신분의 이동과 성리학의 틀에서 벗어난 남녀의 감정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였다. 자존감을 한없이 낮추고 입을 닫고 살아야 했던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과 자의식의 성장을 알아보는 데는 내방가사만큼 좋은 것이

57) 문현아(2011). 앞의 논문, 175.

없다. 내방가사는 주로 여성들끼리 공유되고 나누던 문화이기 때문인데 조선후기 여성들은 여자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고통과 체념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자의식이 생기면서 같이 불만도 토로하고 저항 의식도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내방가사는 다른 어떤 장르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진솔하고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방 가사들 중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평등한 운명인지를 표현한 〈부녀가〉 두 편을 살펴보자.

어와우리 분여들아 이너원정 드러보소 천지일월 풍기라도 명순더천 정기바다
 우리인싱 싱길적이 엇짓타가 우리들년 남즈명분 못타나고 여즈몸이 되얏난고
 천지일월 정신바다 우리인싱 접지하야 남즈여즈 분간널지 북북북이 되얏던가
 지악으로 마튼튼가 복잇시면 남즈되고 죄잇시면 여즈된가 엇지하야 남즈되고
 엇지하야 여즈된고 나난시가 알가만도 애숙하신 부모님은 나나을 타시갓치
 싱남하난 그부모난 희희낙락 거동보소 길고훤한 금기줄얼 안익치고 밧기쳐서
 초송노쥬 부정들가 횡인가직 절금하고 진상갓튼 단미역을 두석단을 함목스서
 습신평의 바치노코 초척자바 정성드려 습칠까지 비난말이 습신평의 으진턱의
 금연싱 귀동즈을 금옥갓치 즈라나되 슈복을낭 접지하되 십만석을 접지하야
 석숭을 부르말고 문증을낭 접지하디 이티빅을 썬을바다 할님학스 접지하소

이 〈부녀가〉⁵⁸⁾에서는 ‘엇짓타가’ ‘엇지하야’ 라는 말을 통하여 어찌다가 죄가 있어 여자로 태어났는지에 대해 존재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며 자문한다. 또 아들 낳은 부모는 희희낙락하면서 길고 훤한 금줄을 안팎으로 쳐서 부정 탈까 대비를 하고 왕에게 진상 올린 것 같은 좋은 미역 두 세단을 한 번에 사서 삼신(三神) 판에 두고 귀동자가 금옥같이 자라기를 기원한다.

다음 〈부녀가〉⁵⁹⁾에서 딸을 낳은 부모를 표현한 내방가사 한 소절을 보자.

이룣타사 사랑할지 딸난분의 거동보소 집안건구 눈치보아 딸난줄 아라치고
 건기줄이 무어인고 상주부정 가리잔코 젓던밥 귀눈술이 희복부여 정신업다
 가르흐다 여자심명 날씨붓툼 구박마즈 죽지안고 스라날지 덧기실타 우름소리

58) 권영철(1985). 규방가사, 서울: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21.

59) 권영철. 위의 논문, 122.

위의 <부녀가>에서 보듯 아들을 낳은 부모와는 달리 딸을 낳은 부모의 거동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집안의 눈치를 보니 딸을 낳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이고 부모는 가리는 것 없는 모습으로 어린 아기에 불과한 딸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며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딸을 구박한다. “왜 아들 낳은 부모는 의기양양하고 딸을 낳은 부모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타박하는 것인가?”

여기서 칠거지악(七去之惡) 중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아들을 못 낳는 것(無子)은 혼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그 시대의 여성 젠더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자식이 없는 것은 칠출(七出)의 중요한 사유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자(無子)는 당율(唐律)에서 칠출(七出) 사유 중 으뜸으로 열거되고 있다. 조선은 가부장제 사회여서 부계 혈통을 잇는 것이 중요하였고 무자(無子)는 불순(不順)과도 연결되어 중요한 내침의 사유가 되었다. 하지만 자식을 낳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무자(無子)를 이유로 내치는 것이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일이니만큼 조선후기 실록에서 무자(無子)가 이혼의 사유로 출처(出妻)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 입양하여 그 양자를 후사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출처의 사유로 삼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를 들인 후 친자가 태어났을 때 제사를 모시거나 장자상속제의 문제로 곤란한 일이 있기도 하였으므로 생남(生男)은 중요한 일이었다. 인조(仁祖) 때 양자를 들인 뒤 친자가 태어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한 기록이 있다.

양자(養子)가 있는데도 나중에 태어난 친자(親子)로 봉사(奉祀)케 하는 것을 개정하는 일에 대해 대신들이 헌의(獻議)하였다.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국조(國朝) 가정(嘉靖)⁶⁰ 계축년⁶¹의 수교(受教) 내용을 듣건대, 후사(後嗣)를 세운 뒤에 친자를 낳았을 경우에 친자로 봉사하게 하고 양자는 중자(衆子)로 대우하여 양자로 된 것을 파기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인조조(仁祖朝)에는 고(故) 상신(相臣) 최명길(崔鳴吉)이 양자로 삼은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60) 가정(嘉靖) :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61) 계축년 : 1553 명종 8년.

데, 호 문정공(胡文定公)⁶²⁾의 고사를 따라 양자로 장자(長子)를 삼게 해 줄 것을 청하여 윤희를 받았었습니다. 전후의 영갑(令甲)⁶³⁾이 이와 같기는 합니다만, 천륜(天倫)이 한번 정해지면 그 차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예를 보건대, 제갈 무후(諸葛武侯)⁶⁴⁾는 아들이 없어 형인 제갈근(諸葛瑾)의 아들제갈교(諸葛喬)를 아들로 들였는데 그 뒤에 아들제갈침(諸葛瞻)을 낳았어도 교를 적자(嫡子)로 삼았고, 호 문정공 안국도 형의 아들호인(胡寅)을 양자로 들였는데 뒤에 두 아들호영(胡寧)과 호굉(胡宏)을 낳았어도 인을 후사로 삼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본받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대계(臺啓)대로 인조조(인조조)의 수교 아래로 위배한 자들을 일체 바로잡으려 할 경우, 세월이 이미 많이 흘러 구근(久近)이 일정치 않을 테니, 들쭉날쭉 차이가 나 잘못되는 결과를 면치 못할까 염려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부터 다시 밝히고 중외(中外)에 포고하여 반정(反正)한 뒤의 수교(受敎)를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로는 가정 연간의 수교를 폐기하는 것이 되지도 않고 아래로는 인조조의 성헌(成憲)도 어기지 않는 것이 되어, 편리할 듯 싶습니다.”하고, 좌의정원두표(元斗杓)는 아뢰기를, “인후(人後)가 된 자를 아들로 삼는 것이야말로 《예경(禮經)》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간혹 자기 소생으로 승중(承重)케 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윤서(倫序)를 밝히고 적사(嫡嗣)를 중히 여기는 뜻이 결코 못됩니다. 이번에 간관이 예경에 의거하여 증거를 제시했는데 또 인조조의 수교까지 있으니, 신이 어떻게 감히 의견을 달리하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정유성(鄭維城)은 아뢰기를, 일단 입후(立後)한 뒤에는 부자의 윤기(倫紀)와 적서(嫡庶)의 차서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예경의 뜻이 지극히 엄한데, 어떻게 자신의 소생(所生)이라 하여 윤리를 문란 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인조 때의 수교가 분명히 있어 조신(朝臣)들 또한 대부분 준행하고 있는데, 신이 어떻게 감히 다시 의논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가정 계축년의 수교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그 뒤에, 사간 이민적(李敏迪)이 수교대로 시행하라고 한 명(命)을 취소하도록 계청(啓請)하였는데, 상(임금)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⁶⁵⁾

62) 문정공(胡文定公) : 북송(北宋)의 유학자 호안국(胡安國).

63) 영갑(令甲) : 법제.

64) 제갈 무후(諸葛武侯) : 제갈량(諸葛亮).

이렇듯 생남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고 그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었다. 17세기 중후반부터 물질적 풍요가 생기면서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⁶⁶⁾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등 조선의 창작 장편 소설이 유행하면서 수요가 많아 전문적으로 책을 돈을 받고 빌 주는 상업적 대여인 세책(貫冊)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업적 출판인 방각(坊刻)이 필요하게 될 정도였다. 『흥길동』, 『춘향전』, 『심청전』 처럼 신분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과감한 내용과 계몽적인 내용으로 여성의 자의식 성장에 도움을 주는 소설들이 많았다.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여성들이 한글 소설을 읽는 것에 대한 걱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경계하였다,

“여자는 한글 소설을 탐독해서는 아니 된다. 집안일을 버려두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게 한다. 심지어 돈을 주고 그것을 빌려다가 거기 빠져서 가산을 기울인 사람도 있다.”⁶⁷⁾

그 당시 세책(貫冊)이라 해서 돈을 주고 책을 빌려다 읽는 방식은 서울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성 독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8세기 후반에는 부녀자들이 집안일을 버려두고 길쌈을 게을리하면서 소설을 빌

65) 以有繼後子，而以親子奉祀者改定事，諸大臣獻議。領府事李景奭以爲：“臣竊聞國朝嘉靖癸丑受教，立嗣後生親子，親子奉祀，繼後子論以衆子，毋得罷繼。又於仁祖朝，故相臣崔鳴吉繼後後生子，請從胡文定公故事，以繼後子，爲長子蒙允。前後令甲如此，然天倫一定，序不可易。求諸古人，則諸葛武侯無子，取兄瑾子喬爲子，及後生子瞻，而以喬爲嫡，胡文定公安國，養其兄子寅，後生二子寧、宏，而以寅爲後，此實可法者也。今若依臺啓，自仁祖朝受教後，有違者，一切釐正，則年所已多，久近不齊，恐不免參差異同之舛錯。臣之愚意，自今日申明布告中外，反正後受教，永以爲式。則上不廢嘉靖時受教，下不違仁祖朝成憲，似爲便順。”左議政元斗杓以爲：“爲人後者爲之子，禮經明訓。或以己出爲承重，殊非明倫序、重嫡嗣之意。今此諫官，據經爲證，又有仁祖朝受教，臣何敢異同。”右議政鄭維城以爲：“既已立後之後，則父子之倫，嫡庶之序，已定矣。禮經之意至嚴，豈可以己出，有所紊亂於其間。況仁祖朝，明有受教，朝臣亦多遵行，臣何敢更容別議。”上答曰：“依嘉靖癸丑受教施行。”其後司諫李敏迪啓請，還寢依受教施行之命，而上竟不從。()

1662년 청 강희(康熙)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계후자 봉사 문제에 대해 대신들이 현의하다.), (顯宗實錄 6券, 현종 3년 9월 17일 정해 2번째 기사,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장, 『국편영인본』 36책 347면.

66) 정병설(2004). 17세기 동아시아 소설과 사랑 - 〈구운몽〉, 〈옥교리〉, 〈호색일대남〉의 비교. 관악 어문연구(29), 113.

67) 유미림(2004). 앞의 논문, 51.

려다 읽느라고 폐물을 팔고 빛을 내어 가산을 기울게 할 정도였다고 『사소설』에서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책거리가 <그림>이다. 이 책거리의 책감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소설인 『구운몽』, 『상운전』, 『장강전』, 『드 | 성전』, 『숙영낭주전』, 『보은전』, 『반도연』, 『심청전』의 한글 소설이 꽂혀 있다. 이 시기에 여성의 지적 능력 향상이나 자의식의 각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거부되었던 것은 조선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금속활자의 발명과 인쇄업의 호황으로 조선처럼 많은 여성들이 소설을 통해 자기 인식과 독립심이라는 새로운 감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여성 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계몽소설이 유행하게 되자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참견이나 감시를 벗어나 개인(individual)적인 영역으로 자의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여성의 독서는 사회 기득권층의 관점에서 무지하고 순종적인 여성이 그 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상이었던 때에 이러한 책들의 유행은 두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소설은 교화보다 쾌락이 목적이고, 사회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유행으로 간주하였다. 그러한 소설은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동감한 몇몇 예술가들은 여성을 타락시키는 독서의 영향력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간파하였다. 노르웨이의 화가 요한네 마틸데 디트리kson(1837~1921)의 1775년 제작된 유화 <농가의 내부>⁶⁸⁾에서 젊은 하녀에게 소설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집안일도 미뤄두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이 보인다. 또 독서가 게으름을 유발시킨다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문학이 한 여성의 미덕을 타락시킨다고까지 평한 사람도 있었다. 제목이 <독자>라는 그림에서 작가 페데리코 파루피니(1833~1921)는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현실도피를 묘사함으로써 이 주제를 표현한다. 이 유화에서 험령한 옷을 입은 여인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탁자 위 유리병은 이 여인이 와인 같은 술 한잔을 함께 즐기고 있음을 암시한다. 책으로 어질러진 탁자를 통해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뉘앙스가 전해지는데, 바니타스 장르를 연상시키는 요소도 담고 있다. IV장에서 책거리를 분석하면서 위의 그림들도 포함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18세기와 19세기의 동시대에 실학과 서학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계몽소설 등을 통하여 유럽에서만

68) 데이비드 트리그(2018). 리딩 아트, 서울: (주)출판사 클, 161-166.

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이런 여성들의 사회적 젠더에 대한 불평등을 깨달아 가는 자각이 있었고 세계가 조금씩 영향을 주면서 같은 움직임으로 서서히 흘러가면서 근대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거리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큰 흐름이 조선의 책거리에도 반영이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여성학자들이 대거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여성 교육을 위해 배웠던 한글을 기본으로 한 문자 교육의 발달과 소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단이 얻게 된 여성들은 성리학, 시, 산문, 과학, 화훼, 태교서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하여 그들의 재능을 나타내었다. 정식 제도권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18세기에 저술 활동을 하였던 대표적인 여성들의 이름과 저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18세기 활동한 여성 문인과 학자

강정일당	『정일당유고』	문집, 성리학자
대산 김매순	『대산집』, 『열양세시기』	문집, 성리학자
임윤지당	『유지당유고』	문집, 성리학자
빙허각 이씨	『규합총서』	생활경제백과
사주당 이씨	『태교신기』	태교지침서
박죽서	『반아당시집』	시집
유한당 홍씨	『유한당시고』	시집
의유당 남씨	『의유당일기』	산문
유희 부인 권씨	『유희의 전기』	산문
삼의당 김씨	『삼의당고』	문집

많은 여성학자 중에서 이덕무(1741~1793)와 동 시간대를 살았던 임윤지당(1721~1793)의 『임윤지당유고(任允摯堂遺稿)』의 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성인(聖人)과 범인(凡人)은 본래 같은 성품이며, 남성과 여성은 현실에 처한 상황만 다를 뿐 타고난 본성에는 차이가 없

다.

이 글은 1949년 『제2의 성』에서 시몬느 드 보브아르(Simone de Beauvoir)가 제시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명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임윤지당이 자신의 생존시간 동안의 모든 영향을 벗어난 거시적 통찰력과 철학적 식견을 보여준다. 임윤지당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문체와 치밀하고 논리적인 여러 편의 철학적 논문들에서 보이는 그의 높은 학문적 수준은 남성 중심의 성리학적 사회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평가받는다.⁶⁹⁾ 이 글 속에 보이는 임윤지당의 정확한 식견과 당당함은 성리학적 여성상과는 다른 여성 자의식을 자각한 선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 경제발전으로 여성들의 경제 분야의 참여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맹자의 노심(勞心)에 대한 사상뿐만 아니라 이덕무의 『사소절』에서도 여성의 노동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생계를 위해 일이나 장사하는 것이 사인지처(士人之妻)의 도리라고 하였다.⁷⁰⁾ 이는 시집이나 친정이 부자가 아닌 이상 과거급제를 위해 공부하는 선비인 남편과 시집 식구들을 봉양해야 한다는 것을 결혼한 여성의 도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발달로 상품이 되는 담배, 면화, 약재 등 특용작물들을 재배하여 사고파는 특수작물경작과 상업 화폐 경제가 발달하던 그 당시 발농사의 담당자는 주로 여성이었다. 이러한 변화로 여성들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사회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사회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전문을 넓혀갔다. 조선의 여성 실학자인 빙허각 이씨는 차밭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생활 백과사전인 규합총서 등 많은 저술 활동을 하였다. 경제활동 면에서는 제주의 거상 김만덕도 빼놓을 수 없는데 유통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흥년에 모든 재산을 제주도민에게 나누어 구휼(求恤)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18세기에는 경제적 발전과 외국 문물의 유입과 함께 천주교 전파에 따른 인간 평등사상이 도시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었지만 19세기 중엽 이후

69) 이해순(2001). 여성담론으로서의 任允攀堂의 理氣心性論 -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서술을 위한 시론. 고전문학연구(26), 321-353.

70) 유미림(2004). 위의 논문, 29-58.

에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을 이념으로 하는 동학의 평등사상이 농촌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동학의 평등사상은 농민층과 여성들에게 치성과 수련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하기만 하면 누구나 도인(君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진리와 희망을 주었다. 이는 성리학적 이념과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의지였다. 동학을 만든 최제우는 성리학적 사회의 특권인 가부장의 위엄을 스스로 버리고 부인 박씨의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가화(家和)를 실천하였으며 가화적 수신제가(修身齊家)없이 도성덕립(道成德立)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서구의 영향이 없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남녀평등에 대한 제고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천주교가 들어온 후 강완숙 같은 여성 천주교 지도자 등 여러 차례의 박해 속에서 희생된 천주교 신자의 70%는 여성들이었다. 천주교는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이미 예수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였다. 그리고 남성편향의 문화를 여성도 공유하려는 노력 중 하나인 여성들의 개화에 대한 의지는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 내한한 여선교사들의 교육·의료·자선사업 활동은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여성 개화의 중요성을 여성들에게 깨닫게 하였다. 그 결과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졌으며 국망의 위기에 처하여 자강 구국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단결이 절실해지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회참여를 해야만 한다는 여권(女權)사상이 팽배해지고 여성교육이 크게 확대되었다.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일제하의 항일 구국운동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된다.⁷¹⁾ 그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유럽과 비슷한 시기에 큰 저항 없이 여성참정권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2. 조선후기 남녀 젠더의 정의

지금까지 조선 시대 젠더의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성리학의 토대 위에 구성원들의 사고가 고착화되어 성리학적 사회가 거의 완성되어 갔다. 그래서 ‘조선 시대 성리학적 가치관의 기준에 맞춘 성역할을 성리학적 젠더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조선후기 젠더를 본 연구에서 간단히

71) 박용욱, 앞의 책, 137.

젠더'라고 부르기로 한다.

책거리는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그려지던 그림이고, 17세기 중엽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던 소종법의 일반화로 일반 백성들도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오던 시간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의 엄격했던 성리학의 적용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농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시장경제의 발달로 조선 사회에 많은 변화와 함께 변하게 된다. 시장경제의 발달로 시중에 화폐가 유통되면서 돈을 축적한 상민층과 소농들이 생기고 경화세족이 아니면 양반이라도 그 생활이 농민보다 못한 양반들의 수가 증가하는 등으로 신분제도의 의미가 퇴색해져 갔다. 18세기 이후의 중산층이나 일반 백성들이 즐기던 민화 책거리들에도 여전히 여러 성리학적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 또 이 시기에 이러한 성리학적 젠더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분제의 동요도 한몫하게 된다.

조선후기의 산업 발달은 전통적인 신분 계급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양인과 노비의 엄격한 차별과 세습을 특징으로 하는 양천제가 무너지고, 양반(사족)과 상민(평민과 노비)으로 대칭되는 새로운 계급 구조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반상(班常)의 구별이라고 하나 법에 따라 규제되는 신분제가 아닌 반상 구조는 사회 관행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고 서로 간의 상하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였다. 따라서 반상 구조는 신분 사회에서 근대적 계급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신분제의 붕괴는 무엇보다도 지주제(地主制)의 발전으로 시작되었다. 16세기 이후로는 병작제⁷²⁾가 보편화되면서 양인 중에서 지주의 위치에 있던 부류가 양반으로 상승하고, 작인(作人)의 처지에 있던 부류는 양인이건 노비이건 상한(常漢, 평민, 일반 백성)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양천제는 더욱 급속하게 무너졌는데 노비 스스로 도망하여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기도 하고, 국가는 군역 대상자와 재정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노비를 단계적으로 해방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에 군공(軍功)을 세우거나 납속(納贖)이라 하여 곡식을 바치는 자를 양인으로 풀어주고, 속오군으로 편제하여 군역을 지우기도 했다. 또한 노비 인구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머니가 노비(婢)인 경우에만 그

72) 농사를 지을 때 농지주인과 소작하는 사람이 반반 나누는 것.

자식을 노비로 만들고, 나머지는 양인으로 되게 하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을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1669년(현종 10년)에 시작되어 1731년(영조 7년)에 정착되었다. 당시에는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로 양인이 되는 노비가 적지 않았다.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도 도망자가 속출하였다.

반상(班常) 구조는 양반의 계급적 구성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우선 양반의 개념이 조선 초기와 달라졌다. 원래 양반이란 문무의 관직을 가진 사람을 가리켰으나, 조선후기의 양반은 뚜렷한 법적·객관적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양반은 학문과 벼슬의 유무를 기준으로 척도를 삼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명성이 높은 학자나 서원의 유생, 생원, 진사, 그리고 관리들의 친족들이 양반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족보를 만들어 양반으로 행세하고, 평민과는 혼인하지 않았다. 국가는 기준이 모호한 양반을 일률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과거 응시 자격, 특히 고급 문관이 되는 생진과(生進科)와 문과(文科)의 경우에는 4조(증조·조·부·외조) 중에 현관(顯官, 실직 관리)을 지낸 사람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게 하였고, 균역을 면제시켜주는 경우에는 '유학(幼學)'으로 기록된 사람에 한하였다. 이러한 신원의 파악은 국가가 작성한 호적에 따라 확인되었으므로, 평민 중에서도 벼슬을 하고 싶거나 균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호적을 바꾸고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상민(常民) 중에서 신분을 속여 양반 행세를 하는 가짜 양반이 시대가 흘러 갈수록 많아져서 19세기 들어가면 전체 주민의 과반수가 양반으로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양반 인구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계급 상승이 활발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는 길은 모든 양반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청요직이라 불리는 승문원·홍문관 등에는 한양 양반(京華士族)이 임용되고, 서북 사람은 그보다 못한 성균관, 중인은 승진이 어려운 관직에 임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무과(武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화세족은 왕을 호종하는 선전관(宣傳官)에, 중인은 궁궐이나 성문을 지키는 수문청에 임용되었다. 양반 신분을 만들어 과거 응시의 자격을 가지니 자식을 낳으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시켜 정말 양반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 향교나 서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⁷³⁾

73) 이이효재(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 서울:한울아카데미, 247-278.

이러한 신분제의 변동에도 성리학적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양반다운 양반이 되고자 외부에 드러난 그러한 가치관을 더 중시하여 성리학적 젠더의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인 조선후기 젠더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첫째, 성리학에서의 남녀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알아보고 둘째, 그러한 성리학의 가치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성별에 따른 남녀의 교육목표의 차이점을 알아본 후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리학적 남녀 젠더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성리학에서의 남녀에 대한 시각의 체계적 정리는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살았던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李滉1501~1570)과 율곡 이이(李珥1536~1584)가 “하늘의 도는 남성이 되고, 땅의 도는 여성이 된다(乾道成男 坤道成女)”는 『주역』의 인성론을 받아들여 사단 칠정론(四端七情論)으로 체계화하였다.⁷⁴⁾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한쪽으로 치우친 기질론인 편성론(偏性論)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후 하늘과 땅의 관계인 임금과 신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주인과 노비의 관계와도 같다는 명분론이 일반화되었다.⁷⁵⁾ 이러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주역》에서 남녀의 차별성을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천리(天理), 즉 천도(天道)로 설명하고 있는데 天·地·人 의 삼재(三才)는 오랜 시간 유교 사상의 움직임 수 없는 근본을 이루고 있어 그 생성 관계와 역할은 『주역』의 「계사전(繫辭傳)」에 잘 설명되어 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 건과 곤이 정해졌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진열되어 귀(貴)와 천(賤)이 자리를 잡았다. 동(動)과 정(靜)에 일정한 도리가 있어 강(剛)과 유(柔)가 판연하게 나뉘었다. 방향은 유사한 것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와 무리로 나

74) 사단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心)의 네 가지 마음(감정)으로서 각각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착한 본성[德]에서 발로되어 나오는 감정이다. 단(端)은 선(善)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시초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맹자의 용어로서 『맹자』의 공손추편(公孫丑篇)에 나온다. 칠정은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의 일곱 가지 감정인데, 『예기』 예운편(禮運篇)에서 비롯하여 당(唐)의 한유(韓愈)가 「원성편 原性篇」에서 7정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이것은 중국 고대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사상으로서 인간이 외부 사물에 접하면 여러 가지 정이 표현되는 심리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퇴계학과에서는 性理와 情理를 구별하는 반면에 율곡학과에서는 性理와 情理를 구별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었다.

75) 박광용(1999). 조선 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서론. 성평등연구(3), 135-152.

뉘어 길과 흉이 생긴다. 하늘에서는 상⁷⁶⁾(象)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⁷⁷⁾(形)을 이루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강유가 서로 교감하고 8괘는 서로 형상을 추이(推移)하여 우뢰와 번개가 치고 바람과 비로 운택하게 한다. 일월이 운행하여 한 계절은 춥고 한 계절은 더우며 건(乾)의 법칙은 남자를 이루고 곤(坤)의 법칙은 여자를 이룬다. 건은 만물 창조의 대태(大胎)를 맡고 곤은 만물을 만들어 완성시킨다. 건은 쉽기 때문에 알고 곤은 간편하기 때문에 능하다. 쉬우면 알기 쉽고 간편하면 따르기 쉽다. 알기 쉬우면 친(親)함이 있고 따르기 쉬우면 공적이 있다. 친함이 있으면 오래 갈 수 있고, 공적이 있으면 커질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현인의 덕이 있으며 커질 수 있는 것은 현인의 업적이 있기 때문이다. 쉽고 간편한 가운데 천하의 모든 이치의 마땅한 도리를 얻으며, 천하 이치를 얻으면 그 가운데에 자리(天·地·人으로서의 자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분석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男)은 천(天)-존(尊)-고(高)-귀(貴)-동(動)-강(剛)-대태(大胎),
 여(女)는 지(地)-비(卑)-저(低)-천(賤)-정(靜)-유(柔)-성물(成物)

이러한 두 갈래의 원리로 구분된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선교사 존스(Geo Herber Jones)는 한국 여성이 한국 가정과 사회에서 주축이 되고 있음에도 민비(閔妃)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동양의 철학’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동양의 철학이 주역이었다.⁷⁸⁾

이러한 성리학의 가치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성별에 따른 남녀의 교육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은 ‘재덕겸전(才

76) 日月辰星을 말함.

77) 산천과 동식물의 형태

78) 박용옥(2001). 앞의 책, 31-36.

德兼全)’의 남자로 재능과 덕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여기서 재(才)란 단순한 기술이기보다 학식과 독서력을 바탕으로 한 관리로서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에 덕은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예의염치(禮義廉恥)로 나타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요청되는 인간관계의 바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자의 재(才)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얻는 수단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고 덕(德)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현실적 개인의 욕망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 여성의 교육목표는 ‘무재시덕(無才是德)’으로 여자에게 재능은 덕을 해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⁷⁹⁾ 중국의 북경을 다녀와 북학사상을 주창한 이덕무(1741~1793)는 남·여·아동에 대한 종합교육서인 『사소절』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요즘 세상에는 부인으로서 재주가 있어 혹 이야기가 사색당파나 다른 집안 문벌의 수준 또는 과거나 벼슬 승진이나 좌천 등의 주제에 미치면 일가친척들이 야단스럽게 그 재능 있음을 칭찬한다. 아! 아! 이는 실로 가정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다. 이 여자의 능력을 미루어볼 때 바깥일에도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書經』에서는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였고 『詩經』에서는 ‘여자의 유능한 혀는禍에 이르는 사다리다’고 하였다.⁸⁰⁾

이덕무는 여성의 재(才)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기도 하였다.

명나라의 주문위(周文煒)가 말하였다. 부인된 자는 차라리 남에게 재주가 없다는 말을 들을 것이지 덕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안된다. 명문가의 사람으로 한 두 편의 시나 문장을 지은 것이 불행하게 후세에 전해져 승려나 창기와 나란히 실린다면 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⁸¹⁾

79) 이숙인(2006).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29), 333-368.

80) “近世婦人, 有才氣者, 或談及偏黨色目, 家閥高下, 科宦陞黜之事, 則姻族男女, 稱其能也. 嗚呼! 此誠亂家之本也. 推此以往參與外事, 無所不至. 故書曰, ‘牝雞之晨, 惟家之索’. 詩云, ‘婦有長舌, 惟厲之階’” 『士小節』, 「婦儀」.

81) “周文煒曰, ‘寧可使人稱其無才, 不可使人稱其無德, 世家大族一二詩章, 不幸流傳, 必列於釋子之後, 娼妓之前, 豈不可耻’”(『士小節』, 「婦儀」).

이렇게 여성에게 재(才)는 얕은 학식과 언어, 눈치, 가사노동, 재산관리 등이고 덕(德)은 가정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순종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성리학에서 재(才)는 없어도 되지만 덕(德)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 부덕(不德)한 여자를 대표하는 유형은 음란한 여자(淫婦)와 사나운 여자(悍婦)이다. 부덕한 여자는 남편을 능멸하고 시부모를 거역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부류이다.

그런데 여자로서 남달리 총명하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재주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여성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보조하는 데 사용해야 했다. 부인이 만약 총명하며 재능이 있고 지혜로워 고금을 통달함이 있더라도 마땅히 남편을 보좌하여 그 부족함을 권면해야 하니 암탉이 새벽에 울어 화를 부르는 일이 반드시 없어야 한다⁸²⁾고 하였다.

여성의 덕이 무엇인지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15세기 조선에서 제작된 소혜왕후의 『내훈』에는 순종(順從)에 대하여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과하고 있다.

『女教』에 이르기를 아내가 아무리 남편과 동등하다고 하나 남편은 곧 아내의 하늘이다. 예로써 마땅히 공경하여 섬기기를 그 아버지에게 하듯 할 것이다. 자기 몸을 낮추고 뜻을 낮게 하며 오직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감히 어기지 말아야 한다…남편의 직분은 마땅히 높여야 하고 자신은 낮추어야 한다. 남편이 혹시 때리고 꾸짖더라도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겨야 하니 내 어찌 감히 말대꾸하며 화를 내겠는가?⁸³⁾

그러므로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의 교육목표는 ‘재덕겸전(才德兼全)’의 남자로 재능과 덕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으며 여성의 교육목표는 ‘무재시덕(無才是德)’으로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순종하는 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이었다.

교육은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다. 남녀의 성역

82) 『小學』의 「嘉言」.

83) “女教云 妻雖云齊 夫乃婦天 禮當敬事 如其父焉 卑躬下意 毋妄尊大 唯知順從…夫職當尊而妻爲卑 酷毆或 乃分之宜 我焉敢答 我焉敢怒”(『內訓』, 「夫婦」).

할에 대해서도 지배층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주류가 원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최적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되고 강요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남녀의 성역할이 젠더(gender)이며 이런 조선 시대 성리학적 가치관의 기준에 맞춘 성역할을 성리학적 젠더라고 부르기로 한다.

3. 책거리에 표현되는 성리학적 남녀 젠더의 모습

조선 시대 성리학적 사회에 맞는 인간 교육을 위해 남성에게는 재덕겸전(才德兼全)의 목표를, 여성에게는 무재시덕(無才是德)의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젠더 정체성의 교육에서 덕성은 공통사항이었으나 남성에게는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여성에게는 노동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이 서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남성은 널리 배워 막힘이 없고⁸⁴⁾ 여성은 일에 마음대로 할 것이 없으며 행함에 혼자서 이를 것이 없는⁸⁵⁾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대부에게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이었으므로 글을 읽어 입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학문을 공부하는 일 외에 다른 영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가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양반 사대부의 당연한 모습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성리학적 남성 젠더는 학문을 익히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자신과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었다.⁸⁶⁾ 또한, 소종법에 따라 적장자의 가부장적 가문을 만드는 방법은 아들을 많이 낳아 교육을 통하여 관직에 오른 후손의 숫자를 늘려 명문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성리학적 여성젠더는 이러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았는데 남편이 집안 경제에 대한 걱정 없이 학문에 정진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도록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을 잘 봉양하고 시부모와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아들을 많이 낳아 가문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4) “博學無方”(『禮記』, 「內則」: 『小學』, 「立教第一」)

85) “事無擅爲, 行無獨成”(『小學』, 「明倫第二」).

86) 이숙인(2006). 앞의 논문, 352-353.

여기에서부터 책거리에 이러한 성리학적 남녀젠더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성리학적 남성젠더의 수행을 잘 한다는 것은 과거급제, 입신, 출세, 다남을 실현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성취를 상징하는 기물들을 책거리에 주로 표현하였고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의미하는 생남과 절개도 여러 가지 씨가 있는 과일들과 꽃으로 표현되었다.

양쪽에 공통으로 표현되는 소재는 '생남'과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인데 남성은 자신의 입신, 출세 등을 바라는 기물들과 함께 책거리에 표현하였고 성리학적 여성젠더는 절개와 지조 외에 남편과 자식의 과거급제, 가정의 화목, 가정의 부귀영화 등이 표현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시대에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관념은 있었으나, 여성의 젠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을 남성들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자아실현은 곧 남성의 출세와 자식의 출세, 가문의 번영과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조선시대의 여성젠더는 남성젠더보다 후 순위이고 억압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을 통해 서구 문물을 접하며,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족보를 사고파는 등 신분제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각을 통하여 성리학적 여성젠더의 부당함을 표현할수 있는 기회가 어렵게 열리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책거리에서 상징 기물은 단순한 물체일 뿐이지만 그리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이용된다. 민화의 특성이 익명성과 상징성이라면 그 상징성을 부여하여 주제를 나타내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기물의 역할이다. 성리학의 시대에 상류계층의 문화를 본받고 모두가 바라는 기물들의 상징성이란 어쩔 수 없이 시대 상황에 부응해야 했다. 그래서 상류계층에서 금과옥조처럼 지켜지던 성리학적 남녀젠더는 그 상징성으로 책거리의 수요층인 중인층이나 일반 백성에게도 성리학적 젠더를 이미지화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이는 무엇보다 기물이 물체로서의 물질성을 갖는다는 점은 물체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무형의 형태로 성리학적 남녀 젠더를 표현하는 관습이나 구전, 예술보다도 남녀 젠더의 이념을 독특한 형태로 표현해 준다. 기물의 견고함은 그것의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하여 보다 더 단단하고 분명하게 성리학적 남녀 젠더의 성격을 사람들의 삶에 내면화시키는 사회화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마치 견고한 비석

이나 건축물 등이 문화적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과는 같지만, 그래서 기물은 그 위상이 견고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일상의 삶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리학적 젠더의식을 내면화시키고 남녀의 성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화의 힘은 더욱 지속적이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로는 과거 급제나 출세를 상징하는 책이나 두루마리, 먹과 벼루 등은 기본이고 높은 벼슬을 상징하는 공작 꼬리 깃털이나 생황, 산호, 잉어, 특경, 바둑 등이 책거리에 많이 그려졌다.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로는 절개나 지조를 상징하는 은장도⁸⁷⁾는 물론이고 매화, 국화, 대나무, 석죽(패랭이꽃) 등으로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과 같이 그려졌다. 사군자의 매화, 국화, 대나무는 군신(君臣) 관계에서 필요한 충(忠)이 부부간에도 성립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한 결과로 일부종사(一夫從事)를 강조하게 된다. 이다. 소종법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로 이러한 확장된 해석으로 상징 기물이 늘어나고 책거리에 나타나는 기물들은 다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책거리에 표현된 성리학적 남녀젠더의 기물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성리학적 젠더와 구분되는 남성성과 여성성만을 나타내는 기물부터 정리하여 그 차이를 두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성성을 나타내는 남성의 성징(性徵)을 나타내는 죽순이나 특이한 모양의 괴석은 성리학적 젠더를 나타내는 기물 중에서 출세에 해당하는 상징 기물인 최고의 벼슬에 오르는 염원을 담은 공작 꼬리 깃털과는 다르다. 그냥 하나의 물체에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반영되어진 기물로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죽순이나 괴석은 생물학적 특징이고 직관적인 것이나 공작 꼬리 깃털은 이는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가 입혀진 기물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같은 상징 기물이지만 사회적 기준인 젠더적 성격이 없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하는 기물부터 <표 9>와 <표 10>에서 정리하였다.

87) 정광용(1999). 한국 은장도에 관한 고찰. 대한금속학회 회보(12), 21.

〈표 9〉 책거리에 표현된 남성성을 나타내는 기물

남성성을 나타내는 기물	남성성을 나타내는 기물
죽순	괴석, 바위, 돌
화살	창
파초 순	오이, 가지
검(劍)	고추

위의 기물들에서 화살, 파초 순, 괴석, 창 등은 생긴 모습에서 남성의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다. 오이나 가지 역시 생긴 모습으로 남성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고추는 여러 개가 접시에 담겨 있기도 하고 화분에 심어져 있기도 하다. 이렇게 씨앗이 많은 것은 처음에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상징이었다가 다남의 의미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책거리의 배경은 대부분이 사랑방이고 사랑방은 가부장의 공간이자, 거실이고 서재였으므로 가부장의 높은 안목과 고상한 취향을 반영하여 꾸며졌다. 사랑방의 가구는 검소하면서도 격조 높은 가구를 배치하였는데 책상인 서안과 경상, 책장, 문갑, 탁자, 필통, 지통 등으로 장식되었다. 사랑방의 모습은 〈그림 20〉에서 추측하여 볼 수 있다.⁸⁸⁾

여성성을 표현하는 기물들로는 남성성을 표현하는 기물처럼 생김새에서 비롯한 석류나 맨드라미, 수박, 참외 등을 비롯하여 여성의 신발인 당혜는 화려한 색과 무늬로 그림의 장식성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 고유의 생활용품인 바느질용구와 저고리와 치마도 보인다. 조바위, 아얌 등의 방한모도 자주 나오는데 불끼, 남바위, 풍채, 만선두리 등은 남녀공용이고

88) 이훈중(1970). 국학도감. 일조각. 46.

여성용으로는 조바위, 아얌, 촌의 등이⁸⁹⁾ 있다. 이러한 여성성을 표현하는 기물들을 <표 10>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10> 책거리에 표현된 여성성을 나타내는 기물

책거리에 나타난 여성 기물	책거리에 나타난 여성 기물
당혜	여성용 화장대
바느질용구	다리미
저고리나 치마	아얌, 조바위 등
석류, 맨드라미, 수박, 참외 등	복숭아

위의 표에서 당혜는 사대부층의 젊은 여성이 신는 가죽신으로 화려한 색과 무늬가 있어 장식성이 높다. 맨드라미는 닭벼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관화(鷄冠花)로 부르는데 벼슬하는 것은 의미하기도 하나 때에 따라서는 생김새로 인하여 여성의 상징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복숭아도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생김새가 여성의 가슴을 연상시킨다 하여 여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안방의 가구는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머릿장, 옷과 직물을 보관하는 장과 농, 머리단장 도구나 화장도구를 보관하는 빗집과 경대, 문갑이 있다. 여성용 경대는 서랍이 두 칸 정도 있고 남성용 면경이나 휴대용 화장대보다 크다. 현대인인 우리가 추측하는 안방의 가구와 모습은 <그림 21>에 있다.⁹⁰⁾

위의 <표 9>, <표 10>의 기물들은 대부분 모양의 유사성이나 남성이나 여성만의 소지품 위주였다면 성리학적 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은 기물에 성리학적 의미가 씌워져 다른데 예를 들면, 여성 저고리는 여성을 의미하지만, 남성의 신발 중 목화는 1푼부터 9푼까지 문무백관이 공복을 착용할 때 신는 신발로 관직을 의미하는 것⁹¹⁾이 큰 차이점이다. 또 거북이가 장

89) 이훈중(1992). 민족생활어 사전. 한길사, 61-63.

90) 이훈중(1997). 앞의 책, 47.

91) <표 13>

수를 의미하는 것은 태생적인 것이지만 괴석을 지고 있는 경우는 도교의 연원에서 살펴보아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 역시 성리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⁹²⁾이다. 이러한 성리학적 관점에서 책거리에 나오는 기물들을 남녀별로 분류하는 것은 IV장에서 하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조선 시대 성리학적 가치관의 기준에 맞춘 성역할을 성리학적 젠더라고 할 때, 남성성과 여성성만을 나타내는 기물들을 분류하여 성리학적 남성젠더와 성리학적 여성젠더와 차이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4. 책거리 수요증가에 따른 젠더의식의 확산

책거리의 용도는 각종 의례 때 쓰는 병풍과 서재로 쓰는 사랑방에 바람을 막는 용도로 쓰였다. 그리고 방주인의 배경이 되어 학식과 교양,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장식적 용도로도 쓰였으며 대문, 다락벽, 장지문, 벽장문 등에 도배용으로도 사용되어 여유가 되면 집안 곳곳에 실용과 장식을 겸하여 즐길 수가 있었다(그림 18). 수요자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병풍의 특성상 사랑방에서 안방으로 여기저기 이동이 가능한 점도 책거리 기물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수요자는 사랑방에 거처를 둔 사대부부터 경제력이 있고 심미적인 취미가 있는 일반 백성으로 볼 수 있으며 학문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아이의 방에도 있었을 것이다. 방과 방 사이, 방과 마루 사이에 끼우는 장지문에도, 현재의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에도 품위 있는 그 집안의 가풍을 말해주는 기능도 했으리라 생각된다. 18세기 후반부터 많은 여성 학자들이 등장하였으므로 여성들의 수요도 나타나게 되어 여성들이 사는 안채의 벽에는 책거리 병풍이, 안방 다락문에도, 비어있는 벽면에도 붙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책거리의 수요자와 수요처는 왕, 왕실, 각종 전문 분야의 중인, 상인, 연경 사절단, 상인, 수공업인, 소농 사회를 이룬 농부 등으로 사회 전반에 고루 퍼져 있었다.

이런 수용층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책거리가 처음에는 왕과 사대부의 학문 숭상의 상징으로 시작하고 나서 선진문물인 중국과 서양 문화에 대한 외래문화수용의 흐름과 합쳐지면서 상류 문화의 전형적인 표상으로 여

92) <표 13>

겨지게 되었다. 그러자 상류층의 문화를 흡수, 수용하려는 중인과 일반 백성들에게도 갖고 싶은 그림이 되고 이는 궁정 화원들의 본(本)에서부터 일반 화원에게까지 복제되고 첨가되어 변화를 주게 되고 그 변화를 수용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물들로 상징되던 성리학적 가치관도 같이 수용되어 책거리가 표상적인 매개체로 성리학의 남녀젠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상류층의 문화에 대한 모방심(模倣心)에 그런 성리학적 남녀젠더가 고급문화로 인식되어 교훈적인 역할도 담당하였다.

글보다 전파속도가 빠른 매개체인 그림은 책거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상류 문화 지향적인 경향과 책거리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길상을 상징하는 기물들을 통하여 일반 백성들도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고 싶고, 모란을 보며 부귀영화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또, 화병에 꽃힌 특 떨어지는 아름다운 선 끝에 매달려있는 은장도와 다남을 상징하는 수박을 보면서 국민계몽서였던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사소절』⁹³⁾ 등과 더불어 성리학적 남녀젠더가 무엇인지 자신들도 모르게 각인하였을 것이다. 다방면의 이러한 요소들이 성리학적 사회를 만들었고 시골의 촌부조차도 ‘일부종사(一夫從事)’;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책거리의 수요층이 확산될 수록 성리학적 젠더의식도 확산되어 이런 성리학적 선전의 기능을 강화시켜 책거리의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책거리를, 하단에는 문자도를 그리는 형태의 책거리도 그려졌다(그림 19). 문자도는 삼강오륜의 ‘효제충신 예의염치(孝悌忠信 禮義廉恥)’의 여덟 글자와 각 글자 속에 거기에 맞는 고사가 그려져 있는 민화의 다른 형태이다. 상단에 책거리에서 강조되는 성리학적 가정의 완성과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기원하고 하단에는 그 성리학적 가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삼강오륜을 그린 8쪽 병풍으로 사랑방에 펼쳐둔다면 가족들이 모임 때마다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훌륭한 가풍을 가진 가정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문자도와 조합하여 나타난 책거리는 성리학적 젠더 실천에 대한 주제를 더 강화하여 주는 역

93)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효자, 충신, 열녀의 삼강(三綱)에 관한 윤리 교화서로 세종 16년(1434년)에 간행되었으며,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는 삼강 이외에 형제, 봉우가 포함된 것으로 정조 21년에 간행되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452>

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회화적으로는 점점 정형화되어가는 책 거리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문자도와의 병합 외에도 용, 호랑이, 두꺼비, 기린, 사슴, 사불상 등 상서로운 동물과의 조합도 이루어지고 산수화나 화조화와도 조합되면서 책거리의 영역은 더 확장되고 원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IV. 책거리에 표현된 남녀젠더

이 장에서는 각 책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기물들을 통해서 조선후기 남녀에게 주어진 젠더가 책거리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첫째, 남성젠더는 어떠한 기물들을 통하여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고 둘째, 여성젠더는 책거리에 어떤 기물들을 상징 기물로 활용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셋째, 남녀젠더가 조화롭게 표현된 책거리를 분석해보고 넷째로 성리학적 틀에서 벗어나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책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로 여성 자의식의 성장을 나타내는 책거리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와 함께 세계로 눈을 돌려 동시대 유럽 여성들의 자의식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조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여성젠더에 대한 그림으로 대비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책거리에 나타난 젠더의 상징 기물

18세기 말의 경제적 활성화와 더불어 청과의 교역으로 외국 문물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외래문화를 수용하던 분위기에서 사대부층과 소비력을 갖춘 중인층과 일반 백성 중 성공한 소농공인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양식 원근법을 써서 신선하고 세련된 데다가 학문을 숭상하고 선비의 고아한 취향을 나타내는 서가식 책거리를 선호하게 되었다.

책거리에 나타난 기물들을 살펴보면 책이 가장 중요한 기물로서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학문 숭상을 상징하였다. 표현방식에 있어 날권으로 된 사실적인 조선의 큰 책들과 화려한 무늬를 그려 화가가 정교함과 화려함을 더한 책갑에 쌓인 책으로 나눌 수 있다. 책갑의 형태로는 사방을 둘러싼 화려한 책갑을 씌운 조선의 책갑이 간혹 있고 대부분이 양쪽이 개방되어있는 화려한 책갑에 들어있는 중국 책이 있다.⁹⁴⁾ 날권으로 된 책 중에는 책 이름이 있는 것들도 간혹 보이는데 5% 미만의 책거리에서 발견된다.⁹⁵⁾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책은 과거급제와 입신양명을 상징하는

94) 정병모(2020). 앞의 책, 91.

95) Kay E. Black은 1993년 논문에서는 6% 정도라고 서술하였는데 2020년 저서에서는 5% 미만이라고 정정하였다.

길상의 의미로 바뀌게 되고, 더 높게 쌓아 높은 관직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른 기물들을 올려놓는 받침 역할도 하는 등 조형적 구성에도 활용하게 되었다. 책과 함께 두루마리, 붓, 먹, 벼루, 향로, 필통, 붓꽂이, 연적 등의 문방구를 비롯하여 격조 있는 선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도자기, 청동기, 화병, 화분, 괴석, 부채, 수석, 수선화 등 사랑방의 기물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여가와 관련된 기물들로는 찻잔, 청동기, 도자기, 담뱃대, 술병, 술잔, 거문고, 가야금, 그 외 악기, 검, 시계, 안경, 바둑판, 골패 등이 있다.⁹⁶⁾ 이러한 기물들을 배치한 사랑방의 모습과 세간들을 재현한 모습은 〈그림 20〉와 같다.

여성의 기물로는 치마와 저고리, 꽃신, 조바위 등이 있는데 그 외 바느질 도구, 화장 용구들, 다리미 등 안방의 모습과 세간들을 재현한 모습은 〈그림 21〉와 같다. 그 외에도 책거리에는 식물, 동물, 꽃, 과일, 물고기, 기린, 해태, 사불상⁹⁷⁾과 같은 영수(靈獸, 기린) 등도 그림 속에 배치되며 채소나 과일로서는 수박이나 오이, 참외, 석류, 가지, 유자, 복숭아, 고추 등도 그려졌다. 이러한 기물들은 각각 일상생활의 소망과 염원을 담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다남과 길상의 기물

기물들이 상징하는 길상적이라는 의미를 하나씩 풀어내면 부자가 되는 것, 신분이 귀하게 되는 것, 아들을 많이 낳는 것, 오래 사는 것, 과거 급제하여 출세하는 것 등일 것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의 예를 살펴보면 자기 화병, 옥 등은 귀하고 조화로움 등의 의미가 있고 과일은 젊은 남녀의 성적 상징을 은유하거나 다산을 상징한다. 수박은 밭음과 비슷한 의미인 수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산을 상징하며 포도, 참외, 석류 같은 씨 많은 과일도 자손을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다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과일들은 대개 윗부분을 잘라내어 안의 씨가 보이도록 하였다. 복숭아는 봄철에 나는 과일로 결혼, 신선, 여성 등을 상징하기도 하고 결혼하여 자식을 많이 낳아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중국의

96) 윤열수(1995). 민화 이야기, 서울: 디자인 하우스, 189-193.

97) 윤열수, 위의 책, 149.

나귀, 낙타, 소, 사슴의 특징을 동시에 닮아 사물상이라 한다.

고사에서 기인하여 주로 장수의 의미를 나타낸다.⁹⁸⁾ 또, 과일 중 귤은 길상적 의미와 함께 대길과 큰 이익을 나타내는데 귤(橘, jú)과 길하다의 길(吉, jí)은 발음이 비슷하여 큰 귤은 큰 행운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귤은 옛날 중국 황제가 제사를 지낼 때 재물로 썼던 과일이었고 주나라 목왕(穆王)이 서왕모(西王母)에게 요지(瑤池)에서 주었다는 과일이기도 하다. 귤중지락(橘中之樂)이라하여 귤을 돌로 쪼갰더니 그 안에 두 노인이 세상 모르게 바둑을 두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전설도 있고, 귤은 선계(仙界)의 맛을 지닌 과일이라 하였다.⁹⁹⁾ 귤과 유자는 비슷한 종류의 과일이지만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다남의 의미의 가지나 오이 등의 채소는 그 생김새가 남성상에 비유되어 다남을 기원하는 뜻으로 그려졌다. 화훼, 수목류로 매화, 국화, 모란, 살구, 앵두꽃 등은 부귀와 연수¹⁰⁰⁾를 상징한다.

성리학의 통치이념이 강화되자 남녀 모두에 대한 성리학적 젠더에 대한 압박감은 커지게 되었다. 성리학적 통치이념으로 무장된 강력한 사회를 만들려면 소중법에 따른 각 가정이 성리학적 정통성을 가진 혈연으로 이어진 부계 중심의 가정들로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생남(生男)’이나 ‘다남(多男)’은 남녀 모두의 과제였다.

그래서 남성에게 주어진 젠더는 아들을 많이 낳아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여 가문을 번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여성의 젠더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아들을 낳아야 그 가문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며 칠거지악의 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아들을 낳는 것은 가문 계승의 문제이지만, 순수한 혈통을 위하여 여성에게는 정절의 의무가 선행되는 것으로 생겨났다.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가옥구조까지 사랑채와 안채로 분리되어 부부의 감정 표현은 제한되었지만 조선시대의 남녀젠더의 실현 여부는 ‘생남(生男)’이나 ‘다남(多男)’이 중요한 남녀 공동의 잣대가 되었다.

이처럼 책거리 그림에 나타난 책이나 문방구들이 선비의 해박한 지식이나 지적인 욕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주변의 다른 소재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을 가지기도 하지만 과일이나 그 밖의 상징적인 기물은

98) <표 9>

99) 경기도 박물관(2012).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의 도록, 170.

100) 延壽, 더욱 더 수명을 늘여감.

대체적으로 다산에 대한 표현으로 빠지지 않고 그려질 만큼 많이 표현되어 있어 ‘생남’이나 ‘다남’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나 관심이 후기로 갈수록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게 되었다.¹⁰¹⁾ 이러한 ‘생남’이나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을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였다.

〈표 11〉 책거리에 많이 나오는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과 유래

기물	상징성	유래
연꽃 ¹⁰²⁾	연생귀자(蓮生貴子) 생남 과거 급제	같은 시간대에 연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므로 빨리 ‘생남’하고자 하는 바람을 상징한다. 물총새가 연밭에 앉아 열매를 쪼고 있으면 과거 급제를 할 자식을 의미한다.
석류 ¹⁰³⁾	중국 북제 때 이조수의 고사 ¹⁰⁴⁾ 로부터 석류가 자손이 많기를 바라는 의미로 여겨졌다.	중국 북제(北齊) 때 연종(延宗)이 이조수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훗날 황제가 다른 이를 총애하자 왕비의 어머니인 송씨가 두 개의 석류를 황제에게 바쳤다. 이조수가 그 뜻을 말하기를 ‘석류는 껍질 속에 알갱이가 많은 과일입니다. 왕께서 새로 혼인하셨으므로 왕비의 어머니가 그 자손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친 것이라 생각됩니다’라고 답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수박	다남 자손만대	서역에서 온 과일이라 하여 서과(西瓜)라 부른다. 과(瓜)계열의 식물들은 여러 종류인데 씨가 많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개 덩굴식물로 길게 늘어진 덩굴에 크고 작은 열

101) 조미란, 전종주 (2004). 민화에 나타난 무의식세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학술논문, 294.

기물	상징성	유래
		매들이 달리는 형상이어서 자손의 이어짐이 오래도록 영원하라는 자손만대의 뜻도 가진다. ¹⁰⁵⁾
포도 ¹⁰⁶⁾	부(副) 다산(多産)	포도는 기원전 126년 장건(張蹇)의 서역 원정 이후 중국에 들어온 과일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식 예술의 문양으로 발전하였다.
참외, 오이, 가지 등 ¹⁰⁷⁾	씨가 많아 다산을 상징 하는데 또한 넝쿨 식물이다.	넝쿨을 의미하는 만대(蔓帶, wàndài)는 만대(萬代, wàndài)와 중국어 발음이 같다.
고추 ¹⁰⁸⁾	다남	외형도 그러하고 씨가 많아 다산을 상징한다. 간혹 접시에 담은 고추를 묘사한 책거리가 보인다.

위의 <표 11>은 책거리에 나타나는 남녀 젠더의 공동의 의무사항인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과 그 유래이다. 서가식 책거리에서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석류만 주로 표현되고 잘 나타나지 않던 다남을 상징하는 과일이나 채소들이 민화 책거리로 발전해 가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102)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9.

103) 앞의 도록, 170.

104) 당나라 때 학자인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한 《북사北史》 제56권 「위수전(魏收傳)」

105) 앞의 도록, 170.

106) 앞의 도록, 170.

107) 앞의 도록, 170.

108) 씨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가 다남을 의미하는 상징성의 확장.

수 있다. 이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나타내는 과일 종류가 대부분 생남이나 다남으로 의미가 확장됨을 볼 수 있는데 다남을 표현하고자 하는 책거리에는 다남을 상징하는 과일이 큰 접시에 담겨 있고 때로는 받침대 위에 그 접시가 올려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화병에 절개를 상징하는 국화나 매화가 꽃혀 있고 또는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모란이 꽃혀 있거나 연꽃이 꽃혀 있다. 또 다른 지통이나 필통에 여의가 꽃혀 있는데 그 끝에는 절개를 상징하는 은장도가 곡선을 그리면서 달려있을 때도 있다. 다남의 상징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중국에서 연유한 석류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씨가 많은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서 옥수수까지 표현하는 창의성을 발휘(그림 101)하였다. 다남의 상징 기물에는 대부분 절개를 상징하는 기물이 같이 있어서 부계 중심의 순혈주의를 중시했던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책거리 그림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 약 첩과 약탕기, 가위와 실뭉치들이 담긴 반질고리나 요강과 같은 아주 가깝고 작은 생활 주변의 소재들을 주거공간의 각종 생활용품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서 조선후기의 생활상이 어떠한지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책거리는 민화 중에서도 산수화나 화조화와는 달리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사물을 표현하고 있다. 또 책거리의 책은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역원근법(易遠近法)을 쓰기도 하였고 시점 또한 특정한 시점이 없거나 여러 개의 소실점을 가진 다시점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처럼 측면에서도 서양식 원근법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조선 책거리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자유로운 형식을 지니고 있다.¹⁰⁹⁾ 책거리 수요자가 사대부층이나 중인층에서 일반 백성까지 확장되었고 그들의 가옥구조가 왕실이나 사대부처럼 넓지 않아 가옥구조에 맞게 병풍보다 책거리의 크기가 소형화하게 된다. 소형화가 되어도 표현하고 싶은 기물들을 다 표현하고자 하는 수요요구에 따라 서가가 없어지고 탁자나 서안, 경상 등의 가구 위에 책과 기물들을 쌓아 놓은 듯한 탁자식 책거리와 문방도로부터 비롯된 평면적인 구성 속에서 책과 기물들이 하나의 덩어리

109) 윤열수(1995), 앞의 책, 195.

가 되면서 독특한 조형미를 갖는 가장 민화다운 특색을 보이는 밀집식 책거리의 형태가 많아지게 되었다. 책거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물인 책과 문방사우 등이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우리 그림에는 한자로 발음이 같으면 같은 의미로 그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민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마천(司馬遷)의 『사기(事記)』에서부터 보이는 오래된 역사¹¹⁰⁾를 갖고 있다. 기물을 분석하는데 유자(柚子)는 ‘有子’, ‘儒學者’와 발음이 같아 아들과 낱기를 염원하기도 하고 유학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가 길상적 기물의 해석에도 많이 나타난다. 다음 <표 12>는 책거리에 자주 나오는 기물들 중에서 성리학적 남녀젠더에 속하지 않는 길상을 상징하는 기물들을 정리한 표이다

<표 12> 책거리에 나오는 길상을 상징하는 기물들

기물	상징성	유래
특경 特磬 111)	기쁘고 즐거운 소식 또는 일	특경의 경(磬, qìng)은 경(慶, qìng)과 중국어 발음이 같다. 고대 악기의 일종으로 돌이나 옥, 금속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소리가 듣기 좋아 ‘소리가 특경 같다’는 말은 최고의 자기(瓷器)를 일컫는 말이었다.
여의 如意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 ¹¹²⁾	음이 여의(如意, rú yì)와 같아 다른 길상의 상징과 합하여 만사여의(萬事如意), 평안여의(平安如意), 사사여의(事事如意)를 의미한다.

110) 조용진(1989). 동양화 읽는 법. 서울: 집문당, 47.

『사기』의 <항우분기>에 보면 홍문회합(鴻門會合)의 역사적 장면에서 연회에서 항우와 항우의 책사 범증이 유방을 제거하기로 약속하기로 하였으나 항우가 미적거리자 범증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옥으로 만든 “결(결)”을 세 번 들어 재촉하였으나 항우는 자만 때문에 유방같은 하찮은 장수를 죽여 흥을 깨고 싶지 않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본문 “范增數目項王 舉所佩玉 玦以示之者三 項王默默不應”에서 옥이름 “玦”과 결단할 “決”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기물	상징성	유래
불수감 113)	다복(多福) 부(富)	佛手의 佛(fú) 발음이 福과 같으므로 크게 그려서 大福의 의미로 응용된다. ¹¹⁴⁾ 주로 옥으로 만들었는데 다복을 바라는 기복적인 의미도 있다. 부처님 손같이 생기고 거의 껍질로 이루어진 과일로 청조(淸朝)의 제사상이나 종교 행사에 사용되었다. 돈을 움켜쥐는 모양과 비슷하여 부(富)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약재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재물을 상징하는 돈나무라고도 불렸다. 어떤 경우에는 그 생김새로 여성을 의미할 때도 있다.
중국도자기 115)	청물애완(淸物愛玩) 모양이나 문양은 길상을 상징 평안	책거리에 그려진 도자기는 크게 두 종류로 화려한 색상의 분채도자기와 빙렬도자기로 나눌 수 있다. 빙렬도자기는 쇠빙(碎甁, suì bīng)이라 하기도 하는데 중국어 발음이 세세평안(歲歲平安, shìshì píng ān)과 비슷하여 평안함의 의미로 쓰인다.
복숭아	장수	중국 한나라의 『산해경』에 의하면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곤륜산에는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복숭아가 있는데 3천년만 꽃이 피고 3천년 만에 열매를 맺어 한 개 먹으면 1만 8천 살까지 살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 대로는 여성이나 늙지 않는 젊음을 상징할 때도 있다.

기물	상징성	유래
영지 (靈芝) (116)	장수 장생불로(長生不老)	불로초라 여겨지기도 했던 영지는 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버섯의 일종이다. 말려서 약용으로 쓰는데 말린 후 아주 오래 간다. 신선을 그린 그림이나 십장생도에서 사슴들이 영지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서가식 책거리에서는 다양한 중국 도자기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책거리가 문방구와 그릇들을 소재로 하는 그림이기는 하지만 왕실용 그림에 중국 도자기만이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청물애완(淸物愛玩)이라는 시대적 유행 속에 도자기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중국 도자기 중에서 우리나라의 책거리에 자주 나오는 도자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분채도자기로 남색, 홍색, 황색의 도자기에 용문이나 여의두문(如意頭門) 등이 무늬가 있다. 모양은 주병(아래가 볼록한 병)의 형태가 대부분이나 매병(어깨가 볼록한 모양의 병, 화병으로 많이 보인다)으로 비단 천을 둘러싼 포복 도자기의 형태도 있으며 분채도자기와 같은 색감으로 접시나 술잔도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책거리나 기명도(器皿圖)에 가장 자주 나오는 또 다른 도자기는 빙렬도자기(氷裂陶瓷器)인데 표면에 자갈한 금이 가 있는 모양의 도자기이다. 이 빙렬도자기를 선호하여 책거리마다 이 도자기가 한 점 이상은 그려져 있다. 이 빙렬도자기는 쇠기(碎器)라고도 하는데 명말 청초에 들어 쇠기(碎器)는 고기(古器)로 인식되어 고물(古物)의 상징으로 기명도에

111)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8.

112) 도자기 세이킨 저, 변영섭, 안영길 역 (2011). 중국미술 상징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46-47.

113)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70.

114) 조용진, 앞의 책, 61.

115) 방병선(2016). 앞의 논문, 135.

116)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9.

등장하였다. 그리고 청대 강희 연대에 들어서 문방청완과 골동 취향의 유행으로 경덕진(景德鎮)에서 쇄기를 모방한 그릇들이 제작되었다. 청대에 복고문화가 유행하면서 송나라의 정요(定窯), 여요(汝窯), 가요의 명품들을 모방한 도자기들이 대거 제작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유독 가요식 도자기를 선호하였다.¹¹⁷⁾ 표면에 금[水裂]이 간 가요식(哥窯式) 도자기인 쇄빙(碎甁, suì bīng)은 중국어 발음이 세세평안(歲歲平安, shì shì píng ān)과 비슷하여 평안함의 의미로 그려 넣었다. 다른 특이한 도자기는 청동기를 모방한 고식병(觚式甁)인데 청대 때 유행하던 것으로 고동기를 모방하여 제작하였지만 색상까지도 청동기를 방불한다.

책거리에 표현된 도자기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송대 관요나 가요 청자를 모방한 쇄기(碎器)와 건륭제 이후 유행했던 분채 도자기(粉彩 陶瓷器)가 대부분이다. 문방구를 필두로 향아리와 매병, 고화병(古花瓶), 뚜껑과 완(碗), 수반, 배(盃)뿐 아니라 고식(觚式) 화병, 향로 같은 청동기도 있다. 색상도 다채로워서 분채는 물론 홍지(紅地), 남지(藍地)와 백유(白釉) 등이 있고 사물이나 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대개 길상이 주를 이루었다.

책거리에서 책은 필수적인 소재이고 화려한 책감으로 장식적 요소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데 비단으로 짠 두루마리 뭉치들과 붓꽃이와 붓꽃이에 꽃힌 공작 꼬리 깃털, 펼쳐진 책 위에 놓인 안경, 선명한 남·황·적색의 분채 도자기(粉彩 陶瓷器)와 뚜껑과 완(碗), 수반, 고동기, 먹과 벼루와 연적 등 이런 작은 단위들이 책거리의 화면을 구성해가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은 그 당시 수요자에게 책거리라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표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책거리의 대표적인 표상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민화 책거리에서는 묘사가 더 정형화되어 단순화되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지면서 길상의 요소가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

2)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

18세기 조선에서 성공한 사대부라면 어떤 책거리를 서재에 두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18세기에 사대부가 무엇을 성취해야 성공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18세기는 성리학적 사고가 지배했던 사회였고 그 체제 안에서 남성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여

117) 방병선(2016). 도자기로 보는 조선 왕실 문화, 민속원, 135.

높은 벼슬에 이르는 것과 성리학의 기준에 맞추어 다남하고 또 자식들이 입신하여 문벌을 이루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 시대 남성으로 성공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기물들을 <표 13>에 나타내었다.

<표 13>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책(118)	학문 숭상 고아한 선비 정신 과거급제 높은 관직	중국에서는 학문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 책의 문자를 신성시하여 『역경(易經)』이나 『대학(大學)』 같은 고전들은 베게 밑에 넣고 자거나 몸 가까이하면 악령을 물리쳐준다고 믿었다. 『상서(尙書)』는 오늘날 『서경(書經)』으로 불리지만 중국의 관직인 ‘상서(尙書)’와 같아서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상징한다. 처음에는 학문적 의미였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출세를 의미하는 길상적 요소가 강해졌다.
두루마리(119)	출세를 상징	사대부들이 가까이해야 할 글씨와 그림을 의미하며 글이나 그림을 말아 천으로 묶어 놓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 형태와 비슷하여 책과 더불어 출세를 상징한다. 문방사우의 종이에 해당하기도 하고 꽂아두는 도자기나 서각 지통에 꽂혀 있다.
문방사우(文房四)	선비정신	벼루, 먹, 붓과 종이를 넣은 문방사우는 선비들이 늘 가까이 하는 물건들로 골동품과 책 등과 함께 그려져 선비정신을 상징한다.

기물	상징성	유래
友) ¹²⁰⁾		
파초, 파초잎 ¹²¹⁾	학문 정진 독학	파초는 학문 정진, 독학을 의미하고 파초잎은 신선이 들고 있던 부채이다.
거북 ¹²²⁾	유교 책임감과 인 내 장수	장생의 상징이자 예지력을 지닌 신령스러운 존재로 또한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신비한 존재로 신성시되었다. 낙수(落水)의 거북이 낙서(落書)를 등에 지고 나왔고 그것이 홍범구주(洪範九疇)의 토대가 되었다는 전설에 따라 유교적 왕도정치의 상징적 존재이다.
거울	다복 부부간의 금슬 벽사	고대 주술의식에 쓰던 물건으로 임금이나 권력층의 상징으로 재앙을 막아 주고 부부간의 금슬을 지켜 주고 다복을 의미한다. 남자의 화장대는 여러 가지 물건을 넣는 담배갑처럼 생긴 작은 것과 접이식 면경, 서랍이 달린 화장대도 있는데 거울이 펼쳐진 채로 그려져 있다. 면경이든 화장대이든 남성이나 여성에게 일상용품이기도 했다.
생황(笙簧) ¹²³⁾	벼슬이 오르는 것 생남	국악기 중 관악기의 하나로 생황의 '생(笙, shēng)'은 '오를 승(昇, shēng)'과 '낳을 생(生, shēng)과 발음이 같다.
맨드라미 와 숫닭 ¹²⁴⁾	벼슬 명성 관상가관(冠	벼슬, 명성, 꽃의 모양이 수탉의 볏과 비슷하여 계관화(鷄冠花)라고 한다. 맨드라미와 닭이 같이 그려져 있으면 관상가관(冠上加

기물	상징성	유래
	上加冠)	冠)을 의미한다. 때로는 맨드라미의 모습 때문에 맨드라미만 있을 때는 여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안경과 안경집	남성 권위	『조선왕조실록』 정조 52년(1799) ¹²⁵⁾ 의 기록에 정조가 눈이 나빠져 안경을 쓰고 경전을 보았고 그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16세기경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물건이다. 끈이 달린 안경이 나온 후에 다리가 달린 안경이 나타난다. 남성과 권위의 상징이다 ¹²⁶⁾
관모 ¹²⁷⁾	과거 급제와 출세	벼슬에 따라 쓸 수 있는 관모(冠帽)가 달랐다. 관(冠)은 둘레에 테가 있고 양을 앞뒤로 걸친 것이고 머리를 덮어서 쓰는 것을 모(帽)라 한다.
흑피화, 목화 ¹²⁸⁾	과거 급제와 출세	조선시대 1품에서 8품까지의 문무백관이 공복 착용시 신던 신발이다. 19세기부터 흑피화에서 목화로 바뀌었다.
공작 깃털과 산호가지 ¹²⁹⁾	최고의 벼슬	중국에서는 공작의 꼬리 깃털을 사용하여 관직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제도는 명나라 때 시작하여 1918년까지 계속되었다. 청나라

기물	상징성	유래
		의 관복제도에 의하면 일품관(一品官)의 모자에 공작 깃털과 산호 테두리를 하였다. 그래서 문관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¹³⁰⁾
잉어 장식 품 ¹³¹⁾	과거 급제	잉어가 용문(龍門)에 들어가 용으로 변하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을 고사로 하는 물건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여 중국에서는 옥이나 수정으로 만들어졌던 장식 기물이다.
인장과 인 인장함 ¹³²⁾	권력과 권위	서적 옆이나 위에 인주를 세우고 배열할 조그만 나무 인장함을 놓고 그 위에 백옥과 각종 진귀한 돌로 된 인장들 여러 개 중 하나를 놓혀 인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도 하는데 주로 화가의 이름을 볼 수 있다.
고동기 ¹³³⁾	문방청완(文房淸玩)	중국 북송 때 금석학(金石學)이 크게 일어나 고동기와 같은 제사 의식 도구가 만들어졌는데 송말에 고동기에 대한 연구와 수집, 감상하는 것이 문인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여 책거리의 소재로도 나타났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담배가 전래되

기물	상징성	유래
장죽 ¹³⁴⁾	남성 권위	<p>었는데 남녀노소 상하귀천 없이 마음대로 피울 수 있었다. 17세기 중엽 소종법이 강화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도 신분 간의 구별을 엄격히 규정하는 규율과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 담배를 피우면서 신분제 및 가부장적인 권위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담배에 대한 예절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관습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체계화되었다.</p> <p>유득공(1749 ~?)의 『경도잡지』에는 당시에 행해졌던 구체적 내용의 일부가 전해진다. “비천한 자는 존귀한 분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하거나 “조관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기를 매우 엄격히 하여, 재상이나 홍문관 관원이 지나가는 데 담배를 피우는 자가 있으면, 우선 길가의 집에다 구금시켜 놓고 나중에 잡아다가 치죄(治罪)한다”고 하였다.</p> <p>그러한 관습은 체계화되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된다. “아버지와 형님은 물론 연장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길거리에서 연장자를 만났을 때 담뱃대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례이니 곧바로 뒤로 감춘다.” “여자는 남자 앞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 “상놈은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p>

기물	상징성	유래
		한다.” 등의 여러 관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 오게 되었다. ¹³⁵⁾ 그래서 장죽은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유자	생남 유학자	유자(柚子)는 ‘有子’, ‘儒學者’와 발음이 같아 아들과 낱기를 염원하기도 하고 유학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매미 ¹³⁶⁾	훌륭한 군자	군자의 상징으로 군자가 지녀야 할 오덕(五德)을 지니고 탈피를 하는 매미는 훌륭한 군자를 의미한다.
수선화 ¹³⁷⁾	사대부의 고 고함	수선화(水仙花)의 ‘선(仙, xiān)’은 신선(神仙)의 ‘선(仙, xiān)’과 발음이 같아 신선을 의미한다. 모란과 같이 배치하여 부귀를 누리며 신선처럼 사는 것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대부의 고고함과 부귀를 표현한다. ¹³⁸⁾
바둑	선비	선비의 4락(四樂) 중 하나이다.
골패	사대부: 관 직 놀이에서 놀음으로 일반 백성:	19세기 대표적인 경화세족인 홍길주(洪吉周, 1786~1842)의 글 ¹³⁹⁾ 에는 골패의 숫자가 관직을 상징하는 지적인 유희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골패놀이가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서 백성에게 맞는

기물	상징성	유래
	놀음의 일종	놀이로 변화하여 갔다. 책거리에서 자주 나오는 이 골패놀이가 유학자의 고상한 취미를 보여주던 책거리에서 노름의 일종인 골패가 등장하여 기물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다. ¹⁴⁰⁾
공작석 ¹⁴¹⁾	공작의 꼬리 깃털처럼 최고의 벼슬인 일품관(一品官)을 의미하여 사대부들이 곁에 두었다.	진한 녹색의 광물이며 갈아서 석록(石綠) 안료로 쓰는 돌이다. 그 모습이 괴석 같은데 단면의 무늬가 공작의 깃털과 같은 무늬를 갖고 있어 공작석이라 한다.
살구꽃 ¹⁴²⁾	관직 등용	급제화(及第花)라 부르기도 한다. 옛날 과거는 매년 음력 2월에 실시되었는데 이때가 살구꽃이 피는 철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급제한 선비에게 황제가 살구꽃 아래에서 향연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접선(摺扇), 합죽선(合竹扇)	번영과 성장	접는 부채로 <천자문> 가운데 ‘화는 악한 행실이 쌓임으로 인해 초래되고, 복은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함에 따라 찾아 든다. (禍因惡積 福緣善慶)’구절이 있다. 부채扇은 福과 발음이 같다. ¹⁴³⁾ 접선은 조선시대의 사치품으로 부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대나무와 한지는 모두 음의

기물	상징성	유래
접선 (摺扇), 합죽선 (合竹扇)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여 선비들은 부채를 ‘첩(妾)’이라 부르며 부채에 다는 선추(扇錘)에 금, 은, 비취, 옥 등으로 치장하고 그 밑에는 향수를 뿌린 주머니인 향낭을 달았다. 합죽선은 부챗살 하나하나를 얇은 대쪽으로 양쪽에서 맞붙여 만든 정교한 부채로 부챗살이 50개인 오십살 백접선(五十살 百摺扇)은 왕실 직계만 사용하였고 사대부는 40살, 이하는 그보다 적게 넣었다. ¹⁴⁴⁾

- 118)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8.
- 119) 정병모(2020). 앞의 책, 289.
- 120)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8.
- 121) 윤열수(1995). 앞의 책, 331.
- 122) 유미나(2016). 민화 속의 거북 도상과 상징. 한국민화(7), 149.
- 123)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8.
- 124) 윤열수(1995). 앞의 책, 117.
- 125)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7월 10일 병인 1번째 기사
丙寅/次對。 上曰：“予之眼視，漸不如前，經傳文字，非眼鏡則難以辦認，而眼鏡乃二百年來初有之物也，帶此臨朝，有駭觀瞻。
- 126) 윤열수(1995). 앞의 책, 330.
- 127) 이훈중(1992). 민족생활어 사전, 66-71.
- 128) 유희경 외 고증(1997). 한국 복식 2천년사. 국립민속박물관, 142.
- 129)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9.
- 130) 허균(1994).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서울: (주)교보문고, 63.
- 131)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8.
- 132) Kay E. Black(2020). Ch'aekkori Painting. 서울: Sahoipyoungnon Academy, 273.
- 133)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8.
- 134) 윤열수(1995). 앞의 책, 331.
장죽은 남성, 권위를 상징한다.
- 135) <http://www.koreanhistory.org/3661>
- 136) 김취정(2021). 월간 민화 3월호.
- 137)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8.
- 138) 노자키 세이킨 저, 변영섭, 안영길 역 (2011). 앞의 책, 248-249.
- 139) 홍길주, 박무영 외 역(2006), 표룡을첩(縹纒乙幟)下. 서울: 태학사, 265-266.
“나는 어려서 선화패(宣和牌)를 가지고 논 일이 있었다. 당시 연천 선생께서 약관의

1791년, 정조가 문체반정¹⁴⁵⁾의 모티브로 삼고자 했던 책만 가득한 책거리에서부터 수요자가 사대부층인 경우는 학문적인 의미와 함께 남성젠더의 완성을 위한 출세와 가문의 번창 등을 바라는 상징적인 기물들과 명말(明末)의 문인들이 즐기던 청물애완의 유행을 반영하여 수입한 도자기와 청동기 등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서가식 책거리는 병풍으로 제작되어 수요자의 방 한쪽 벽을 모두 차지하게 되므로 남에게 노출되는 측면이 있어 책거리에 그려지는 기물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정조 때 책만 가득하던 책거리에서 수요자에 따라 여러 가지 기물들로 장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신의 지위나 경제적 우월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측면과 책거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여 그려졌을 것이다. 그래서 서가식 책거리는 사적이고 속된 열망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책과 함께 서양과 중국의 기물들을 그려 넣어 자신의 식견과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런 기물들을 조선에 도입된 3차원적인 보기에 신기하고 새로운 서양식 원근법을 써서 세련됨으로 완성하였다. 이런 서가를 이용한 초기 책거리의 경우에는 사대부층이 향유층이었으므로 다남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의 상징물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석류 정도로만 표현되고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책거리는 자신이 앉아있는 뒤쪽 배경이었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라 품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세속적인 모습을 자제하였기 때문이다.

서가식 책거리는 왕실과 사대부층과 연경을 다니는 상인 계층 등에 향유

나이셨는데, 한 두루마리의 글을 지어 ‘골국지(骨國志)’라고 제목을 붙이고는 나에게 보여 주었다.(중략) 그리고 그 아래에 관청을 나누고 관직을 내린 일을 두루 서술하였는데, 자가 준육(雋六)을 천관상서(天官尙書)로 삼고 장삼(張參)을 무산백(巫山伯)으로 삼는다고 했다. 나머지는 이루다 기억할 수 없다.”

선화패는 중국에서 골패를 지칭하는 용어다. 골패의 놀이 형태가 계층 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책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사물들도 처음에는 사대부층에서 애호되어 그려지다가 민간으로 유통되어 도식화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余幼嘗取宣和牌爲戲，淵泉時甫弱冠，作一卷文，題曰‘骨菊志’，示余。(중략) 其下歷叙其分曹命官之事，有云陸雋六爲天官尙書，張參爲巫山伯，餘不可盡記。”

140) 한세현(2018), 앞의 논문, 191-219.

141)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9.

142)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9.

143) 노자키 세이킨 저, 변영섭, 안영길 역(2011), 앞의 책, 624.

144) <https://news.join.com/article/23808174>.

145) 김용심(2012), 문체반정, 나는 이렇게 본다. 서울:보리출판사, 14-71.

되다가 그 유행이 점점 확산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향유하게 되었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책거리 기물들은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열망을 더 직접적이고 많이 표현하였고 다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리학적 남성과 여성 젠더에 대한 표현도 다양해지게 된다.

위의 <표 13>처럼 책거리에서 성리학적 여성젠더와 공통되지 않는 고유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표현하는 기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급제, 출세, 권위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는 여성의 책거리에서도 남편이나 아들의 성공이나 출세를 바라는 것과 주제와 소재가 중첩되면서 책거리 화면의 구성이 사랑방에 거는 책거리든, 안방에 거는 책거리이든 비슷한 형태로 발전되고 정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3)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

이제는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에 대해 정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무재시덕(無才是德)’이 여성 교육의 주된 목표였던 성리학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정규교육과정은 없었고 친모로부터 받는 생활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부였다. 그중 정조(貞操)와 순종(順從)이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성리학에서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에서 친영제(親迎制)로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상속도 장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그래야 부계 중심의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는 여성의 일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성리학이라는 17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는 ‘무재시덕(無才是德)’이라는 교육의 결과로 타고난 재능은 드러내면 좋을 게 없는 것이었고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시집 식구들을 봉양하는 것과 제사를 모시는 것, 자녀를 교육하는 것만이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 성리학이 규정한 가부장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장자를 낳는 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였는데 이를 위해 정조와 절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래서 조선후기 사회가 여성에게 바라는 성역할인 여성젠더를 요약하자면 순종, 절개, 생남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책거리에서 이러한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은 많지 않고 ‘생남’이나 ‘다남’은 후계자인 적장자가

필요한 남성젠더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생남이나 다남에 대한 상징 기물은 수적으로도 많다. 하지만 성리학적 여성젠더만을 상징하는 기물의 상징성은 순중, 절개, 지조의 항목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부계 중심의 성리학적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혈통을 중요시하게 되어 여성에게는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한다고 교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여성 교육서에 나타나는 많은 사례를 통하여 절개와 지조는 최고의 미덕으로 여성들에게 고착화되었고 책거리의 다남이 나오는 패턴에서 한 개 이상의 기물은 꼭 절개와 지조에 대한 상징 기물과 같이 나타난다. 성리학적 여성젠더 중 중요한 절개에 대한 기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은장도(=장도) ¹⁴⁶⁾	절개와 정조	작은 칼로 칼집의 재료에 따라 은장도, 금장도로 부른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에게는 장도는 절개와 정조를 상징하였다.
국화 ¹⁴⁷⁾	절개 은거처사(隱居處士)	사군자 중 하나로 황화(黃花)라고도 하는데 여름을 지나 초목들이 시드는 가을에 홀로 피어나 바람과 이슬을 견디어 내기 때문에 은거처사의 절개를 가진 꽃으로 비유되었다. 성리학에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여 넓은 의미로 신하의 임금에 대한 절개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절개를 같은 의미로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사군자의 의미를 여성에게도 적용하

기물	상징성	유래
매화 ¹⁴⁸⁾	절개	였다. 사군자 중 하나로 매화는 선비의 꽃이라고 했다. 추운 겨울에 홀로 피어 고고한 자태를 보이는데, 그 모습을 역경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버리지 않는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패랭이 ¹⁴⁹⁾	장수 절개 청춘	석죽(石竹)화라 부른다. 그 이름에 대나무를 의미하는 竹이 있어 절개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괴석과 대나무를 같이 그리면 죽석도라고 하였는데 이는 죽(竹, zhú)은 축(祝, zhù)과 음이 같다. 바위에 살기 힘든 대나무가 살아있으므로 장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에게 주어진 젠더는 순수한 부계 혈통을 위한 절개를 가장 강조하여 대부분 책거리에 나타나는 여성젠더만을 상징하는 기물들은 이에 관한 것이다. 은장도는 부녀자가 지녀야 할 절개를 상징하는 물건이므로 책거리에서 은장도와 더불어 그림 어딘가에는 화병에 꽂혀 있는 매화나 국화 등이 같이 그려져 절개와 지조를 강조하는데 때로는 사계평안(四季平安)이나 젊음을 상징하는 장미인 월계화나 부귀영화(富貴榮華)를 상징하는 모란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의 젠더 구분에 의한 표는 젠더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알려준다. 생황은 생남을 상징하거나 승진을 상징한다. 여기서 생남을 중시

146) 정병모. (2020). 책거리, 서울: 다할미디어, 290.

147) 경기도 박물관(2012), 168.

148) 위의 도록, 169.

149) 조용진. 앞의 책, 57.

하는 것과 승진을 남성 젠더에만 해당시키는 것은 성리학적 젠더가 남성 우월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공작 꼬리 깃털, 잉어, 산호, 두루마리 등도 모두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의미하는데 이것들 또한 출세와 높은 관직을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배속시킨다는 측면에서 성리학적 젠더의 남성 우위적 특징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성리학적 여성 젠더를 의미하는 기물은 장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은장도는 고려 말부터 남녀가 장식품으로 남자는 허리춤에, 여자는 저고리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 용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그러다 조선시대에는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에 대한 일부종사의 정절을 지키는 가부장적 의미를 담게 되었다.¹⁵⁰⁾ 이것은 성리학적 젠더에서 여성성의 지위를 가부장적인 테두리에 가두어 놓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것도 이러한 상징물의 숫자의 큰 차이에서부터 성리학적 사회인 조선에서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서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남성은 널리 배워 막힘이 없고 여성은 일에 마음대로 할 것이 없으며 행함에 혼자서 이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젠더에 따른 책거리 분석

앞에서 책거리에 자주 나오는 남녀 공동의 젠더인 '다남'과 '생남'에 대한 패턴을 젠더에 따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하였고 길상을 나타내는 기물들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남성젠더와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을 분석하였다. 이제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젠더적 기준에 따른 책거리들에 나타난 젠더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5〉 젠더의 기준으로 분류한 분석 대상 책거리

연번	대상 책거리	젠더의 기준	그림 번호
1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책거리 (전형적인 사대부의 책거리)	남성젠더	그림24

150) 정광용(1999). 앞의 논문, 21-22.

연번	대상 책거리	젠더의 기준	그림번호
2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1 (호피 장막도)	남성젠더	그림36
3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2 (민화의 기물들이 표현된 서가식 책거리)		그림42
4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 중요 기물: 매미		그림50
5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 중요 기물: 죽순과 거북이		그림52
6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 중요 기물: 관모		그림54
7	『조선 민화』 수록 책거리 중요 기물: 흑피화		그림61
8	북한 책거리 중요 기물: 팔 시루떡		그림66
9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 중요 기물: 투구와 갑옷		그림69
10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거리 1 중요 기물: 조총		그림82
11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중요 기물: 은장도와 다남		여성젠더
1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 중요 기물: 화장도구	그림91	
13	개인 소장 1 중요 기물: 은장도와 다남	그림95	
14	여성이 표현된 책거리 개인 소장 2	남녀젠더, 인물이 나오는 책거리	그림97
15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2 세 남성이 표현된 책거리		그림98
16	개인 소장 3		그림100

연번	대상 책거리	젠더의 기준	그림번호
	동자가 표현된 책거리		
17	가회박물관 소장 책거리 5 중요 기물: 금계(金鷄)	젠더의 조화	그림102
18	조선 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중요 기물: 영수(靈獸)		그림109
19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중요 기물: 옷가지	개인적 감정의 자유, (젠더에 대한 수용 태도의 변화)	그림117
20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중요 기물: 옷가지		그림118 그림119
21	개인 소장 4 중요 기물: 한글 소설		그림121
22	책읽는 여성 1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중요 기물: 바늘꽃이와 책	한글 소설의 유행을 통해 본 여성 자의식의 성장	그림130
23	책읽는 여성 2 개인 소장 5		그림135
24	책읽는 여성 3 〈농가의 내부(Farmhouse Interior)〉, Johanne Mathilde Dietricson, 1875.		그림144
25	책읽는 여성 4 〈독서〉 Federico Faruffini, 1865.		그림145
26	책읽는 여성 5 〈The Librarian〉 Fellician Rops, 1878.		그림146

1) 남성 책거리

(1)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책거리>-<그림 24>

이 책거리는 이응록¹⁵¹⁾이 그린 여덟 폭짜리 병풍이다. 병풍 전체는 모두 3개 층이고 8칸으로 서가의 24칸 중 16칸에 책들이 빼곡하다. 향로 같은 고동기와 합, 병, 꽃병, 주전자, 잔 같은 기명(器皿)들이 그려졌고 책과 도자기, 장식품의 품격이 잘 어우러져 질서정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책의 분량이나 고동기들을 보면 이 책거리의 주인은 학식이 높으며 품격있는 고위직 사대부로 추정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유학자와 관료는 점차적으로 엄격한 성리학적 윤리는 뒤로 하고 물질적인 소비에 빠져들었지만, 물질주의를 멀리하라는 성리학의 가르침 때문에 18세기 지식층은 물질의 소비와 수집 취미에 대해 양면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종종 스스로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식층의 사고는 물질에 대하여 필요성보다 기호성(嗜好性)으로 가치 기준이 변하고 있었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차츰 수용하고 원하게 되면서 수입품의 품목이 변화했다.

17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서적과 선비의 물품, 골동품으로 유교 및 지식계급의 가치관과 19세기 책거리 그림은 가정의 장식품으로서 사회 전체층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책거리 그림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유동적인 시대를 살았던 예술애호가들의 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메시지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암호화된 상징적이고 상서로운 물건을 엄선하여 제시했다. 책거리에 나오는 사물, 동물, 꽃과 인물도 마찬가지로 발음이나 물리적인 모습, 관련 일화를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구현한다. 모든 개체는 숨겨진 의미로 암호화되었고 그 의미를 해독하여 책거리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창출하여 나타냈으며 개성도 표현하였다.

두루마리나 화첩 형태의 그림과는 달리 책거리는 대부분 여러 폭의 병풍이나 벽에 붙이는 그림이었다. 두루마리와 화첩은 크기가 작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책거리는 크고 일반적으로 그림 주인의 뒤편에 배경으로

151) 세 개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형록:1808년~1863년, 이응록:1864년~1873년, 이택균:1873년 이후로 개명 때마다 화풍도 달라짐.

설치되어 구도나 기물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는 그림의 주된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그 주된 목적은 소장자의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취향과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산 사치품이 소장자의 청물애완(淸物愛玩)의 호사스러운 당시 상류층의 기호를 즐기는 경제적인 성공과 앞서가는 취향을 표현하고 있지만, 넘치지 않고 고상한 형식적인 표현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책거리 주인은 사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물에도 관심을 가진 실학에 영향을 받은 성공한 사대부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서가식 책거리는 서양식 원근법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 처음 보는 실제처럼 착각하게 하는 신기함과 함께 중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문물과 기호품을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 책거리에 표현된 기물들에서 남성젠더를 표현하는 기물들과 남성 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들을 정리하여 분석하면 다음의 <표 16>과 <표 17>와 같다.

〈표 16〉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기타
1	공작 꼬리 깃털과 산호 가지	최고위 관직 출세	중국에서는 공작의 꼬리 깃털을 사용하여 관직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제도는 명나라 때 시작하여 1918년까지 계속되었다. 청나라의 관복제도에 의하면 일품관(一品官)의 모자에 공작 깃털과 산호 테두리를 하였다. 그래서 문관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2	접선 (摺扇) ¹⁵²⁾	높은 신분 번영 성장	<p>접는 부채.</p> <p>〈천자문〉 가운데 ‘화는 악한 행실이 쌓임으로 인해 초래되고, 복은 착한 행실을 많이 베풀어 따라 찾아 든다. (禍因惡積 福緣善慶)’구절이 있다. 부채扇은 흉과 발음이 같다. ¹⁵³⁾</p> <p>접선은 조선시대의 사치품으로 부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대나무와 한지는 모두 음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여 선비들은 부채를 ‘첩(妾)’이라 부르며 부채에 다는 선추(扇錘)에 금, 은, 비취, 옥 등으로 치장하고 그 밑에는 향수를 뿌린 주머니를 달았다. 부채살이 50개인 접선은 왕실 직계만 사용하였고 사대부는 40살, 이하는 그보다 작게 넣었다.¹⁵⁴⁾</p>
3	목제 죽문필통 (木製竹紋筆桶) ¹⁵⁵⁾	학문 소원성취	목재를 모방하여 분채도자기로도 제작되었다. 죽관필(竹管筆)과 지권(紙券)

	기물	상징성	기타
			이 꽃혀 있다. 떡과 붓이 같이 있는 것은 소원성취를 상징한다.
4	인장(印章)과 인장함(印章盒)	권력과 권위의 상징.	서가식 책거리에서 종종 인장이 인장함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 책거리를 그린 화가의 이름이 종종 발견된다.
5	향로와 향합 ¹⁵⁶⁾	무늬는 길상 조상숭배	·향로·력(鬲)- (목제 대좌 위에 삼족쌍이(三足雙耳) 향로가 있고 여의두문(如意豆紋) 아래 팔괘문(八卦紋)과 돌기가 돌려 새겨있고 향 젓가락이 있다. ·향합(왼쪽의 목제 대좌 위의 작은 매병, 향이 꽃혀 있다) 이 둘은 종종 같이 나오는 기물이다.
6	반(盤) 위의 수선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대부의 고고함과 부귀를 상징	화형연변문수반(花形蓮瓣文水盤) 위에 수선화가 만개하여 있다. 수반은 사방을 꽃 모양으로 조각하고 몸체에는 얇게 연판문(蓮版紋)을 음각하였다.
7	옥패식(玉佩飾) ¹⁵⁷⁾	출세	칠기로 제작된 산호 모양의 걸개에 박쥐(福을 상징)형 옥패식(玉佩飾)이 걸려있다. 옥패는 높은 신분을 나타낸다.

	기물	상징성	기타
8	두 루 마 리 ¹⁵⁸⁾	학문 숭상 과거 급제	사대부들이 가까이해야 할 글씨와 그림을 의미하며 글이나 그림을 말아 천으로 묶어놓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 형태와 비슷하여 책과 더불어 출세를 상징한다.
9	남지문채쌍이향로(南池粉彩雙耳香爐) ¹⁵⁹⁾	청물완상 조상숭배	몸체에 돌기와 원권(圓圈)이 교대로 새겨져 있고 어깨에는 두 줄 선위에 여의두문(如意頭紋)이 있다. 건륭제 이후 유행한 고동기를 모방한 그릇이다.

152) <그림 38>

153) 노자키 세이킨 저, 변영섭, 안영길 역(2011). 앞의 책, 624.

154)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174>.

155) 방병선(2007). 앞의 논문, 223.

156) 방병선(2007). 앞의 논문, 221.

157) 방병선(2007). 앞의 논문, 216.

158) 방병선(2007). 앞의 논문, 221.

159) 방병선(2007). 앞의 논문, 227.

〈표 17〉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기타
1	람지분채고식병 (藍地粉彩瓶 觚式瓶) ¹⁶⁰⁾	청물완상	도자기 화병으로 청동기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청대 강희제 때부터 유행하였으며 송대 균요(鈞窯)에서도 고동기를 모방하여 청자로 제작하였다. 청대의 화병은 3단으로 나뉘 가운데는 청동기처럼 도철문(饗饗文)과 돌기가 있는데 백자대토에 고동유(古銅釉)를 사용하고, 안쪽은 백유를 사용하고 밖은 남지분채(藍地粉彩)로 세 가지 색채를 써서 청동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냈다.
2	모란	화병-평안 모란-부귀	평안함을 상징하는 빙렬(氷裂) 도자기에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 한송이가 꽃혀 있다.
3	녹지분채동형배 (綠地粉彩 筒形杯)	청물완상 길상	술잔인 녹지분채동형배(綠地粉彩筒杯)에 금채로 구름과 기룡문(夔龍文)을 넣었다.
4	여의	뜻대로 이루어짐, 길상	만사여의(萬事如意), 평안여의(平安如意), 사사여의(事事如意)를 의미한다.

160) 방병선(2007). 앞의 논문, 225.

161) 방병선(2007). 앞의 논문, 226.

162) 경기도 박물관(2012). 앞의 도록, 168.

5	주전자와 뚜껑 있는 찻잔 (開椀)	청물완상	<p>청동기 느낌의 주전자는 의흥자사(宜興紫砂)로 보이는 제량호(提梁壺)</p> <p>제량호: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 손잡이는 나무 넝쿨처럼 꼬아 만들고 몸체에는 도안화된 송죽문이 있다¹⁶¹⁾</p> <p>·뚜껑 있는 찻잔.</p>
6	고족반(高足盤) 위의 옥반과 불수감(佛手柑)	<p>복(福)</p> <p>다복(多福)</p> <p>부(副)</p>	<p>고족반(高足盤)은 다리가 나발처럼 되어 반을 높이 받치고 있다. 수석이나 난을 올려놓았다. 불수감은 복(福), 부(副)</p>
7	옥 ¹⁶²⁾ 으로 된 3단 찬합	<p>지혜</p> <p>용기</p> <p>탁월함</p>	<p>3단으로 귀한 작은 물건을 보관하였는데 상아나 옥으로 만들었다. 중국에서 옥은 고가의 희귀보석이라는 점 때문에 가장 훌륭한 것, 탁월한 것을 상징하였다. 또한, 옥은 우아함과 정의로움, 지혜, 용기를 지녔다고 믿었다.</p>
8	홍지분채완(紅地粉彩碗)	청물완상	<p>사발인 홍지분채완(紅地粉彩碗) 위에 뚜껑으로 방가요완(倣哥窯碗)을 그렸다. 방가요완은 빙렬도자기 또는 썰기(碎器)인 가요식 도자기이다.</p>

(2)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1>-<그림 36~38>

<호피장막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책거리는 이응록의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책거리>와 비교하여 무인(武人)의 책거리라 생각될 정도로 남성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호피라고 해서 무인의 전유물은 아니다¹⁶³). 이 8폭 책거리는 제작연대가 19세기로 추정되고 호랑이가 아닌 표범 가죽을 표현하였는데 그 당시는 호랑이와 표범을 같은 범주에 넣었으며 8마리의 가죽으로 벽사의 의미도 강하다. 표피는 귀하고 비싼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유교적 수양과 사대부의 품위, 전통적 관습인 벽사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어주는 소재이다. 또한, 조선의 문인들 사이에서는 표범의 아름다운 무늬는 명예와 문사(文事)를 상징했다고 한다¹⁶⁴)

묘사를 보면 서양식 원근법을 일부 적용하면서 ‘trompe-l’oeil’의 기법을 쓴 것으로 다른 책거리와는 달리 털이 정밀하게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식 원근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사실성’이 부각 되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특별한 공간을 연출하였는데 호피 8폭 병풍이었으나 부분적으로 잘라내고 책거리를 그려 넣었다. 8폭 중 왼쪽 2번째 폭부터 5번째의 가죽이 겹쳐 올려져 있고 그 사이로 방안이 보이는데, 보이는 기물들로 인해 안 보이는 공간에 대한 짐작과 상상을 하게 하는 재미있는 구도이다. 전체 8폭 중 가운데 4폭만 분리한 <그림 37> 을 보면 고동기, 책 위의 안경, 문방구, 석류, 석경, 촛대, 부채 등이 보인다. 이 책거리에서 남성적 젠더를 표현하는 기물들을 정리해보면 <표 18>와 같다. 기물들의 상징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37>의 오른쪽의 석류가 놓여 있는 5단 진열장(1~5), 공작꼬리 깃털과 특경이 있는 뒤쪽 진열대(6~12), 보약을 짠 뒤 놓아둔 접시가 있는 오른쪽 아래 사각반(13~14), 벼루와 유자가 있는 왼쪽 아래 낮은 서안(15~17), 펼쳐져 있는 책 위에 안경과 책감들과 부채가 있는 중앙의 서안(18~), 가장 오른쪽의 보약 다리는 향로의 순서로

163) “象曰，大人虎變 其文炳也。” 周易 下經 19장 <革>16절: “象曰，君子豹變 其文蔚也。小人革面順以從君也。” 『周易』 下經 19장 <革> 18절.

문헌상으로는 주역의 혁괘(革卦)에 ‘대인호변(大人虎變), 군자표변(君子豹變), 소인혁면(小人革面)’라는 구절을 당시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했다. 이는 모두 호랑이와 표범의 털갈이를 문채(文采)에 비유하는 문장이다. 문인들이 호피와 표피를 애호하는 이유를 이처럼 유교적 수양을 비유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164) 윤진영(2012). 조선 중후기 虎圖의 유형과 도상: 기념작을 중심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28), 192-234.

정리하여 표를 만들었다. 또, 이 책거리의 유자는 모든 기물들이 고급 취향을 나타내고 벼루 옆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유학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 38>을 보면 서안 위에 퍼놓은 책 위에 그 위에 안경이 걸쳐져 있다. 그 아래 ‘山亭對酌次韻眞靜國師’(산정대작차운진정국사, 산정에서 대작하며 진정국사의 시에 차운하다)라는 시가 보인다. 그 시에 이어 ‘山亭對花又次眞靜韻’(산정대화우차진정운, 산정에서 꽃을 보다가 또 진정국사의 시에 차운하다)이라는 두 번째 시가 보이고 초서로 쓴 또 하나의 시가 보인다. 이 책거리의 시 속에서 자하산인(紫霞山人)이나 다창(茶倉)이라는 시의 작자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가 보인다.

‘다창’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에 다산초당이 있던 강진의 뒷산의 다른 이름이 “자하산”이고, 차를 좋아하던 다산이 “다창”이라는 별호를 썼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 연구에서 마지막 시의 초서 필체는 다산의 글씨와 흡사하다는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 다산 정약용의 시이고 제작연대는 1802년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⁵⁾.

이 책거리의 주인은 정약용의 미발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대와 문화권에 있고 19세기 경화세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책거리에 나타나는 취미 생활 위주의 기물 구성을 볼 때 사대부의 애장품들이 더 많이 보이고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모습들이 훨씬 더 개방적이면서 책거리 주인의 실제 방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준다. 시를 즐겨 읽는 사대부의 취향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여유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앞의 이응록의 책거리와 비교하면 사적인 공간과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 공간과 취미에 대한 부분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책거리에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과 남성젠더를 나타내지 않는 길상이나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을 정리하면 <표 18>와 <표 19>와 같다.

165) 정민(2017). 리움미술관 소장 표피장막책가도 속의 다산 친필시첩, 문헌과 해석(77), 서울: 태학사, 171-184.

166) <그림 36>

167) <표 13>

168) <표 13>

〈표 18〉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기타
1	공작 꼬리 깃털 과 산호 가지	최고위 관직 출세	〈표 13〉 참고
2	접선(摺扇)	귀한 신분 번영 성장	접는 부채 〈표 13〉 참고
3	목제 필통(木製 筆桶)	학문 소원성취	목재를 모방하여 분체자기로도 제작되었다. 먹과 붓이 같이 있는 것은 소원 성취를 상징한다.
4	술잔 작(爵) ¹⁶⁶⁾	출세	벼슬을 내림
5	향로와 향합	무늬는 길상 조상숭배	·향로'력(鬲)·-(목제 대좌 위에 삼족쌍이(三足雙耳) 향로가 있고 여의두문(如意豆紋) 아래 팔괘문 (八卦紋)과 돌기가 돌려 새겨있 고 향 젓가락이 있다.
7	옥패식(玉佩飾)	출세	칠기로 제작된 산호 모양의 걸개 에 박쥐(福을 상징)형 옥패식(玉 佩飾)이 걸려있다. 옥패는 높은 신분을 나타낸다.

	기물	상징성	기타
	장죽(長竹) ¹⁶⁷⁾	남성 권위	사각반 아래에 두 대의 장죽이 있는데 장죽은 하인이 있어야 담뱃잎에 불을 댕길 수 있어 높은 지위에 있음을 상징한다.
8	두루마리 ¹⁶⁸⁾	학문 숭상 과거 급제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 형태와 비슷하여 책과 더불어 출세를 상징한다.
9	청동쌍이향로 (靑銅雙耳香爐)	청물완상 조상숭배	사각형의 입구에 건륭제 이후 유행한 고동기를 모방한 그릇이다.

〈표 19〉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기타
1	백자 사각 받침대	청물애완	무늬가 있는 백자 사각 받침대가 3개가 포개어져 있다. 책거리에 백자는 보기 드물다.
2	매병과 도자기 수저	만사여의	어깨와 몸체가 두터운 여의두문(如意頭紋) 매병과 색과 무늬가 다른 분채 자기 수저 3벌이 있다.

	기물	상징성	기타
3	호리병 ¹⁶⁹⁾	복 자손만대 장수	<p>쇄병에 복(福)자가 새겨진 호리병과 병 입구를 덮어 둔 홍지분채배(紅地粉彩杯)가 있다. 조금 떨어져서 홍지분채완과 다른 색의 술잔이 겹쳐져 있다. 호리병은 장수와 자손 번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팔선인 중 이철괴(李鐵拐)가 약선(藥仙)이라고도 한다. 이노군(李老君)이 약제사 이대(李大)를 교화하여 의서(醫書)를 전수하고, 호리병에 약을 넣어 백성을 구제하다가 주인에게 폭행을 당한 이대를 치료해 주고, 절름발이가 된 그에게 쇠지팡이를 주었다는 이야기¹⁷⁰⁾는 질병을 의약으로 치료하고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이철괴 같은 의신(醫神)과 약선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p>
4	받침대 위의 주전자와 찻잔	청물애완	<p>녹슨 듯하게 보이는 녹유기법(綠油技法)을 쓴 청동기 느낌의 주전자는 제량호(提梁壺로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인데 뚜껑 손잡이의 장식과 물이 나오는 주둥이는 꼬아 만든 듯한 조형미를 갖고 있다. 주전자의 받침으로 쓰고 있는 국화형반(菊花形盤)은 일반적인 반보다 굽이 높은 형태로 수석을 그 안에 두고 키우기도 한다. 구</p>

	기물	상징성	기타
			연부가 꽃잎 모양으로 된 이 국화형 반은 청의 옹정제 때 유행하였다.
5	옷감		옷감인지 옷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장막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키게 한다.
6	특경(特磬)	기쁜 소식	특경의 경(磬, qìng)은 경(慶, qìng)과 중국어 발음이 같아 기쁘고 즐거운 일을 의미한다.
7	목제 제량호(提梁壺,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	청물애완	수지(樹枝) 제량호(提梁壺,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가 있고 탕제를 짠 모습 그대로 청화백자에 담겨있다. 약탕기는 가장 오른쪽 화로 위에 있다.
8	도자기 쇠병(碎甁)과 백자사각문병(白瓷四角紋甁)	평안북	사각반 바로 뒤에 빙렬(氷裂)도자기인 수저통에 한 벌의 수저가 있고, 붉은 박쥐 문양이 새겨진 백자사각문병이 있다.
9	투각백자필통(透刻白瓷筆筒) ¹⁷¹⁾	청물애완	다양한 모양의 백자투각필통이 유행하였는데 그 중 하나이다.
10	용머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종(鐘)	벽사	청동기, 용머리와 종소리는 벽사의 의미가 있다.

	기물	상징성	기타
11	펼쳐진 책 옆의 녹지분 채개완(綠地 粉彩開碗)	청물애완	막 탕약을 마셨던 듯 녹지분채개완 (綠地粉彩開碗)의 뚜껑이 열려있다.

책거리에 자주 나오는 기물인 호리병에 대한 상징의 의미를 더 알아보면 한자 표기는 호리병박 표(瓢)이며 속칭 표단(瓢簞)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약(仙藥)을 상징한다. 도교에서는 신선이 선약(仙藥)이 들어있는 호리병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한다. 그래서 호리병은 악귀를 물리치고 악한 병과 독을 없애주는 데 영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장수·부귀의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다. 민속신앙에서 두창신(痘瘡神)이 표주박을 보면 달아난다고 하며, 병의 해독을 호리병 속에 집어넣어 가두어 두면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초에 어린아이들의 허리춤에 조롱박을 붉은 실로 꿰어 매달아주는 풍습도 있었다고 하고 돌을 맞은 아이의 의복이나 이불, 보자기, 혼수품, 도자기 등의 무늬로 많이 나타난다. 또 호리병은 남성의 성기와 다남(多男)을 상징하는데, 호리병 속에 많은 씨앗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¹⁷²⁾

이 책거리의 주인은 고급도자기를 감상하며 술과 차를 마시고 담배를 즐기는 애연가이면서 보약을 마시고 골패와 바둑도 둔다. 글을 읽을 때는 안경을 써야 하는 나이이고 글을 쓰고 읽으며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고 고동기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앞의 이응록의 책거리가 사회가 원하는 성공한 사대부의 외형적으로 드러난 보여주는 공적인 남성 젠더를 보여줬다면 이 책거리의 주인은 편안하게 놓인 기물들과 취미 생활을 보여주면서, 공작 깃털, 두루마리, 붓, 특경, 고동기 등을 통하여 출세를 바라고, 석류를 그려 가장의 의무인 다남의 바램도 잊지 않았는데 이는 성공한 남자의 공적인 모습이기보다 성공한 남자의 지극히 사적인 남성젠더를

169) 노자키 세이킨 저, 변영섭, 안영길 역 (2011). 앞의 책, 393.

170) 吳楓 편저(1994). 中華道學通典. 南海出版公司, 1062.

172) <https://www.culture.go.kr/tradition/patternView.do?did=15394>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3)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2>-<그림 42~44>

이 책거리는 8폭 병풍으로 <그림 24>과 <그림 36>처럼 서가식 책거리이다. 왕실이나 사대부층에서 유행하던 서가식 책거리는 궁정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본으로 하여 빠른 속도로 재생산되었는데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일반 작가들에 의해 본은 작가들의 의도에 의해서든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든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이 책거리는 서가식 책거리이기는 하나 나오는 기물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책거리이다. 이 책거리의 특징을 보자면 다보각의 칸 구성을 차용하였던 초기의 서가식 책거리처럼 서가의 칸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조선의 날권으로 된 책의 비중을 작게 하고 화려한 책감에 싸인 중국 서책으로 화려함을 살렸다. 이 책거리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상징 기물들을 찾아보면 다음 표들과 같다.

<표 20> <리움미술관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공작석	최고의 벼슬 과거급제 출세	진한 녹색의 광물이며 갈아서 석록(石綠)의 안료로 쓰는 돌이다. 그 모습이 괴석 같은데 단면의 무늬가 공작의 깃털과 같은 무늬를 갖고 있어 공작석이라 한다. 공작의 꼬리 깃털처럼 최고의 벼슬인 일품관(一品官)을 의미하여 사대부들이 곁에 두었다. 과거급

	기물	상징성	유래
			제, 출세를 상징한다.
2	면경	다복 벽사	거울은 오래전부터 주술적인 목적으로 쓰였으며 임금이나 권력층의 상징으로 다복을 상징하고 부부 사이의 금슬을 지켜주며 재앙을 막아 준다.
3	유자	선비	유자(柚子)는 유자(儒者), 즉 유학자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4	자명종 ¹⁷³⁾	청물애완	18세기 중반 이후 연행을 한 사신들은 북경 남당에 설치된 자명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탁상용 자명종을 구입하여 오기도 했다. 조선 선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자명종은 책거리에서만 아니라 선비의 초상화에서 책상 위에 두는 물건이 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 민화풍의 서가식 책거리는 면경과 자명종이 나오는데 면경은 민화 책거리에 자주 나오고 자명종은 선비들이 선호하는 물품이었다. 서가식 책거리에 나타나는 기물들도 시대적 유행에 따라 새로운 기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거리에서는 서가식 책거리임에도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이 있어 표로 정리하였다.

173) 정병모(2020). 앞의 책, 288.

〈표 21〉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석류	다산 다남	씨앗이 많은 과일로 자손 번창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다남을 의미하여 부계 중심의 성리학적 가족 제도의 성공과 그러한 가문의 계승에 대한 바람을 상징한다.
2	수박	다남	씨앗이 많은 과일로 자손 번창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다남'을 의미한다.
3	연꽃	생남	연생귀자(蓮生貴子), 귀한 아들을 얻는다는 상징

민화 책거리에서 갈수록 수박은 다남을 대표하는 상징 기물이 되었다. 씨가 많고 넝쿨 식물이라 다남과 자손만대를 상징하던 수박에서 가지, 참외, 오이, 포도, 옥수수 등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된다. 그리고 연꽃은 다남을 상징하는데 꽃과 열매가 같이 있고 연밥에 물총새가 앉아 열매를 쪼고 있으면 과거급제를 의미하여 과거급제하는 귀한 아들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이 책거리의 다남과 길상의 기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와 의미
1	풍차	.	조선후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남바위를 방한모로 사용하였는데 뒤가 더 길어진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상류계층의 기물과는 거리가 멀다.

	기물	상징성	유래와 의미
2	복숭아	장수	중국 한나라의 『산해경』에 의하면 서왕모(西王母)가 살고 있는 곤륜산에는 3천 년 만에 꽃이 피고 3천 년 만에 열매를 맺는 복숭아가 있어 그것을 한 개 먹으면 1만 8천 살까지 살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장수를 상징한다.
3	모란	부귀영화	송대의 주돈이(周敦頤)는 『애련설(愛蓮說)』에서 ‘모란은 꽃 중에서 가장 부귀한 꽃이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모란을 부귀화(富貴花)라고 불렀다. 화병에 꽃은 모란은 화병을 보병으로 해석하여 집안이 평안하고 부귀를 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4	단선	.	방구 부채로 상류계층의 부채는 접는 부채인 접선을 사용하였으므로 상류층의 애장품은 아니다.

민화풍의 기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앞의 두 책거리처럼 사대부 취향의 기물들도 많이 나타나는 이 책거리는 그 기물들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서가식 책거리에서 민화 책거리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인다. 서가의 입체묘사가 전체에서 중앙을 향해 소실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한 폭씩 단위로 우상부감(右上俯瞰)의 시점에서 그려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양식 원근법이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서양

식 원근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여러 곳에서 서양식 원근법의 잘못된 적용이 보인다. 그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8번째 폭에서 자명종이 놓여 있는 선반의 바닥은 옆면과 바닥 면이 묘사되어야 하는데 바닥의 밑면도 함께 묘사되어 있어 서양식 원근법에 서툰 점이 보인다. 이러한 면은 7번째 폭의 포복 도자기에 매화가 꽃혀 있는 부분도 그렇고, 6번째 폭의 네발 받침대 위에 두루마리와 산호 가지를 꽂아 놓은 투명한 그릇을 둔 부분도 그러하다. 3번째 폭 오른쪽 위의 받침대가 있는 도자기 아래 선반도 그렇지만 도자기 윗부분도 서양식 원근법의 이해가 부족하여 지운 자국이 보여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그리고 8번째 폭의 남바위가 그려진 칸에서는 기물인 남바위를 서가의 왼쪽 벽면에 묻혀 형태가 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은 5번째 폭 상단의 왼쪽 벽에서도 책갑을 침범하여 책갑이 반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매 폭의 제일 위쪽에 바닥 판과 같은 색조의 긴 가로 천장 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하좌우에서 중앙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한 점이나 가운데 가로선 위에 여러 개의 소실점을 가진 상하좌우에서 중앙으로 집중되는 투시 원근법으로 그려진 서가식 책거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우상부감(右上俯瞰) 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서가의 천장 부분을 그려 넣은 것으로 보인다.

서가의 칸 속에는 정연하게 책갑과 청동기, 도자기, 삽화병, 술병, 술잔, 과일 접시, 두루마리, 여의, 유리그릇, 필통, 붓, 벼루, 연적, 시계, 바둑판 등이 그려져 있다.¹⁷⁴⁾ 이러한 기물들은 어느 서가식 책거리에나 나오는 기물들로 앞의 두 서가식 책거리에서 정리하였던 것이다.

이 책거리에서는 앞의 연구에서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새롭게 보이는 특이한 기물들을 중심으로 기물들의 상징성과 거기에 내포되어있는 젠더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의 책거리들과 겹치는 기물들은 중국 도자기와 청동기, 책과 두루마리 등이다.의 남바위와 2번째 폭의 단선(團扇)은 상류계층의 문방청완과는 거리가 있는 서민용 물품이고 1번째 폭의 바둑판, 2번째 폭의 부채, 5번째 폭의 소형 서랍함 등은 마치 장난감처럼 축소되어 서가의 공간에 맞추어 그려지는 등 사물의 크기 비례가 실물과 다른 부분이 많다. 서가식 책거

174) 이인숙, 앞의 논문, 217-218.

리의 색채는 진채(眞彩)를 쓰고 장중하고 권위적인 색감이었는데 이 책거리의 색감은 책갑의 포개진 부분 옆면이 모두 색동으로 배합해놓은 듯 색감이 파스텔톤으로 가볍고 화사해졌다. 그 화사한 색감의 책갑마다 모두 다양한 색깔과 문양들이 그려져 있어 볼거리로서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앞의 두 서가식 책거리와 구분되는 다른 점은 책이나 두루마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펼쳐진 책이 한 권 있고 그 위에 걸쳐진 안경은 보이지 않는데 펼친 두루마리가 4개, 반쯤 풀어진 책갑이 2개로 펼쳐진 상태의 책과 두루마리들을 묘사한 경향을 보아 과거급제를 가장 중요한 남성젠더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가식 책거리는 조형적으로 보면 직사각형을 직각 분할한 구조를 바탕으로 기물들을 배치하였는데 이것이 민화 책거리에서는 서가가 없어지면서 책갑들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수직적 구조를 강조하는 바탕 위에서 기물들을 배치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이 책거리는 신분제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볼 수 있고 출세하고 싶어 하던 시대상과 어울리기도 한다. 서가식 책거리의 서양 화법의 장식적 요소와 책, 두루마리, 고동기, 도자기, 꽃, 옥반 등의 고상한 학문 숭상 정신과 청물애완의 세련됨에다 많은 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길상적 상징들은 상류계층이 되고자 하는 현실적인 욕망과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다.

(4)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그림 50, 51>

이 책거리는 왼쪽의 높은 화병에 모란이 꽃혀 있다. 꽃은 뒤쪽에 기물들 뒤에 나타나다가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화려한 화기에 꽃꽂이 형태로 바뀌어 가는데 이 책거리의 모란이 그렇다. 그 아래에는 두루마리가 꽃혀 있는 지통(紙筒)이 보이고 그 뒤에 피리 종류의 악기와 장죽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가운데에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책 두 권 아래에 책을 높이 쌓아 올렸다. 아래에는 서안 위에 책갑 두 개가 놓여 있고 서안 아래에는 거북 필대(筆臺)에 붓이 하나 얹혀 있고 벼루와 먹이 어울려 있다. 오른쪽의 서안 위의 용이 조각된 긴 다리를 가진 장식대에는 화살과 화살갑이 꽃혀 있어 사랑방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책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식대의 매미일 것이다.

성리학에서 매미는 머리가 관(冠)의 끈을 늘어진 형상이므로 문(文)이 있고, 이슬만 먹고 살므로 청(淸)이 있고, 곡식을 먹지 않으니 염(廉)이 있으며, 집을 짓고 살지 않아 검(儉)이 있고, 철에 맞추어 허물을 벗고 절도를 지키니 신(信)이 있어, 군자가 지녀야 할 오덕(五德)을 갖추었다 하여 군자지도(君子之道)를 상징한다. 그래서 청고(淸高)한 군자의 덕을 상징하는 초견(貂巾)을 초선 또는 초선관(貂蟬官)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렇듯 군자를 상징하는 매미는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시문과 그림의 소재로 사랑받았다.¹⁷⁵⁾

이 책거리에서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이나 다산을 상징하는 기물은 없다.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과 젠더적 특징이 없는 상징 기물들을 정리하면 <표 23>, <표 24>와 같다.

<표 23>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매미 ¹⁷⁶⁾	군자의 덕	초선관(貂蟬官)이라 부르기도 하는 매미는 군자가 지녀야 할 오덕(五德)을 지니고 탈피를 하는 매미는 훌륭한 군자를 의미한다.
2	거북 ¹⁷⁷⁾	인내, 책임감, 장수	도교에서 삼신산을 받치고 있는 거북은 책임감과 인내를 의미한다. 낙수(落水)의 거북이 낙서(落書)를 등에 지고 나왔고 그것이 홍범구주(洪範九疇)의 토대가 되었다는 전설에 따라 유교적 왕도정치의 상징적 존재이다. 이 책거리에서 거북은 붓을 지고 있어 성리학적 가부장제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상징한다.

175) 김취정(2021). 월간 민화 4월호.

176) <표 13>

	기물	상징성	유래
3	장죽	권위	장죽은 높은 지위의 권력이나 남성을 상징한다.
4	붓, 벼루, 필산, 필가, 두루마리	과거급제	붓, 벼루, 먹, 연적만 아니라 필산(筆山)이나 필가(筆架) 등의 기물들이 모여서 과거급제를 상징한다.
5	화살	신하로서의 충성심 문무의 겸비 남성성	화살은 남성성의 의미일 때도 있으나 이 책거리에서는 용이 휘감고 있는 장식대와 더불어 임금에 대한 신하로서 충성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책과 더불어 문무를 겸한 인재를 상징할 수도 있다.

〈표 24〉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모란	부귀영화	화병에 꽃은 모란은 화병을 보병으로 해석하여 집안이 평안하고 부귀를 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2	만 (卍) 자 178)가 새겨진 지 통(紙桶)	행복	석가모니의 가슴, 심장, 인간이 희구하는 행복, 정신, 무한의 모든 것으로 불심에 나타나는 길양부덕(吉陽副德)을 의미한다

177) 〈표 13〉

	기물	상징성	유래
3	피리 ¹⁷⁹⁾	조화	조화를 상징하고 도교에서는 팔선인(八仙人) 중 남채화(濼彩和)와 한상자(韓湘子)가 지니고 다닌다.

이 책거리의 기물들을 분석하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기물들과 남성젠더와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은 엄연히 다르다. 젠더는 성리학의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 남성과 여성이 수행하는 행동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살과 화살갑은 일반적으로 남성성의 상징 기물이기도 하지만 같이 받침대에 그려진 용조각 장식대나 학문이나 출세에 관한 기물들과 종합적으로 본다면 성리학적 남성젠더인 문무를 겸한 신하로 임금에 대한 충(忠)을 실천하는 상징이 된다. 때로는 이런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상징이 다른 기물들과 함께 책거리에 표현하여 다남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5)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그림 52, 53>

이 책거리는 책거리의 기본 기물인 책의 높이만큼 학문이나 관직이 높아 지라고 높이 쌓았다. 왼쪽의 책장 위에 괴석을 짚어진 거북이 있고 괴석 위에 장미인 장춘화가 피어 있다. 그 뒤쪽으로는 두루마리와 편지봉투가 보인다. 아래쪽에는 질그릇을 표현한 것인지 먹색의 검은 병에 복(福)자가 있고 다른 도자기는 다채색 도자기이다. 거북과 함께 눈에 띄는 기물은 네 발의 받침을 한 사족쌍이(四足雙耳)화분에 심어진 죽순이다. 거북이를 받치고 있는 책장이나 파초 앞의 책갑의 옆면처리에서 서양식 원근법에는 미숙하지만 죽순이나 거북이 받치고 있는 괴석 책갑 등을 높게 표현하여 힘찬 느낌으로 남성젠더가 분명하게 표현된 책거리이다. 이 책거리에 나타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의미하는 기물과 남성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25>, <표 26>과 같다.

178) 윤열수(1995). 앞의 책. 서울: 디자인하우스, 318.

179) 위의 책, 328.

180) 금광복(2019). 민화와 괴석의 기발한 만남. 월간 민화 3월호.

〈표 25〉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거북	인내, 책임감, 장수	도교에서 삼신산을 받치고 있는 거북은 책임감과 인내를 의미한다. 남쪽의 수호신이기도 한 거북은 장수와 영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책거리에서 거북은 붓을 지고 있어 가부장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상징한다. 선비의 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2	두루마리, 편지봉투	과거 급제 출세	두루마리는 〈표 13〉을 참고. 편지봉투는 관청의 서류를 의미하여 출세를 의미한다. 때로는 관직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 있을 때도 있다.
3	괴석 ¹⁸⁰⁾		괴석(怪石)은 괴이한 모양의 돌을 뜻한다. 오랜 세월의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생겨난 기묘묘한 형상은 태고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불변의 존재이며, 천지의 온갖 신령한 기운을 부여받은 대상물이었다. 고려 말 이곡은 “암석은 견고하고 불변하여 천지와 함께 종식되는 것, 두터운 땅에 우뚝 박히고 위엄 있게 솟아서 진압하며, 만 길의 높이에 서서 흔들려 움직일 수 없는 것, 깊은 땅에 깊숙이 잠겨서 아무도 침노하거나 제압할 수 없는 존재”로 암석의 영구불변함을 칭송했다. 조선시대 세조 때의 강희안은 그의 저서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석(石)은 굳고 곧은 덕을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군자의 벗이 됨에 마땅하다”라며 군자의 품성을 돌에 비유

	기물	상징성	유래
			했다. 책거리의 괴석 모양은 중국의 그림에 나타나는 모양이며, 어떤 경우에는 동물이나 글자 모양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 책거리에서 죽순은 남성성을 상징하여 성리학적 남성젠더의 기물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은 사령(四靈)과 사신(四神)에 포함되는 상서로운 동물로 긴 수명 때문에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에 포함되게 되었다. 숫놈은 봄에 나와 껍질을 새로 바꾸고 겨울에는 동면하니 그 이유로 장수한다고 한다. 거북은 바다신의 수행원인 하백사자(河伯使者)이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하신(河神)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모습을 보인다. 남극성의 화신으로 세상에 나타나면 치안을 돕는 다하여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는 남극성노인(南極星老人)을 등에 태우고 파도를 헤치고 나타나는 모양이 그려진다.¹⁸¹⁾ 그리하여 거북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장수와 책임감, 선비의 도를 상징하여 성리학적 남성젠더에 잘 맞는 기물이라 할 것이다.

<표 26>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복(福)'자 병	만사여의 세세평안	호분색으로 '복(福)'자가 써진 먹색 병이 다채색 도자기와 함께 아래에 놓여 있는데 물병이든 술병이든 甌의 발음인 bing과 ping(平, 平)이 같아 세세평안(世世平安)의 길상적 의미를 가진다. 만사 평안을 빌면서 거기에 복(福)을 더하였다.

181) 임영주(2004). 앞의 책, 192.

	기물	상징성	유래
2	장춘화	변치 않는 젊음, 청춘	장미인 장춘화는 여성의 젊음 또는 계속 피어나는 장미처럼 청춘을 의미한다.

이 책거리에 거북이 젊어지고 있는 것은 삼신산을 의미하는 괴석이다. 괴석도(怪石圖)는 조선 후기 청나라 문물이 유입되면서 문인 화가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괴석이 지닌 불변성은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에 부합되어 문인들 사이에서 사군자와 더불어 회화의 소재로 즐겨 그리게 되었고 정원의 장식물로 사용한 괴석은 사군자나 화훼와 함께 그려졌다. 이후 점차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도(祝壽圖) 성격의 괴석도로 변모했다.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조선시대 선비들은 노년에 탈세속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했는데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축소판인 괴석을 가까이 두고 감상하며 즐기곤 하였다. 최립(崔嵬)은 『간이집(簡易集)』에서 “내가 이 괴석을 얻은 뒤로는 화산 쪽에 머리를 돌려 앉지 않았다.”며 괴석이 중국의 명산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했다.

또, 황현(黃玗)은 『매천집(梅泉集)』에서 “늙은이의 반생이 달리 좋을 게 없다 보니 한번 괴석을 만난 뒤로는 보배처럼 생각했네”라며 나이가 들어 괴석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한 기쁨을 노래했다.

특히 괴석도는 19세기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추사는 『완당전집(阮堂全集)』에서 “반이랑 구름 섬돌에 못돌이 무리 지어 머리마다 주름지고 구멍마다 영롱하다.” 하여 괴석이 가진 산수의 운치를 노래했다. 문인들은 천 년 운무(雲霧) 속에서 빛어진 괴석의 기이한 형태를 보고 태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고, 영적인 기운이 서린 괴석의 구멍에서 선계동천(仙界洞天)의 그윽함을 보았을 것이다. 선비들에게 괴석은 명산의 축소판이자 신선의 세계였고, 수신(修身)과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초기에는 수직으로 솟아 있는 구멍 뚫린 각진 괴석도 화풍이 유행했으나 점차 나뭇의 해석을 거쳐 개성적 화풍을 형성했다.

괴석이 화조나 화접, 화훼와 함께 한 화면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민화에서는 괴석은 장수를 상징한다. 민화 십장생도에 나오는 바위뿐 아니라 화조도의 배경이 되는 기이한 형상의 괴석 역시 장수를 의미한다. 이전에 그려진 민화에 괴석이 추가되면서 상징성이 확장됐다. 예를 들어 모란도는 부귀영화를 의미하지만, 괴석을 같이 그린 모란도는 ‘장수와 부귀영화’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은 부귀(富貴)를 경계하여 선비로서의 울곧은 절개와 드높은 기상을 추구했다. 『논어』에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못하고 부귀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뜬구름과 같으니라”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조선의 문인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항상 실천하고자 한 경구였다. 선비 주도의 사회 풍조에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을 문인화의 소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민화가 유행하면서 모란은 왕실은 물론이고, 민가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소재였다. 또한, 민화 속 괴석은 문인화에서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뜻으로 그려진다. 문자나 동물 형상의 괴석에 화려한 모란을 조합해 그린 괴석 모란도, 남근(男根) 또는 여근(女根) 형태로 표현한 괴석에 화훼를 결합해 그린 괴석화훼도 등의 민화의 괴석에는 궁중 회화와 문인화에서 볼 수 없는 자유롭고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182)

이 책거리에서 괴석은 거북과 같이 장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괴석을 메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을 성리학적인 상징으로 이해하면 조선의 남성젠더가 무겁게 느껴진다. 가부장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는 여성만큼 수동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큰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가야 했고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젠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거리이다.

(6)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그림 54, 55>

이 책거리에는 왼쪽의 관모가 눈에 띄고 그 위쪽으로 석류 가지 끝에 남바위가 걸려있다. 석류 가지는 ‘수(壽)’자가 새겨진 청화백자에 꽂혀 있는데 그 아래 청화백자 하나 더 있고 병의 입구에 홍지분채배(紅地粉彩杯)

182) 금광복(2019). 앞의 글.

가 씌워져 있다. 그 옆에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홍지분채완(紅地粉彩碗)에 배(梨)가 담겨있다. 그리고 서안 아래에 뚜껑이 닫힌 옹기로 보이는 항아리가 놓여 있다. 이 책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관모를 포함하여 남성젠더를 표현한 상징 기물들을 살펴보면 관모가 눈에 띈다. 이 관모에 대해서 다음 <표 27>에서 알아보려 한다.

<표 27>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기물	상징성	유래
1	관모 ¹⁸³⁾ 정자관 (程子冠) 184)	출세	중국 송나라 때 정자(程子)가 쓰던 것으로 홀곶으로부터 2층 3층으로 썼는데 지위가 높을수록 층이 많은 것을 썼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돈을 바치는 사람에게만 명칭뿐이지만 모조리 관직을 주었고 그들이 다투어 3층 관을 써서, 세간에서는 3층 관을 '쌍놈관'이라 하였다 한다.
2	배 ¹⁸⁵⁾	정의 어진 정치	배는 순수, 정의, 장수, 현명하고 어진 정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혜롭고 어질고 선한 정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학문을 이룬 청렴한 선비를 상징한다.

183) 이훈중(1992). 앞의 책, 69.

184) <그림 57>,<그림 58>

185) 윤열수(1998). 앞의 책, 320.

<표 28> <가희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수(壽)'자가 써진 청화백자	장수	'수(壽)'자가 써진 청화백자에 꽃힌 석류 가지에 석류가 3개 달려있다. 석류의 의미처럼 많은 아들을 낳아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아이의 생존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아서 태어난 아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기도 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福·祿·壽 중 하나인 장수를 기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 책거리 중간에 그려진 관모는 정자관(程子冠)으로 조선에서는 성리학에 영향을 미친 북송대(北宋代) 학자들을 흠모하여 그들이 착용했던 관을 따라 썼는데 그 중 정자관은 북송의 대 유학자인 정자(程子)가 착용했던 관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정자는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頤, 1033~1107) 형제를 가리키며, 둘을 아울러 이정(二程)이라고도 한다. 이들 형제가 착용한 관을 정자건(程子巾)이라고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이채(李采, 1745~1820)의 초상화<그림 60>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채는 머리 위에 네모진 이중 관모를 착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 위 제발(題跋)에 이채 스스로 “관은 정자관을 쓰고 옷은 문공(朱子)의 심의를 입고 있다(冠程子冠 衣文公深衣).”라고 썼다. 19세기 말 각종 초상화나 흑백 사진 및 각 박물관에 유존하는 정자관 유물은 이전 시기의 네모진 정자관과 달리 산처럼 뾰족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1895년(고종 32)에 일본공사관을 역임한 김가진의 사진<그림 59>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그러하다. 정자관은 19세기 말에야 고위층 관료를

중심으로 유행하여, 그들의 신분과 계층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6). 그리고 책거리 중간의 청화백자병에 홍지분채배(紅地粉彩杯)이 덮여져 있는데 이렇게 병에 작은 잔이 병입구에 씌워져 있는 경우를 책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책거리는 다산하기를 기원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며 높은 벼슬에 올라 어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책거리인데 성리학적 남성젠더는 관모와 배라고 볼 수 있겠다. 다남의 상징은 석류이고 청화백자는 그려진 글자로 장수를 상징한다. 그리고 남바위가 보이는데 이는 남녀 공용의 방한모로서 민화에 자주 표현되어 남성의 방인지 여성의 방인지를 나타내어주는 것으로 이 책거리에서는 남성의 방임을 의미한다. 여성의 남바위는 검은색이 아닌 밝은색을 쓰는데 <그림 111>에서 볼 수 있다. 부인용 방한모는 아얌, 남바위, 조바위, 풍차 등이 있는데 아얌은 머리만 가리며 수달피를 넓게 붙이고 댕기를 늘였다. 제일 위쪽에서 늘어뜨리는 끈은 매듭끈에 산호구슬을 꿰었고, 앞뒤에 옥판과 작은 봉술로 장식하였다.¹⁸⁷⁾ 그리고 남바위는 귀와 머리를 가리게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 겹으로 털을 대었다. 조바위는 뒤를 파서 쪽찢 머리가 나오게 하였고 털은 달지 않았다. 풍차는 볼까지 가리게 되어 있다. 남성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인용은 크기가 작다.¹⁸⁸⁾

이 책거리는 관모인 정자관이 성리학적 남성젠더인 입신양명과 출세에 대한 욕망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7) < 조선의 민화 수록 책거리>-<그림 61>

이 책거리는 봉황이나 목화(木靴)가 눈에 띄는 기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 화면 위쪽에 봉황이 오동나무에 앉아있고 그 아래 풍차라는 남녀 공용의 방한모가 여의 가지에 걸려있다. 왼쪽 아래에는 목화(木靴)가 놓여 있다. 오른쪽에는 산딸기가 그릇에 가득히 담겨 세 개의 책갑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아래쪽에 평면적 표현으로 그려진 청동기처럼 생긴 지통(紙桶)에 두루마리 네 점과 붓 세 자루가 세워져 있다. 이 책거리에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6)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7174>

187) <그림 56>

188) 김영숙 편저(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03.

〈표 29〉 〈조선의 민화 수록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봉황(鳳凰)	태평성대 청렴한 선비 화목한 짝	봉황은 새 중의 으뜸으로서 고귀하고 상서로움을 나타낸다. 남쪽을 지키는 사령(四靈)으로 봉황의 문양(文樣)이 건축·공예 등에 두루 쓰였다. 왕의 상징인 용과 더불어 왕비의 상징이기도 하다.
2	목화(木靴) ¹⁸⁹⁾	출세	조선 후기 1품에서 9품까지 문무백관이 공복시에 신던 신발이며 바닥이 나무이고 목이 짧은 장화처럼 생겼다.

이 책거리에 등장하는 봉황은 화조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의 소재이다. 봉황은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가진 상상의 새로 고대 중국에서 신성시했던 상상의 새로 기린·거북·용과 함께 사령(四靈)의 하나로 여겼다. 수컷을 봉(鳳), 암컷을 황(凰)이라고 하는데 그 생김새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봉의 앞부분은 기러기, 뒤는 기린, 뺨의 목, 물고기의 꼬리, 황새의 이마, 원앙새의 깃, 용의 무늬, 호랑이의 등, 제비의 턱, 닭의 부리를 가졌으며, 오색(五色)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봉황의 상징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태평성대, 청렴한 선비, 화목한 짝으로 나눌 수 있다. 새 중에서 으뜸은 봉황으로 여기었고, 봉황은 五德을 갖춘 새라고 설명한다. 『山海經』에서 “어떤 새는 모양이 닭과 비슷한데, 오채색의 무늬가 있고, 부르기를 봉황이라고 한다. 이 새의 머리

189) 강순제, 김미자, 김정호, 백영자, 이은주, 조우현, 조효숙, 홍나영(공저). (2015). 한국 복식사전. 서울: 민속원. <그림 63>

무늬는 德, 날개 무늬는 義, 등의 무늬는 禮, 가슴무늬는 仁, 배 무늬는 信을 의미한다. 이 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스스로 자연의 법도에 맞고,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을 춤추는데, 이 새가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¹⁹⁰⁾라고 봉황의 형상과 상징을 설명한다. 동양 사상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물을 신성하게 여기는데 봉황은 오덕을 갖추고 있으니, 하늘의 기운이 순조로워서 오행이 조화를 이루는 태평할 때에 봉황이 출현한다. 봉황이 가지고 있는 오색에서 木은 청색, 火는 붉은색, 土는 황색, 金은 흰색, 水는 검정색을 의미한다. 五德에서 목은 仁, 화는 禮, 수는 智, 토는 信, 금은 義이다.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인자하고,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의리가 있고,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지혜가 발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봉황은 오덕을 모두 갖춘 길조이다. 하늘에서 먼저 순조로운 기운이 나타나면 땅에도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이것은 천지가 하나로 이루어져 기운이 동조하기 때문이다. 성인의 도가 행해질 때는 하늘에서도 상서로운 징조가 보인다. 그래서 태평성대에는 하늘의 기운이 조화롭게 운행하여 사시가 바르게 세워지고, 좋은 인재가 모여들어 성군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정치를 한다. 하늘이 순조로우면 백성들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나라가 평안하다고 한다. 『荀子』에서 성군이 출현하여 “고대 임금의 정치가 생명을 사랑하고 죽임을 멀리하면 봉황이 나무에 줄지어 나타난다.”¹⁹¹⁾라고 하였다. 순(舜)임금 때에는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고, 문왕 때는 기산(岐山)에서 봉황이 울었고, 복희 시대에는 황하에서 신령스런 거북이 나타나서 신령스런 그림을 지고 나왔다. 이것은 모두 성군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봉황이 나타나서 춤을 추고 우는 것은 성군이 출현하고 태평성대가 다가온다는 좋은 징조이다. 『論語』에서 공자는 “봉황새가 오지도 않고, 황하에서 하도가 나오지 않으니, 나는 이제 그만인가 보다!”¹⁹²⁾라고 하였다. “성군이 오시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태평성대가 오면 봉황이 나타나고 황하에서 하도(河圖)가 출현하였다. 지금 성군이 나타나지 않아 봉황과

190) 『山海經』南山經：有鳥焉，其狀如雞，五采而文，名曰鳳凰，首文曰德，翼文曰義，背文曰禮，膺文曰仁，腹文曰信。是鳥也，飲食自然，自歌自舞，見則天下安寧。

191) 『荀子』，哀公篇：古之王者，其政好生惡殺，鳳在列樹。

192) 『論語』，子罕：子曰：鳳鳥不至，河不出圖，吾已矣夫。

하도가 나타나지 않으니, 마음이 슬프고 스스로 비통하여 내가 이제 쓸모가 없다 하고 탄식한 것이다.”¹⁹³⁾ 다음은 봉황은 뛰어나고 청렴한 선비를 상징한다. 『莊子』에서 장자가 청렴한 선비와 썩은 재상을 봉황과 술개의 예를 들어서 세속적 썩은 먹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관리를 경시하는 처세관을 비유하였다. 봉황은 대나무 열매를 먹는데 대나무는 하늘로 곧게 솟아오르는 선비의 기상으로 대나무는 비록 속이 비어 있지만 곳곳한 절개와 기상을 갖고 있다. 내면에 자신의 절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대나무가 상징하는 선비의 곳곳한 기상이지만, 대나무는 바람이 흔드는 것을 함께 즐기는 여유도 있다. 그래서 대나무를 선비에 비유하여 고루한 선비가 아닌 함께 어울리며 풍류가 있는 선비를 의미한다. ¹⁹⁴⁾

봉황새는 자웅(雌雄)이 서로 의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지었다는 「봉구황곡(鳳求凰曲)」이 구애(求愛)의 악곡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봉황은 남녀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였다(그림 65). 속담에 ‘봉(鳳)가는 데 황(凰)이 간다.’, ‘봉이 나매 황이 난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남녀관계나 천정연분을 의미한다. 고전소설 「이대봉전」은 대몽에 봉황 한 쌍이 등장하여 남녀 주인공의 탄생을 예시하는데, 봉의 꿈을 꾸고 탄생한 남주인공 이대봉과 황의 꿈을 꾸고 탄생한 여주인공 장애황의 연애담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봉황은 죽실(竹實: 대나무 열매)을 먹고 살며 오동나무에 깃들인다. 이러한 봉황의 생태와 관련하여 「사랑가」에 “단산 봉황이 죽실을 물고 오동 숲을 넘노는 듯”이라는 구절이 있다.¹⁹⁵⁾

목화는 문무백관이 관복을 입을 때 신던 신발로 처음에는 흑피화¹⁹⁶⁾를 신었으나 19세기부터는 목화를 신었다. 바닥을 나무로 만들고 천으로 나머지 부분을 감쌌는데 목을 장화처럼 세우기 위해서 뒤쪽에도 나무를 댔다. 고구려 고분의 수렵도에도 이 형태의 신발이 그려져 있다. 조선후기 1품에서 9품까지의 문무백관이 관복에 신었던 것으로〈그림 64〉 목화가 그려진 것은 관모가 그려진 것이나 같은 의미로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하고

193) 『論衡』, 問孔 第二十八 : 孔子曰 :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夫子自傷不王也。已王致太平, 太平則鳳鳥至, 河出圖矣, 今不得王, 故瑞應不至, 悲心自傷, 故曰“吾已矣夫”。

194) 민병삼(2015), 한국인의 天神 思想 속의 鳳凰形象 研究, 仙道文化 18, 407-409.

195) 김경숙(1995), 〈李大鳳傳〉一考(二) : 고소설의 판소리화에 대한 일 시도로서, 목원어문학, 10.

196) 〈그림 62〉

임금을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만들기를 후손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8) <북한의 한 책거리>-<그림 66>

이 책거리는 2007년 「사진으로 보는 북한회화」 전의 도록에 실린 책거리이다. 북한의 책거리는 어떤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왼쪽 책갑 위에 파초잎 문양이 들어가 있는 갈색 화병이 있고 대나무 가지와 함께 활짝 핀 매화가 꽃혀 있다. 오른쪽에는 서랍이 위아래에 달린 사랑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책장으로 서랍에는 여러 가지 문방구류를 넣고 여닫는 칸에는 책을 보관하였던 가구로 천판 위에는 남성의 두루마리가 걸쳐져 있다. 옷걸이 사이에 드러난 남성용 장도가 빠져나와 매달려있고 털이 풍성한 풍차라는 방한모가 머릿장의 금장 손잡이에 걸려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물은 바닥에 넓적한 정갈한 그릇에 담겨있는 팔 시루떡이다.

<표 30> <북한의 한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매화	절개	사군자의 하나로 선비의 절개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상징한다.
2	대나무	절개	사군자
3	갈색 도자기의 파초잎	학문 정진	파초잎은 독학이나 학문 정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도교에서는 신선이 들고 다니는 부채이다.
4	장도	권위	대모 장식의 남성용 장도로 ¹⁹⁷⁾ 높은 신분의 사람만 지닐 수 있었다.

197) <그림 68>

이 책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은 보이지 않는데 조선 후기에는 장도를 남녀 모두가 장식품처럼 남성은 허리띠에, 여성은 가슴에 차고 다녔는데 호신용이라기보다 고려 때 몽고 문화의 영향으로 유행하게 되어 거울, 빗과 함께 3대 소지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쓰임새도 다양하여 과일을 깎거나 손톱이나 수염도 다듬었으며 손자의 팽이를 깎는 데도 사용하였고 젓가락을 끼우게 만든 것도 있어 휴대 용품의 역할을 하였다. 마무리 장식으로는 대모(玳瑁), 우골(牛骨), 상어껍질, 옥, 호박, 마노, 공작석 등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여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소지품이었다. 모양과 종류도 다양하고 남성 장도는 길이가 17cm~30cm 정도이고 여성 장도가 12cm~15cm 정도로 남성의 장도가 여성의 장도보다 길고 무거웠다. 198)이 책거리의 장도는 남성용 장도로 대모로 장식한 것으로 보아 높은 신분의 남성인 것으로 보인다. 199)

왼쪽 아래에 팔 시루떡이 있는데 떡시루에서 꺼내 정성스럽게 켜켜로 쌓은 팔 시루떡은 책거리에서 흔하지 않은 기물이다. <표 31>에서 팔 시루떡의 유래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표 31> <북한의 한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팔 시루떡	벽사	음력 10월에 지내는 상달고사(上月告祀床)를 살펴보면 상달인 음력10월에 좋은 날을 정해가신(家神)에게 지내는 상달고사를 위해 차린 고사상의 상차림을 보면 지역에 따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로 팔 시루떡과 맑은 물과 술이었다. 집안의

198) 정광용(1999). 앞의 논문, 26.

199) 최호 역(1994). 신역 삼국사기 2, 185.

<옥사>조에서 신라 진골 이하는 상을 대모·침향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기물	상징성	유래
			부녀자가 주관하며, 때로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그림 67>-상달 고사상 사진. ²⁰⁰⁾

팔 시루떡에 관하여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어 조선후기 사람들에게 팔 시루떡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큰 시루에 팔떡 구수한 향내
삼시간에 익으니 좋은 징조라
여인은 꿰어앉아 두 손을
가만가만 북 비는 소리 들리지 않네²⁰¹⁾

이 시에서 팔 시루떡은 북을 비는 대상이니 동지 팔죽처럼 나쁜 것을 막아 주는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구성과 풍차의 털의 세심한 표현으로 정교한 필력을 느낄 수 있는 책거리이다.

(9) <안동 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그림 69, 70>

이 책거리에는 갑옷과 창, 투구가 표현되어 있어 전쟁 중의 장군의 막사 같은 느낌이다. 왼쪽 위에 국화가 화분에 만개하여 있고 여의두문(如意頭紋)으로 장식한 햇대에 갑옷이 걸려있다. 그 아래 남성의 휴대용 화장갑이 놓여 있는데 그 옆쪽으로 걸이 대(臺)에 걸려있는 투구가 연꽃과 함께 있다. 오른쪽 위에는 책갑 위에 청화백자에 담긴 불수감 두 개와 유자 하나가 같이 놓여 있고 책갑 앞에는 바닥의 책갑 위에 던져져 있는 조끼 모

200) <그림 67>, 국립민속박물관.

201) 최영년(崔永年, 1856~1935), 海東竹枝.

(大甌香薰赤豆餅 霎時告熟吉徵生, 婦人雙手摩掌跪 世語難聞祝福聲)

양의 갑옷이 무심히 놓여 있다. 그리고 화면의 중간에 나무로 만든 창꽃이에 수직으로 화면을 분할하며 화려한 수술이 달린 창이 꽂혀있는 모습이다. 이 책거리에는 남성성을 가지기도 하고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상징 기물이 많이 보인다. <그림 69>에 나타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상징 기물들과 남성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들을 <표 32>와 <표 33>의 표에서 분석하였다.

<표 32>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기물	상징성	유래
1	국화	절개	사군자의 하나로 임금에 대한 절개를 표현
2	갑옷, 투구	충(忠)	무인의 책거리에서 전장에서의 충성심을 상징한다.
3	휴대용 남성 화장갑 ²⁰²⁾	권위	나전칠기로 된 남성의 휴대용 화장갑으로 안에는 거울, 빗, 귀이개, 상비약 등을 넣어 다녔다. 신분이 높거나 경제적 여유가 되는 소지품이었다.
4	창	충(忠) 남성	창은 정장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의미하기도 하고 주변 기물에 따라 남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위의 표에서 여의두문(如意頭紋)장식의 햇대에 걸려있는 갑옷은 갑옷의 종류 중 두정갑(頭釘甲)²⁰³⁾이라는 갑옷으로 놋쇠로 만든 못을 박아서 만든 갑옷이다. 평소의 행사에는 정장인 구군복(具軍服)²⁰⁴⁾차림으로 입다가 전장에 나갈 때는 그 위에 갑옷을 입었다. 이 책거리의 주인은 구군복 위

202) <그림 78>, <그림 79>, <그림 80>, <그림 81>

203) <그림 71>, <그림 74>

204) <그림 75>

에 헛대에 걸린 두정갑을 입고 그 위에 오른쪽 낮은 책갑 위의 조끼 모양의 방호갑(防護甲)²⁰⁵⁾을 입고 전장에 나갔을 것이다. 방호갑은 안에 두꺼운 첩판을 대서 만든 옷으로 조끼 앞면의 곁감과 안감의 사이에 두꺼운 첩갑을 대었다. 조끼를 여미는 앞부분에 늦쇠로 만든 여밈장식이 있는데 이 책거리에서는 여밈부분이 아래로 벗어두어 옆면만 살짝 보인다. 투구²⁰⁶⁾는 맨 위에 삼지창이 있고 보주가 보이고 긴 수술이 장식적 효과도 있고 소속도 표시하는 상모가 있는데 그 아래는 투구 머리통에서 튀어나온 갑철이 있고 옆드림, 뒷드림, 이마 가리개 등이 있다. 가운데 책갑과 국화와 헛대가 있는 공간을 분할하며 창이 수직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는 무기로서 전장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지만 민화적 의미에서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훼손되고 세 폭밖에 남지 않은 이 책거리 중 가운데 폭을 보면 장수가 들고 다니는 지휘봉 모양의 털이 달린 기물에서도 그렇듯이 갈수록 창이나 붓 등의 각도가 수직에 가까워지고 높이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창 종류는 장창, 죽장창, 죽창, 당파창, 삼지창, 낭선창(모, 극, 과, 삭) 등이 있다. 이 책거리의 창은 그 중에서 모(矛)라는 창으로 찌르는 날 부분과 당기는 갈고리가 하나 달린 것이다.²⁰⁷⁾ 이 책거리에서 길상과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 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여의두문 <small>208)</small>	만사여의	여의의 머리 부분만을 따로 떼어 도안화한 것으로 여기에 상서로운 기운을 담아서 여러모로 사용한다.
2	불수갑	기복	<표 12> 참고

205) <그림 76>

206) <그림 72>, <그림 73>

207) <그림 77>

	기물	상징성	유래
3	연꽃 ²⁰⁹⁾	탈속	연꽃은 예로부터 꽃 중의 군자라고 하여 순결과 탈속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책거리에서 연꽃의 뜻은 필요 없는 살생을 피하려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4	유자	다남	‘유자(有子)’의 뜻으로 쓰였다.
5	햇대의 용	벽사	동쪽을 지키는 사령(四靈) 중 하나로 전장에서 지켜주고 나쁜 것을 막아 주는 벽사의 의미로 쓰였다.

다남을 상징하는 과일 한 종류만 수북하게 담던 것과는 달리 복과 부를 상징하는 불수감과 다남을 상징하는 유자가 하나의 접시에 담겨있다. 어떤 책거리에는 세 가지 다남을 상징하는 과일이 한 그릇에 담겨있을 때도 있다. 이 책거리는 단정한 무인의 책거리로 임금을 향한 절개와 충성심이 표현되어 있고 남성성도 드러나는 책거리이다.

(10)〈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1〉-〈그림 82, 83〉

이 책거리는 화면의 구성이 왼쪽 위쪽으로 분채도자기 화분에 매화가 만개해 있고 새 한 쌍이 가지에 앉아있다. 그리고 지통에 두루마리 2점과 붓 2필, 편지봉투 하나가 꽂혀 있다. 매화 가지 아래에 책 한 권이 군청색의 책표지를 한 채 공중에 떠 있고 나란히 놓인 두 책갑 앞의 서안에는 짙은 녹색의 병과 먹으로 그린 대나무 백자 접시에 다남을 상징하기도 하고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가지 두 개가 담겨있다. 서안 아래에는 산딸기가 수북하게 그릇에 담겨있고, 오른쪽 아래에 조충이 위를 향해 서안에 기대어 세워져 있다. 책거리의 표현에 있어 초창기에는 학문에 대한 숭상과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구도와 표현 기물이 정형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새로운 기물들

208) 이훈중(1992). 앞의 책, 123.

209) 경기도 미술관(201). 앞의 도록, 169.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책거리에서 조총이 그런 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안 아래에 오목한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산딸기는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로 우리가 지금 딸기라고 부르는 양딸기와 달리 유럽 중부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에 전래된 것으로 여겨진다.²¹⁰⁾ 이러한 시간적인 제한으로 책거리에는 산딸기만 보인다. 임진왜란을 전후로 만들어진 조총을 중심으로 <그림 82>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상징기물들과 남성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들을 <표 34>와 <표 35>의 표에서 분석하였다.

<표 34>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조총 ²¹¹⁾	충성 남성성	임진왜란에 나타난 총으로 몇 해 전에 일본에서 보내온 것이었음에도 관심을 가지지않고 내버려 뒀다. 이순신 장군은 전장에서 노획하자마자 그것을 보고 만들었는데 대장간에서 두드려 만들었기 때문에 나선형의 라이플 같은 것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들여다보면 캄캄하여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총속 같다.’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2	매화	선비정신	<표 13> 참고
3	두루마리와 편지봉투	출세 과거급제	<표 13> 참고

210)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딸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7178

211) 이훈중(1992). 앞의 책, 515.

<그림 84>, <그림 85>, <그림 86>

이 책거리에선 조총이 가장 특징적인 기물이다. 조총에 대한 국내의 최초 연구는 1960년대 말 조선후기 군수광공업(軍需鑛工業)의 발전 양상에서 조총 제조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승주에서 시작되었다.²¹²⁾ 그는 조총 제조가 17세기 전반기 ‘各邑月課軍器法(각읍원과군기법)’에 따라 각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제작하던 것이 17세기 후반 각 군영 문에서 대규모 제조장을 설치하여 각 고을의 월과 조총, 화약 등을 방납(防納)하는 실태를 규명하였다. 16세기 말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화약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된 최초의 전쟁이었으며, 전쟁의 결과는 조선군에게 군사제도의 편성뿐만 아니라 기존 화살과 창을 중시하였던 무기체계의 개편을 가져왔다. 그 무기체계 개편은 화기(火器)가 중심이었으며, 조선후기 군병의 기본 화기가 조총으로 편성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발전 단계에 따른 다양한 모양을 가진 조총들이 있는데 이 책거리의 조총은 초기의 조총으로 보인다. 세워져 있는 각도는 창이 기물로 나온 책거리만큼이나 세워져 있어 수직 구도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 외에 길상과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5〉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산딸기	다남	〈표 11〉 참고
2	가지	다남	〈표 11〉 참고

여기서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이 산딸기와 가지임을 알 수 있는데 산딸기는 씨앗이 많은 넝쿨 식물이고 가지는 그 생김새에서 다남을 상징한다. 세워진 조총도 매화와 함께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성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남성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상징 기물이다.

212) 유승주(969). 조선후기 군수광공업의 발전: 조총문제를 중심으로. 史學志 3.

이 책거리는 조총이라는 특이하고 새로운 상징 기물로 인하여 책거리의 정형화된 기물에 활력을 주는 책거리이다. 남성젠더를 의미하는 면에서 보면 조총은 무인이 되려는 욕망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통에 꽂혀 있는 펼쳐진 두루마리와 편지봉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성리학적 남성젠더의 실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 여성책거리

(1)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책거리>-<그림 87, 88>

여성젠더는 그 역할이 생남과 다남이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계 혈통 중심의 가정을 위해서 절개와 지조에 대한 의무가 생겼다. 생남이나 다남은 성리학적 남성젠더와의 공동 과제였지만 절개나 지조의 의무는 여성에게만 주어진 성리학적 여성젠더였다. 이것은 책거리에서 장도나 꽃으로 표현되는데 하나씩 표현되기보다는 은장도가 지통에서 늘어져 있고 화병에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 꽂혀 있는 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모양은 책거리 절개의 기본적인 표현이 된다. 거기에다 다남의 패턴이 추가되기도 하여 여성젠더의 표현이 더 명확해진다.

앞의 북한 책거리인 <그림 66>에서 장도에 대한 서술이 있으나 부연하자면 장도란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고름에 늘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이 단검을 싸는 갑(鉞)의 재질에 따라 금장도, 은장도로 부르고 칼집이나 손잡이에 다양한 소재로 멋을 부렸는데 <그림 90>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집가는 딸이나 며느리에게 주게 되었고 열(烈)이 강조되면서 절개를 상징하는 기물의 하나가 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우리에게 익숙한 은장도로 서술하려 한다. 부연하자면 순절의 상징으로 은장도가 표현되는 경우 대부분이 은장도가 화면의 왼쪽 위에 자리한 필통이나 지통에 꽂혀 있거나, 화병에 꽂힌 여의의 끝에 걸려있고 은장도의 끝에 노리개를 달아 그 수술이 아래로 떨어지는 선을 그리며 표현되어 있다. 그런 형태로 배치된 은장도와 함께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이 놓여 있는데 은장도와 다산의 과일이 합쳐서 순혈(純血)의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 절개를 상징하는

꽃인 국화나 매화, 대나무가 더 그려져 은장도,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 모여 조합을 이루는데 이렇게 강조된 절개와 다산은 적장자(嫡長子) 생산과 다남에 대한 바람이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이제 성리학적 여성젠더가 표현되는 책거리를 분석하는데 있어 표의 형식을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여성 책거리가 수량적으로 너무 적고, 성리학적 여성젠더에 해당되는 내용이 절개와 다남으로 제한되어 그것을 상징하는 기물의 수량도 너무 적으므로 여성젠더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서가식 책거리의 경우는 많은 수량의 기물들로 그 책거리의 주제를 나타내었다. <그림 37>의 경우 모두 79개 기물들중에서 38개가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상징하고 있으나 <그림 87>의 경우는 모두 17개인 기물들 중에서 성리학적 여성젠더만을 상징하는 기물은 은장도와 국화 두 개밖에 없다. 하지만 그 두 개의 기물이 주는 강한 영향력은 <그림 37>의 서가식 책거리 기물들 중 다남을 포함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 38개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거리는 두루마리와 공작 꼬리 깃털이 꽂혀 있는 원통형의 지통과 책감을 채색할 때 아교배접(阿膠褙接)을 한 종이의 바탕색을 남겨 두고 연하게 바림하여 그림본(本)의 철선(鐵線)이 비치도록 하였다. 왼쪽에 있는 날권인 세 권의 책은 진채(眞彩)로 화려한 무늬를 넣어 색조를 밝게 올렸다.

그림의 왼쪽 위에서 지그재그로 세 개의 소재인 절개를 상징하는 은장도, 오른쪽 아래로 다남의 상징 석류가 백자화문대완(白瓷花紋大宛)에 담겨있고 다시 왼쪽 아래로 절개의 상징인 국화꽃 세 송이가 무늬와 색감이 현대적인 패턴의 화병에 꽂혀 있다. 그 외 지통에 꽂혀 있는 두루마리가 보인다. 가장 앞에 있는 석류를 담은 접시와 국화꽃을 꽂은 화병을 받치고 있는 접시는 백자 자기에 테두리에 문양을 넣었는데 백자의 분채 채색으로 원근감을 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책거리에서 은장도를 비롯한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과 여성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분석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36>과 <표 37>과 같다.

〈표 36〉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절개	은장도 ²¹³⁾	앞에서 서술하였듯 장도는 고려 때부터 남녀 모두의 소지품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의미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 책거리의 은장도는 ‘乙’자 형으로 길이가 10cm가 조금 넘는 여성용으로 보인다.
	꽃	국화
다남	과일	석류

〈표 37〉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성리학적 남성젠더
공작 꼬리 깃털과 산호 가지	최고의 벼슬	○
두루마리	출세	○

이 책거리를 성리학적 젠더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은장도를 쓸 각오로 국화처럼 절개를 잘 지켜 남편의 순수한 혈통을 받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많은 자식을 낳기를 바란다’일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소재들의 조합으로 강한 주제의식을 보여줘서 글을 모르는 여성에게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에게도 이 책거리의 메시지는 충분하고 선명하게 전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공작 꼬리 깃털이나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성리학적 남성젠더는 왜 같이 표현된 것일까를 추측해보면 이 책거리가 그려진 시기의 성리학적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여성에게는 사회생활이 허락되지 않았고 자아실현은 남편이나 아들을 통해서나

213) 〈그림 89〉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책거리에도 대부분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그림 91>

이 책거리에는 경상(傾床)의 왼쪽에 수(壽)와 만(卍)자가 쓰여진 지통이 있고 거기에 여의와 제갈공명의 부채인 백우선(白羽扇)이 꽂혀 있다. 그 뒤의 화려한 다채색도자기에는 국화로 보이는 꽃이 꽂혀 있다. 경상 바로 위에 화장도구들이 작은 사각 접시에 담겨있는데 그 옆에는 크기 순서로 오방색의 지함(紙函)이 크기 순서로 다섯 개가 포개어있고 그 위에 또 크기 순서로 다섯 개가 한 세트인 도자기가 포개어져 있다. 오른쪽에는 대나무 화분이 보이는데 경상 아래쪽에는 양금(洋琴)이 놓여 있다.

이 책거리에서 눈길을 끄는 기물은 화장도구와 5겹 지함과 5겹 도자기이다. 이러한 기물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과 여성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분석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38>과 <표 39>과 같다.

<표 38>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에 나타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절개	대나무
	국화
다남	5합 지함(地陷) 5겹 원형완(圓形碗)

<표 39>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성리학적 남성젠더
산호 가지	출세	○
부채(백우선) ²¹⁴⁾	성장, 번영	○

오합지함(五合紙函)은 다섯 개의 상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기 다른 크기이고, 같은 모양, 같은 무늬를 하고 있다<그림 93>. 일반적으로 삼합지함과 같이 많이 이용되었다. 오합지함(五合紙函)은 크기가 다른 5개로 구성된 한지 상자로, 종이만으로 만든 것은 대체로 하중(荷重)을 받지 않는 소형 기물인 짚지, 합, 반진고리, 빗집 등에 많이 이용되었고, 종이를 여러 겹 붙여 제작하였으며 삼태극(三太極)문양을 기본으로 하였다²¹⁵⁾. 필통, 등촉기구(燈燭器具), 방장(房帳), 자리, 방석, 반진고리, 빗집, 빗집고비, 소반, 합(盒), 함지, 향아리, 식지(食紙) 등 가정용 비품과 짚지, 안경집, 표주박, 화살통, 자라병옷, 부채, 우산 등의 휴대용품, 그리고 지의(紙衣, 油衫), 신, 갓모 등의 복식류, 지화(紙花), 지등(紙燈), 연(鳶) 등과 같은 연희나 의례용품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용품 전반에 고루 이용되었다. 종이공예의 재료는 닥종이로서 글씨를 연습한 종이나 책을 만들거나 방을 도배할 때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종이, 또는 못 쓰게 된 종이 또는 헌책 종이를 많이 이용하였고 소지(素紙)를 물들이거나 기름을 먹여 이용하였다. 기에 자연염료로 물들인 청(靑), 적(赤), 홍(紅), 황(黃), 녹(綠), 자색(紫色) 등의 바탕색에 맞추어 나비나 박쥐, 원앙, 쌍희[囍], 만(卍) 등의 길상문(吉祥文)을 오려 붙였다. 오봉도나 오방색 등 숫자 5는 조선 이전부터 남다른 의미가 되었던 만큼 오합지함(五合紙函)이나 5개의 도자기 세트가 5를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아마도 음양오행의 숫자 '5'가 반복되니 완벽함이나 많은 자식인 '다남'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오합지함은 외형적인 화려한 오방색으로 장식의 의미가 크고 황색원형반(黃色圓形盤)까지 합치면 10이 되기도 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크기는 오합지함의 제일 아래쪽 지함부터 제일 작은 황색원형반까지 통일감있게 연결되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기물들의 배치는 있는 물체를 그대로 묘사하는 정물화가 아닌 서민 화가나 수요자 양쪽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연출일 것이다.

그리고 화장도구들이 경상 위의 사각 접시에 진열되어 있는데 조선 시대 화장품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6년 남양주 화협옹주의

214) 이훈중(1992). 민족생활어 사전, 110.

거위의 흰 깃을 연이어서 만든 부채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항시 이것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孔明선(孔明扇)이라 하기도 한다.

215) <그림 94>

묘에서 청화백자합 10점, 분채(粉彩) 1점, 목제합 3점, 청동거울과 거울집, 목제 빗 등이 발견됐다<사진 92>. 화협옹주의 묘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화장품, 빗 등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도구가 많다.

화협옹주(和協翁主, 1733~1752)는 조선 제21대 임금인 영조와 후궁 영빈 이씨의 딸로, 사도세자의 친누나이며,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친고모다. 옹주는 어머니 영빈 이씨를 닮아 미색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만큼 치장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적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견돼 조선 시대 왕실 여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 자료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사진 92>와 흡사한 청화백자합과 분채(粉彩) 등이 보인다.

이 책거리에서 경상 아래에 양금(洋琴)이라는 풍류 악기가 있다. 일명 구라철사금(歐邏鐵絲琴)이라 불리며, 조선 영조 때 청나라에서 들어와 주로 민간의 정악 연주에 사용되었다. 사다리 모양의 판면(板面) 위에 두 개의 긴 패를 세로로 질러 고정시키고 패 위에 14줄을 가로로 얹은 다음, 대나무를 깎아 만든 가는 채로 줄을 때려서 맑은 금속성의 소리가 나는 현악기이다. 이 책거리에 대나무 채도 그려져 있고 열려있는 뚜껑도 보인다. 몸통은 오동나무 판을 사용해 상자 모양으로 짜서 만들고, 줄은 중국산의 주석과 철의 합금을 상품으로 친다. 보관할 때 줄을 보호하기 위해 뚜껑을 만들어 덮는데, 연주할 때에는 이 뚜껑을 양금의 몸통 아래에 깔기도 한다. 뚜껑도 역시 오동나무로 만드는데 풍류방에서 정악 연주 악기로 사용되었다. 지금도 「영산회상」의 연주와 가곡 반주에 사용되고 있고 거문고보다 음색이 여성적이어서 단소와의 합주로 많이 연주되고 있는 현악기이다.²¹⁶⁾

경상 가운데 놓인 화장도구를 담은 사각 접시는 여성스러운 소리의 양금보다 훨씬 더 여성성을 나타내는 기물이다. 이 화장도구들로 이 방이 여성의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하는 사람이 있는 부유한 사대부 집안이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가족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손수 해야 한다는 여성의 의무에 의해, 재단한 솔기를 다 뜯어 빨아서 다시 바느질해서 붙이고 다려야 하는 한복의 관리방법을 예

216)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양금(洋琴))

를 들지 않아도 그 당시 여성에게 화장을 한다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3) <개인 소장 책거리 1>-<그림 95, 96>

이 책거리는 왼쪽 윗부분의 둥근 목각 지통(紙筒)에 여의가 꽃혀 있고 그 여의 끝에 옥 노리개가 달린 은장도가 있고 장미인 장춘화와 두루마리, 접선, 편지봉투가 꽃혀 있다. 장미는 월계화(月季花)라고도 하고 장춘화(長春花)라고도 부르는데 영원한 젊음을 뜻하기도 하고 일 년 사계절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는 꽃이다. 아래에 사각문병(四角紋瓶)이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옆의 벼루에는 글을 쓰다 만 듯 붓이 벼루 구석에 기대어 세워져 있다. 이 책거리에서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과 여성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0> <개인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 분석

절개	은장도
다남	석류

<표 41> <개인 소장 책거리 1>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과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성리학적 남성젠더
장춘화	길상, 사계평안(四季平安)	·
여의	길상, 만사여의	·
부채(摺扇)	권위, 높은 벼슬	○
편지봉투	과거급제, 출세	○
붓, 벼루	과거급제	○

이 책거리는 전체적으로 절개를 잘 지켜 다남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여 만사여의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평범하지만 그래서 고착화된 성리학적 사고가 담겨있는 책거리이다. 채색방법은 <그림 88>처럼 책갑의 옆면 등에 연하게 채색하여 종이의 본래 바탕색과 본의 선을 살렸다. 서양식 원근법에 맞지 않는 다시점의 구도와 사각문병을 놓아둔 서안은 책 위에 올려져 있는데 네 다리가 올려진 것 같기도 하고 내려진 것 같기도 해서 애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나 서안의 앞다리 끝과 받치고 있는 책의 끝부분을 맞추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다. 이 책거리는 서양식 원근법의 묘사가 잘되지 않아서 보는 재미도 있는데 오히려 서민 화가의 전통적 시점으로 그려 어색함 없이 현대적이다.

3) 인물이 등장하는 책거리와 그 의미

책거리는 ‘책과 기물들을 그린 정물화’로 시작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인물이 등장하는 책거리도 있어 따로 모아 분석하고자 한다. 장식적인 기능과 실용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책거리는 병풍의 형태로 각 방에 펼쳐져 있기도 하고 대청마루의 구석진 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마루와 부엌 사이의 벽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집안에 들어온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다. 반면에 사랑방이나 안방, 자녀의 방에 붙어 있는 책거리는 그 방 주인이 계속 반복하여 볼 수밖에 없어서 간절하게 바라던 것을 이루어 준다는 길상적인 의미와 미적인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책거리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길상적 기물들과 함께 등장인물이 있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여 과거에 급제하여야 한다고 계속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보다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동자를 성공을 상징하는 기물과 함께 책거리 가운데 그려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며느리나 딸에게 여자에게 정조(貞操)는 목숨과 같은 것이니 잘 지켜서 시집가서 다남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실천하고 있는 여인을 그려 넣은 책거리를 며느리나 딸의 방에다 걸어두는 것이 훨씬 더 실천적인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다

음의 세 개의 책거리를 남녀젠더의 실천적 의미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회화적인 면에서 인물이 묘사된 책거리는 책거리와 풍속화가 더해진 느낌을 주는 면이 있기도 하다.

(1) <개인 소장 책거리 2>-<그림 97>

이 책거리는 화면의 가운데 한 여인이 앉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앞에는 수박이 씨앗이 다 보이게 잘려져 있는데 은장도가 수박에 꽂혀 있다. 수박과 은장도를 분리하지 않음으로 하여 다남 또는 생남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화병의 용도로 모란 한 송이가 꽂혀 있고 부귀영화(富貴榮華)의 의미이다. 또 하나는 수박의 잘린 껍질 위에 올려져 있다. 잘라 놓은 수박 윗부분은 밑부분에 비해서 크기가 비현실적으로 작게 표현되어 있는데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수박의 씨앗이 있는 부분도 보이고 싶고, 병을 놓으려니 공간도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에는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천으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펼쳐서 묶여있고 오봉필산(五峰筆山)도 같이 있다. 이러한 기물들을 분석하여 분류하면 다음의 표들과 같다.

<표 42> <개인 소장 책거리 2>에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절개	은장도	절개일 수도 있지만 이 책거리에서는 은장도로 수박을 자르는 행위로 인하여 생남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남	수박	

이 책거리에서 여성젠더에 대한 분석은 다소곳이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절개와 지조를 잘 지켜 다남하고 출세하여 평안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기물들이 대부분 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제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표 43〉 <개인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여성젠더적 특징이 없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성리학적 남성젠더
붓	출세 남성성	왼쪽 책갑 위에 네 개의 붓들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과거급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성성도 표현한다.
모란	부귀영화	.
두루마리 편지봉투 오봉필산	과거급제, 출세	○

이 책거리는 다남에 대한 바람을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여성을 그려 넣었는데 이 여성은 삼신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젊은 여성이므로 다남이나 생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당사자로 볼 수 있겠다. 이 책거리의 주제처럼 다남을 기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도 무방한데 이 여성의 자세나 매무새로 보아 이 그림의 여성처럼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책거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선도 젊게 그려지기도 하니 아들을 점지해주는 삼신할머니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전체적으로 다남하여 자손만대에 걸쳐 번성하기를 바라는 주제로 그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그려져 있다 할 것이다.

(2)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2>-<그림 98, 99>

이 책거리에는 4쪽이 같은 밀집식 책거리 구도에 S자의 파초앞이나 꽃가지를 하나 더 붙여 감각적이고 세련된 구도를 완성하였다. 분명히 사각의 탁자였을 것임에도 모든 사물이 올려놓은 탁자는 몇 개의 모서리를 가졌는지 예측할 수 없고 다리 부분이 지워져 희미한 자국만 남아있다. 책갑은 아무런 규칙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가운데 자리한 병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세 사람이 책으로 만든 집에 책갑이 창문인 듯 기대어 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 나이를 보면 왼쪽 아래는 「백동자도」의 가운데 가르

마를 타고 양쪽으로 뿔은 동자의 머리를 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의 남성은 청장년의 나이로 보인다. 오른쪽 위의 남성은 얼굴의 주름으로 노년의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책거리의 오른쪽에는 책의 산보다 더 키 큰 파초 나무의 긴 잎이 S자 곡선을 그리면서 멋스러움을 더하고 화면 맨 위의 책 갑 위에는 참외 다섯 개가 안과 밖이 다른 호분색(胡粉色)과 홍지분채색(紅地粉彩色)으로 채색된 접시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책거리의 화면 위 아래에 홍색의 당초무늬를 추상화한 선으로 메꾸어 현대적이면서 색감이 화려해졌다. 이 책거리에 나타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과 길상과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들과 같다.

〈표 44〉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기물	상징성	유래
1	파초잎	학문정진 독학	양우(仰友), 파초의 푸르름 속에서 군자의 기상을 찾았으며 책거리에서 격조 있는 기물이다.

〈표 45〉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2〉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참외	다남	씨앗이 많은 넝쿨 식물 중 하나이다.
2	병 ²¹⁷⁾	만사평안 길상	〈표 26〉참고

이 책거리는 파초잎이 아니더라도 세 사람이 학문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을 준다. 세 사람의 나이로 볼 때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일생 동안 학문에 정진하며 사는 실천적 성리학을 강조한 것 같다. 그래도 다남에 대한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상기시키면서 자손만대까지 가문이 끊어

217) 임영주(2004).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주)대원사, 158-159.

지지 않고 번성하기를 바람이 느껴지는데 독특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구도와 몇 가지 되지 않는 색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구도와 색을 구현하였다.

(3) 〈개인 소장 책거리 3〉-〈그림 100, 101〉

이 책거리는 네 개의 모서리에 완자(卍字)살²¹⁸⁾이 그려져 있다. 이 완자살 무늬는 화려하여 온돌방 창호 중 안방의 창호에 많이 쓰이던 무늬이다. 이 책거리의 특징은 밀집식 유형으로 구도를 잡아 기물들을 배치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기물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많다. 먼저 다남에 대한 기물들을 보면 국화무늬가 그려진 포복 사각국화문병(四角菊花紋甁)에 여의가 청색 천으로 묶여있고 그 여의의 끝에 대모 장도가 늘어져 있다. 사각국화문병 옆에는 가지가 청화백자 접시에 담겨있고 왼쪽 위에 있는 팔각형의 지통에는 접선과 투명한 비단 주머니에 색색의 향(香) 구슬이 담긴 선추가 밖으로 늘어져 있다. 지통에는 접선 말고도 두루마리와 큰 붓, 색색의 털로 만든 갓 솔이 있다. 지통 앞에는 양금이 놓여 있고 옆의 두 점의 포복 도자기 사이에는 두루마리와 방구 부채라고 부르는 단선(團扇)이 자리하고 있는데 왼쪽 아래에 벼루와 두꺼비 모양의 연적이 있고 또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있다. 아래쪽 가운데 한 동자가 서안 앞에 앉아 자신의 몸통만큼 큰 책을 읽고 있다. 가장 오른쪽 위의 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이고 가지에 매달린 국화형반이 안쪽은 붉은색으로, 바깥쪽은 짙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갓의 먼지를 털어 내는 용도로 쓰는 갓 솔과 나뭇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포복 도자기를 받치고 있는 책장의 옆면에는 학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책을 쌓아두었다.

책거리에 자주 나오는 부채는 미선이나 오엽선(梧葉扇), 백우선, 접선이 있다. 접선에는 합죽선을 으뜸으로 하는데 부채살 하나하나를 얇은 대쪽으로 양쪽에서 맞붙여 만든 아주 정교한 부채이다. 50죽이라 하여 살이 50개나 되는 것도 있는데 살이 많을수록 고급으로 치며, 걸살에 대는 대뿌리도 마디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다. 부채 끝에 달린 끈 끝에 매다는 장식인 선추를 다는데 여러 가지 값진 것들로 장식이 되기도 하고 흔히는 향을 넣어 향낭을 달아 여름철에 땀 냄새를 막았다. 선추 속에 자석을 장

218) 임영주. 위의 책, 250.

치하여 한 방향을 보게 한 것도 있고 구급약을 굳혀 만들어 필요한 때 갈아내어 쓰게 한 것도 보인다.²¹⁹⁾ 신분에 따라 제약도 심해서 왕족은 50개 속살, 사대부 이상은 38개 속살을 쓸 수 있었으며 그 이하는 살 수가 낮았고 평민은 칠접선 이나 합죽선 같은 고급 접선을 쓰지 못해 일반 접선을 이용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한 자는 고리에 부채 전용 노리개인 선추를 달지 못했다.²²⁰⁾ 이 책거리에서는 선추의 매듭은 간결한 대신 향낭의 색이 화려하고 고운데 이것은 금관조복을 입을 때 차는 패옥 모양을 본떠 발처럼 드리우게 만든 발향(發香)이라 부른다. <그림 33>는 왼쪽부터 원통형 선추 (혹은 침통), 초혜집(이쭈시개나 귀이개 등을 넣음) 선추, 인장 선추, 도장집 선추이다. 이 책거리의 기물들에서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과 다른 기물들을 <표 46>과 <표 47>에서 정리하였다.

<표 46> <개인 소장 책거리 3>에서 다남을 나타내는 기물분석

다남	가지	다남
----	----	----

<표 47> <개인 소장 책거리 3>에 나타난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성리학적 남성젠더
여의	만사여의	.
학	장수	.
모란	부귀영화	.
양금(양금)	풍류	○

219) 이훈중(1992). 앞의 책, 108-110.

220) <https://namu.wiki/w/%EC%84%A0%EC%B6%94>

이 책거리는 부모의 바람이 많이 표현되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벼슬을 하고 다남하고 부귀영화와 풍류도 누리면서 장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책거리와 같은 주제이지만 표현에 있어 다른 점은 16개의 많은 두루마리의 개수와 책이나 책갑들이 동자보다 크게 그림으로써 과거급제와 출세를 해야 하는 남성젠더에 대한 중요성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그런 만큼 과거 급제와 출세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책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4) 남녀젠더가 조화로운 책거리

(1)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그림 102, 103>

이 책거리에는 책갑이 쌓아진 위에 백록색의 연화문(蓮花紋)이 그려진 화병에 모란꽃과 가지가 화면 상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꽃혀 있다. 같은 종류의 연화문이 그려진 책갑 세 개가 쌓여있고 그 위에 금계(金鷄) 한 쌍이 양쪽에 앉아있다. 왼쪽의 암컷은 책갑 위에 앉아 반대쪽의 수컷을 바라보고 있고 오른쪽의 수컷은 햇대에 앉아 암컷 쪽으로 머리를 아래로 하여 있다. 책갑이 놓인 서안은 테두리가 홍색의 당초(唐草)무늬로 장식되어 있는데 서안 아래 양쪽을 다리 옆쪽을 막아 대모(玳瑁)로 장식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맨 아래 다남을 상징하는 참외가 적·황·청의 세 가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화병의 목이나 참외를 담은 홍지분채완((紅地粉彩碗)의 테두리에도 연주문(連珠紋)이 그려져 있다. 이 책거리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기물	상징성	유래
1	금계 ²²¹⁾ <그림 106>	입신출세 부귀공명	맑은 현실의 재앙을 막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길상·벽사의 염원 등 다양한 뜻을 상징한다.

	기물	상징성	유래
			길조(吉鳥)로서 광명, 벽사, 출세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2	대모(玳瑁) 장식의 서안	성공한 사대부(富)	대모는 워낙 고가라서 남성의 장도나 서재의 필자, 안경테, 손거울 정도로 작은 면에 쓰이던 장식용 부재료였다. 거기 비하여 서안의 아래 옆면은 많은 양의 대모가 소용되었을 것이므로 성공한 사대부의 물건으로 짐작된다.
2	연화문	군자	연화문을 책갑의 무늬로 그려 넣은 것이 눈에 띈다. 화병에도 그렸는데 두루마리나 붓, 벼루, 먹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책거리에서는 그런 기물들을 대체하는 군자의 꽃으로 분석하였다. 연꽃은 '다남'과 '연생귀자(延生貴子)'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 책거리에 중요한 상징 기물은 금계이다. 모양은 작은 꿩을 닮았고 가슴의 깃털 색은 공작의 날개를 닮았는데 수컷의 날개털은 현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중국에서 닭은 '태양새'를 상징하였다. 먼저 닭은 생활 가까이

221) 금계 [golden pheasant, 金鷄] (두산백과)

날개 길이는 수컷 약 20cm, 암컷 약 18cm이다. 빛깔이나 모양·크기가 꿩과 비슷하다. 수컷의 꽁지는 매우 길어 60cm 에 이른다. 머리의 장식 깃과 허리가 광택이 나는 황금색을 띠므로 금계라고 한다. 뒷목에는 누런 갈색과 짙은 녹색의 장식 깃이 있으며 번식기에는 이것을 펴고 구애 행동을 한다. 사육법은 닭과 같다. 번식이 쉽고 추위에 강해서 흔히 동물원에서 사육한다. 번식기는 봄철인데 1년에 20~30개의 알을 낳는다. <그림 48> 참고.

에 있는 친근한 동물이지만 때로는 경외감으로 가득 찬 상상의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전령(傳令)'으로서 닭이 울면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다가온다. 밤새 활개 치던 온갖 잡귀들은 닭이 우는 순간 사라진다. 이런 믿음 때문에 민속신앙에서 닭은 잡귀를 쫓고 밝은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상서롭고 신비로운 길조로 여겼다. 중국 노(魯)나라 애공(哀公) 때 전요(田饒)는 닭이 가진 '다섯 가지 덕(德)'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머리에 관을 쓴 것은 문(文)이요,
 발에 갈퀴를 가진 것은 무(武)요,
 적에 맞서서 감투하는 것은 용(勇)이요,
 먹을 것을 보고 서로 부르는 것은 인(仁)이요,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알리는 것은 신(信)이다.

이처럼 닭은 문(文)·무(武)·용(勇)·인(仁)·신(信)의 다섯 가지 덕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고귀존영(高貴尊榮)의 상징으로도 애호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교적 인간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상(五常)을 닭이 지닌 덕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오상이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즉 사랑·정의·예절·지혜·민음을 말한다. 서로 불러 먹이를 함께 취하는 인(仁),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의(義), 머리 위에 항상 뿔(관)을 달고 있어 예의가 바르므로 예(禮), 항상 주위를 경계하여 지켜 내니 지(智), 아침마다 어김없이 때를 알리니 신(信)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닭이 지닌 덕성이 성리학의 핵심적인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여겨 성리학적 인간을 형성하는 데 귀감으로 삼을 만한 대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닭이 한 마리만 등장하는 그림은 벽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림으로 본다.²²²⁾ 직접 종이나 비단에 그려 채색하거나 목판으로 찍어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벽사용 닭 그림은 전통적으로 호랑이 그림과 함께 정초에 벽사초복(僻事招福)의 염원을 담아 대문이나 집 안에 붙였던 세화의 일종으로 직접 그리거나 목판으로 찍어서 사용하였다.²²³⁾ 수탉이 울면

222) <그림 104>

동이 트고, 동이 트면 광명을 두려워하는 잡귀가 모두 도망친다는 믿음이 담긴 그림이다. 이러한 믿음은 닭의 형상이나, 심지어 피 등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풍습을 낳기도 했다. 가회민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부적 가운데도 닭 부적을 볼 수 있는데 ²²⁴⁾그중에는 목판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 이로 미루어 닭 부적을 다량으로 찍어 서민 가옥의 곳곳에 붙여 두고 벽사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책거리에 나오는 수탉의 붉은 벼은 그 이름이나 생김새가 ‘벼슬’과 통하므로 벼슬을 얻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닭은 입신출세와 부귀공명(富貴功名)을 상징했기 때문에 학문과 벼슬에 뜻을 둔 사람은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닭 그림을 가까운 곳에 붙였다. 벽사를 상징하는 외에 수탉이 한 마리만 목을 쳐들고 우는 모습이 등장하는 그림은 ‘공명도(功名圖)’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장닭이 크게 우는 그림을 뜻하는 ‘공계명(公鷄鳴)’을 줄인 ‘공명(公鳴)’이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친다’는 의미의 ‘공명(功名)’과 음이 같은 데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장닭이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크게 우는 그림은 입신과 출세를 기원한다는 뜻을 가진 그림이었다.²²⁵⁾ 이 책거리에 나타난 길상과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모란	부귀영화	<표 12> 참고
2	참외	다남	참외는 씨앗이 많은 넝쿨 식물로 다남을 상징하는 과일이다. 이 책거리에서는 기존의 연한 녹색의 개구리참외 같은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색감의 변화를 주어 흥·청·황의 세

223) <그림 105>

224) <그림 106>

225) 윤열수(2012). 윤열수의 문화재 이야기 - 닭 ‘빛의 전령사’ 金鷄. 월간 조선 8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nNews Numb=201208100050>

	기물	상징성	유래
			가지로 채색하고 참외가 담겨있는 그릇까지 홍색으로 채색하여 조화로우면서도 산뜻하 다.

이 책거리의 구도는 아래의 삼각형과 모란 꽃가지가 펼쳐 만드는 위의 역삼각형이 화병으로 연결된 수직형 구도의 변형이다. 가운데 부분은 수컷 금계의 몸통과 꼬리 깃털로 빈 곳을 채워주어 불안정하지 않으면서 역동적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모란의 꽃가지가 주는 단조로움을 난초잎처럼 생긴 긴 이파리로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위쪽은 청색 채색이 모란의 꽃잎과 금계의 꼬리 부분에 되어 있고 아래쪽은 청색 채색이 되지 않아 몇 개 되지 않은 단순한 색들만 가지고도 색감이나 구도가 좋은 책거리가 그려졌다. 책갑의 묘사를 보면 아래의 두 개의 책갑이 놓여 있는 모양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서양식 원근법을 정식으로 습득하지 못한 서민 작가의 그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민화의 매력이기도 하다.

(2)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그림 109~114>

조선후기 다남이나 생남의 문제는 남성젠더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남성의 입장에서 첩이 낳은 자식은 서얼로 철저하게 사회 진출이 제한되고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성리학적 가정을 만드는 데는 의미가 없었다. 양자를 들일 경우는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면 상속이나 봉제사에서 여러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장자(嫡長子)를 낳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조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일이었다.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는 영물을 등장시켜 하늘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아주 귀한 자식이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책거리이다.

이 책거리는 모두 10폭 정도의 병풍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7폭만 남아있

다. 이 책거리 병풍은 특별한 생남에 대한 바람으로 기물들의 수가 적고 특별한 기물이 없어 따로 표를 만들지 않고 짝이 맞는 네 개의 책거리에 대하여 따로 분석하였다.

첫 폭인 <그림 110>에는 용과 두꺼비가 책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민화 책거리의 특징인 창의적인 구성과 자유로움이 잘 표현된 책거리이다. 자세히 보면 용의 수염과 두꺼비의 더듬이가 연결되어 영물(靈物)인 용과 두꺼비(蝦蟆)가 접신(接身) 중이다. 용의 상징은 크게 네 가지로 성취, 벽사, 수호, 권위로 나눌 수 있다. 우순풍조(雨順風潮)를 주관하는 용신이기도 하고 성인의 탄생 등 미래를 예시하기도 하지만²²⁶⁾ 최고의 권위를 상징한다. 두꺼비는 도교에서 나오는 유해(劉海)가 데리고 다니는 다리가 셋인 두꺼비로 집지킴과 재물을 상징한다.²²⁷⁾ 다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구름 속에 가리어진 다리 부분과 다른 <하마선인도(蝦蟆仙人圖)>²²⁸⁾의 다리 부분의 그림은 선이 매우 유사하다. 두꺼비는 남지(藍地)와 홍지(紅地) 분채 술잔과 잔 받침으로 된 세트의 술잔에서 나왔다. 그 아래 골패놀이²²⁹⁾를 하고 있었던 듯 골패들이 보인다. 책갑에는 부분적으로 ‘~子 券之六’이라는 글이 보인다. 공자인지 맹자인지 잘 보이지 않아도 고문(古文)으로 보인다.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용과 재물을 상징하는 두꺼비의 기를 품고 태어난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상상하며 만든 구도와 소재일 것이다.

<그림 109>에서 여섯 번째 폭과 일곱 번째 폭은 봉황과 꿩으로 한 폭씩만 남겨져 있다. 아래쪽의 <그림 111>, <그림 112>는 한 쌍의 학이고 <그림 113>, <그림 114>는 한 쌍의 공작인 것으로 보아 병풍은 짝수로 제작되고 용·두꺼비, 봉황, 공작이 하나씩 더 있다면 10폭 병풍으로 추정된다

아래쪽의 <그림 111>, <그림 112>, <그림 113>, <그림 114>는 두 폭씩 세트로 학과 공작의 암수 한 쌍이 서로 마주 보면서 짝짓기 춤을 추고 있는데 눈빛이나 몸동작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 쌍의 학을 표현한

226) 허균(2018). 한국인의 용 관념과 표현방식, 국립해양박물관 2018년 기획전시 도록, 170-181.

227) 노자키 세이킨 저, 변영섭, 안영길 역(2011). 앞의 책.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603-606.

228) <그림 115>

229) <그림 116>

을 <그림 111>, <그림 112>을 보면 <그림 111>은 청학으로 매화 나뭇가지에 여자 남바위가 걸려있고 장죽 두 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그림 112>의 청학을 쳐다보고 있는 백학의 책거리에는 남자 남바위와 안경집, 휴대용 먹물 통이 걸려있어 두 젠더가 각각 표현된 한 세트의 책거리임을 알 수 있다.²³⁰⁾ 백학의 책거리에는 여의에 왼쪽에 있는 참외가 자손이 만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다남을 바라는 상징 기물들이다. 이 책거리는 두 폭이 한 쌍의 학을 표현하였으므로 하나의 표에 기물들을 같이 분석하였다.

〈표 50〉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1, 112〉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안경집	권위. 남성
장죽	권위. 남성

〈표 51〉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1, 112〉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남녀의 남바위	남성성, 여성성
남성의 장도	남성성

230)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卷1. 태종 8年 5月 .丁卯.

황엄(黃儼) 등이 금강산(金剛山)에서 돌아왔다. 황엄 등이 전하(殿下)의 출영(出迎)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양주(楊州)로부터 말을 달려 태평관(太平館)에 들어갔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 문위(問慰)하였다. 황엄 등이 금강산에 이르러 공중(空中)을 우러러보니, 오색(五色)구름이 흩어져 꽃이 되어 날아 내려오고, 또 백학(白鶴)과 청학(靑鶴)이 산중(山中)에서 날며 춤을 추었다. 이에 종자(從者)에게 경계하여 소찬(素餐)을 먹게 하고 살생(殺生)하지 말게 하였다.

이 책거리에서 젠더와 단순히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표현하는 기물들을 앞에서 정리하였고 다남을 표현하는 기물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2〉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1, 112〉에 나타난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

참외	씨앗이 많은 넝쿨식물
연꽃	연생귀자(延生貴子)

공작을 그린 〈그림 113〉, 〈그림 114〉에서 〈그림 113〉의 수컷 공작의 책거리에는 번식기에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펼친다는 꼬리 깃털의 마름모 모양과 파초 순이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수컷 공작이 앉아있는 나뭇가지에는 한 쌍의 작은 새가 나란히 앉아있어 부부화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4〉에는 암컷 공작새가 여성을 상징하는 복숭아와 젊음을 상징하는 장춘화와 더불어 수컷을 마주 바라보고 있다. 포복 도자기에 장춘화가 꽃혀 있고 지통에서는 접선의 선추가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대부분의 다른 책거리는 길조인 봉황이나 학 등이 한 폭 안에 짝수로 그려지는 경우는 흔하지만, 다른 두 폭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표현된 그림은 드물다.

〈표 53〉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3, 114〉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접선	귀한 신분, 출세
----	-----------

〈표 54〉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폭 책거리〉 중 〈그림 113, 114〉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파초	남성성

한 쌍의 새	부부화합
복숭아	직관적 여성성
장춘화	청춘

용이나 두꺼비의 꿈을 꾸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는 민간 속설처럼 아들을 많이 낳아서 출세시키려는 현실적인 욕망과 함께, 모든 폭들이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학, 공작, 꿩, 봉황 등의 암수가 2폭씩 짝을 이루어 ‘특별한 생남(生男)’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하는 기물이 많다. 복숭아는 장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직관적인 여성성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풍은 짝수로 제작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첫 번째 분석한 용과 두꺼비의 짝인 나머지 한 폭도 있었을 것인데 그 폭에는 어떤 상상의 조합이 그려져 있을지 생각할 여지를 주는 책거리이다. 이 책거리는 다남이나 생남의 주제에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귀한 자손을 바라는 남성과 여성의 젠더를 동시에 보여주는 책거리이다.

5) 탈(脫)성리학적 표현

(1) <온양민속박물관 책거리>-<그림 117>

이 책거리는 온양민속박물관에 있는 한 폭의 책거리로 남성과 여성의 기물들의 강한 대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박, 석류, 참외, 가지 등 온갖 과일들로 다남이 빠지지 않는 다른 책거리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남녀의 애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책거리로 호피 병풍이 쳐져 있는 남성의 방의 햇대에 단정하게 걸려있는 옷가지들은 이 책거리만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녀의 젠더를 성리학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표현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있는 책거리이다.

성리학에서 남녀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예의를 지키며 살았는지 이덕무의 『사소절 6(士小節 六)』의 부의(婦儀)의 내용 중 동지(動止)편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장부가 안방을 좋아하는 것도 역시 부인의 수치이다. 아내가 교만 방자해지게 되는 것은 모두 장부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이르기를 “맹자의 아내가 어느 날 혼자 있으면서 걸터앉아 있었다. 맹자는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아내가 무례하니 버리겠습니다’라고 아뢰자, 그 어머니는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네가 무례한 것이지, 아내가 무례한 것이 아니다. 『예기』에 문에 들어서려 할 때나 당(堂)에 올라가려 할 때 반드시 인기척을 하고, 방문에 들어가려 할 때는 시선을 반드시 아래로 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남이 몸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을 때를 엄습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너는 아내의 사처(私處)로 가서 방문에 들어갈 때 인기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을 그대로 걸터앉아 있게 하고서 보았으니, 이것은 네가 무례한 것이지, 아내가 무례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래서 맹자는 자신을 책망하고 감히 아내를 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부부 사이의 일상생활 규범을 생각하면 이 책거리는 어쩌면 숨통이 트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글 소설들의 일부 소설에서 상류층의 남자주인공의 여주인공에 대한 감정표현은 이러한 탈성리학적 신분을 초월한책거리의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책거리는 호피 병풍이 있고 햇대에는 겨울 털옷들이 잘 접어진 채로 걸려있는데 중앙의 넓은 부분을 자리하고 있으며, 햇대의 끝은 용머리로 장식되어 있다. 호피 병풍과 바닥의 투박한 생활 도구들을 볼 때, 남성의 방으로 보인다. 서안의 아래에는 선물인 듯, 보석인 호박으로 만든 꽃 모양의 장식이 있는 화려한 붉은 함이 있고, 그것 말고는 단순한 여러 개의 생활 용구들이 보이는데 붉게 달아오른 화로와 뚜껑이 있는 요강이 보인다. 그 밖에 조그만 병과 양치용 소금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뚜껑이 달린 합, 네 발 받침이 있는 옆면에 동그란 손잡이가 달려 있는 타구로 보이는 그릇이 있어 사랑방의 간단한 생활 도구들을 볼 수 있다. 오른쪽 구

석에는 거문고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는 장미인 장춘화(長春花)²³¹⁾가 그려져 있다. 이 책거리는 전체적인 색채가 오방색 중 상생의 색 조합인 청과 황을 주로 사용하여 분위기가 환하다.

이 책거리에서 대표적인 남성의 기물들을 찾아보면 햇대에 걸어 둔 푸른 빛의 털옷, 용, 호피, 거문고, 서책인 『고문진보』를 들 수 있겠다. 용머리나 호피로 강해 보이지만 군자표변이라는 말처럼 문사를 의미할 수도 있는 시와 음악을 즐기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여성적 요소로는 옷가지들의 여성스러운 색상과 단정히 접어 걸어둔 모습, 변함없이 젊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춘화와 복숭아를 들 수 있겠다. 복숭아는 장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있는 따뜻한 방, 벗어 놓은 여성의 겂옷들, 선물로 준 아름다운 붉은색의 함, 같이 쓰는 요강으로 상황은 충분히 표현되었다. 이러한 남녀의 기물들의 강한 대비를 보여 줌으로써 생동감을 주는 책거리이다.

이 책거리는 남성의 방이라 여성의 기물이라고는 햇대에 걸린 여성의 옷밖에 없어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55> <온양민속박물관 책거리>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 분석

기물	상징성
거문고	선비의 풍류
호피	군자표변(君子彪變), 선비정신
고문진보(古文眞寶)	고문에서 모은 좋은 글을 실은 책. 선비정신

<그림 117>에서는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은 옷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책거리에서는 남녀 간의 감성적 관계에서는 신분과 남녀차별이 역전될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젠더 간의 자유로운 관계, 즉 자유의 가치가 상상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의의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 이 책거리에서

231) 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길 역, 앞의 책, 608..

발견된다. 특히 헛대에 남녀의 옷가지가 걸려있다는 사실은, 남녀의 위계적인 젠더를 표현하는 남녀의 기물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남녀 젠더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유추할 수 있다.

〈표 56〉 〈온양민속박물관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용머리 헛대	벽사
복숭아	청춘
장춘화	청춘

이는 19세기 말부터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공업의 발달과 이양법의 발달로 부농과 수공업자의 등장, 유통경제의 발달과 화폐사용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신분제의 변동과 농민항쟁, 한글 소설의 유행 등의 요인들로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성리학적인 이념의 실천에 대한 의지가 떨어져 갔던 분위기의 결과일 것이다.

(2)〈프랑스 기메박물관 2쪽 책거리〉-〈그림 118, 119〉

이 책거리는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있는 2쪽짜리 책거리로 전체적인 안정적인 색감이나 묘사가 세련되고 세밀하다. 〈그림 117〉의 〈온양민속박물관 책거리〉가 남성의 방이라면 이 책거리는 여성의 방이 배경이다. 그리고 배경은 다르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참외나 은행으로 다남에 대한 바람이 첨가되어 있어 성리학적 남녀젠더인 다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118〉 화면의 왼쪽 윗부분의 괴석과 참외와 석죽화는 다른 책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본²³²⁾이라 화면의 구성에 필요해서 그린 것일 수도 있어 다남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책거리에서 남성의 물건을 보면 아무렇게 벗어 놓은 신발, 출세했음을 알리는 관료의 편지와 쓰다만 먹과 벼루가 있다. 여성의 물건들로는 벗어 둔 저고리, 바느질 바구니와 자, 가위 등을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232) 〈그림 120〉

분위기는 평상 위 이불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옷가지들과 남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쓰다만 편지와 흐트러져 있는 갓신, 약탕기에 달인 보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과 그 보약을 담은 접시와 세트인 잔, 대각선으로 걸쳐 놓은 장죽 두 대로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 <그림 117, 온양민속박물관 책거리>와 달리 다산을 상징하는 참외와 은행을 담은 접시와 절개를 상징하는 저고리의 국화무늬가 보여 성리학적 젠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듯 보인다.

왼쪽 쪽을 보면 윗부분에는 패랭이 꽃가지와 괴석으로 된 배경에 개구리 참외가 담긴 청화백자와 아름다운 방구 부채가 있고 책들과 화려한 무늬의 책갑들 위에 귀이개나 망건 밖으로 빠져나온 머리를 집어넣는 살쩍밀이, 빗 등을 넣어 다니는 나전칠기로 만든 휴대용 남성 화장대가 있다. 여기까지는 선호하는 본을 따라 그린 듯 하고, 왼쪽 책거리의 아래쪽을 보면 주황의 책갑을 한 서적들 위에 보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이라고 써진 약봉지가 두 개 있는데 그 옆에는 약을 채는 저울이 있고 탄을 넣은 화로 위에 약탕기와 잔이 연관성 있게 그려져 있다. 또, 위아래를 대각선으로 연결해 주는 두 개의 긴 담뱃대가 책갑에 엇갈려 기대져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서로의 담뱃대에 불을 붙여주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렇게 책거리에서 장죽을 그려 넣는 것은 남성 또는 권위의 표현이기도 하다.

오른쪽 책거리에는 평상이 사선으로 놓여 있어 구도에서부터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평상의 이불 위에 대충 벗어 걸쳐 놓은 저고리와 치마인지 저고리와 두루마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옷가지들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여성의 생활용품들인데 바느질감을 넣어둔 대바구니 위의 금박이 벗겨진 자(尺)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다. 평상 위 이불 위에 던져둔 저고리의 무늬는 절개를 상징하는 국화꽃 무늬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남성의 문방사우 등의 용구가 놓여 있는데 바닥에 받은 편지와 먹을 갈아 담장을 쓰러다 둔 편지봉투가 놓여 있다. 받은 편지봉투의 겉면에 글자가 다 보이진 않지만 “○○평졸상서 이승지 대대하인개절(○○平倅上書 李承旨 宅待下人 開浙)” 를 보아 짜자가 들어가는 지방의 수령이 이승지에게 보낸 편지인 것을 알 수 있고 여성을 상징하는 복숭아 모양의 아름다운 연적과 대충 벗어둔 비단 신발은 남성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끼여있는 정교한 죽절등잔과 정교한 등잔 가리개는 운취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배경

을 그냥 두지 않고 청홍으로 배경을 넣어 오방색의 목생화(木生火)로 생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무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이 그림은 어느 한 부분도 그냥 비워 둔 곳이 없다. 전체적으로 기물들이 놓여 있는 모습들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감정이 강조되듯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앞의 책거리들에서는 여성젠더를 표현하는 기물들과 여성젠더를 표현하지 않는 기물들로 나누었으나 이 책거리에서는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이 많아 따로 표를 만들었다.

〈표 57〉 〈프랑스 기메박물관 2쪽 책거리〉에서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국화 저고리 무늬	절개
바위 위의 패랭이꽃	석죽(石竹)화. 바위 위에서 자란 대나무를 이르는 죽석(竹石)과 이름이 같아 장수, 청춘, 절개를 상징한다.
참외	다남
은행	다남

〈표 58〉 〈프랑스 기메박물관 2쪽 책거리〉에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담뱃갑	남성, 권위
떡과 벼루, 붓	출세, 선비정신
벼슬 이름이 써진 편지봉투	출세, 권위

남성 가죽신	높은 신분
장죽	남성, 권위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정말 이런 여성의 책거리가 그려지고 여성의 방에 걸려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책거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혼종성(混種性)을 가지고 소재들의 확장이나 다른 영역의 민화와 습합되기도 하는 등 발전하여 갔으며 그림을 향유 하는 계층도 넓어지고 있었다. II장에서 본 것처럼 18세기부터 여성 성리학자와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이러한 자의식이 표현된 책거리에 대한 수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글을 읽고 쓰게 되어 여성 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여성의 요구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책거리가 본을 바탕으로 하는 그림이었음을 생각하면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을 수도 있고, 여성이 글을 배우는 것을 금기시하던 성리학의 관습을 생각하면 여성의 방에는 화조화를 위주로 걸어두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책거리의 기물로 남녀의 자유롭게 벗어놓은 옷가지를 그렸는데, <온양민속박물관 책거리>에서는 남성의 방의 햇대에 걸린 잘 접어 걸어둔 남성과 여성의 옷을 그려 넣어 사랑방에 찾아온 여인과 만남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이 책거리는 남녀 사이의 감정을 책거리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장 본원적 감정부터 성리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현상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고 사회적 질서가 바뀌어 가면서 이런 남녀의 만남이 남녀관계의 새로운 모습이 되어가기도 하였다.

6) 한글 소설을 통해 본 여성 자의식의 성장

(1) <개인 소장 책거리 4>-<그림 121>

이 책거리는 왼쪽 위편에 지통에 붓 세 자루와 네 권의 두루마리, 갓 솔, 두루마리에 꽂혀 있는 여의 가지에 '수복(壽福)'이 땡기 아래에 수 놓인 여성용 방한모인 아얌과 '용여(龍興)'라는 글자가 오른쪽 뒤에 수 놓인 남

성용 남바위가 걸려있다. 지통에 꽂혀 있는 붓 한 자루는 유달리 크게 그려 화면의 윗부분이 허전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구도를 좀 더 부등(不等) 삼각형의 구도로 만들어 집중도를 높히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의 중간에는 책들이 책갑에 싸여 있는데 제목을 살펴보면 『동의보감병입』, 『구운몽』, 『상운전』, 『장강전』, 『ㄷ | 성전』, 『숙영낭주전』, 『보은전』, 『반도연』, 『심청전』이다. 『동의보감병입』 외에는 한글 소설들이다. 그 외 장죽과 장죽받이가 있고 시집이 펼쳐져 있는데 오른쪽에는 나전칠기로 상판을 만든 호족반(虎足盤)²³³ 위에 술상이 차려져 앓고 술잔 하나는 보이지만 하나는 술병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주막에서 나오는 조그만 술상은 구족반(狗足盤)이라고 부른 개다리소반²³⁴인데 거기에 비해 소반의 다리가 굵고 훨씬 화려하고 은으로 장식한 것이 호족반이다. 오른쪽 아래에는 화로와 부삽와 부젓가락²³⁵이 꽂혀 있다. 이 책거리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과 길상과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은 <표 59>과 <표 60>와 같다.

<표 59> <개인 소장 책거리 4>에 나타난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큰 붓	출세	책이나 문방사우는 책거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물이지만 유독 커다란 붓은 출세에 대한 현실적인 염원을 아주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4>를 참고하여 보면 붓끝의 모양이 오른쪽 아래의 서수필(鼠鬚筆)과 유사하다.
2	장죽	권위	남성과 권위를 상징한다. 장죽은 하인이 있어야 담뱃잎에 불을 댕길 수 있어 높은 지위에 있음을 상징한다. 이 책거리에는 장죽의 받침대까지 있어 세밀하게 그 당시 생활용품을 보여준다.

233) <그림 122>

234) <그림 122>

235) <그림 127>

<표 60> <개인 소장 책거리 4>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여의	만사여의
병	만사여의, 평안

이 책거리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한글 소설들이 책갑에 싸여 있는데 한글은 흔히 여성의 문자라는 뜻에서 '암글' 또는 '안글'이라 불렸다. 한글을 사용하는 대표적 집단이 여성이라는 뜻이다. 이런 용어를 주로 사용한 양반 남성의 관점에서는 한글이 여성들의 문자로만 보였겠지만, 실제로 한글의 주 기록계층은 여성은 물론 하층민들까지 포함한 소외 계층이었다. 종전에 어떠한 기록수단도 가지지 못했던 계층이 새로운 한글이라는 기록매체를 가지고 그를 통해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였다. 이들은 한자로 소통하던 사대부계층과 달리 한글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로 기록계층을 형성하였다. 인간이 공통의 텍스트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입문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불과 50년 남짓한 시점에 이미 한글 사용의 저변이 상당히 넓어졌음을 1511년에 기록된 『중종실록』에는 유명한 채수(蔡壽, 1449~1515)의 필화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조선 최초의 필화 사건으로 채수가 『薛公瓚傳(설공찬전)』이라는 소설을 지었다고 해서 탄핵된 사건이다. 먼저 사헌부에서 다음과 같이 간언한다.

채수가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내용이 모두 화복(禍福)이 운회(輪廻)한다는 이야기로 매우 요망(妖妄)합니다. 나라 곳곳에서 현혹되어 믿고서, 한문으로 베끼거나 한글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시킵니다.[惑亂文字 惑譯以錄語 傳播惑衆] 사헌부에서 명령을 내려 거두어들 이겠으나, 혹 나중에 발견되면 죄로 다스림이 마땅합니다.²³⁶⁾

236)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7장, 『국편영인본』 14책 531면

「命罷 仁川君蔡壽 職, 以其撰 《薛公瓚傳》, 造怪誕之說, 形諸文字, 使人信惑. 依左道亂正扇惑人民律, 憲府照以當絞, 只命罷職。」

라고 증중에게 고하였고 채서는 파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지 불과 50년 남짓한 시점에, 한글로 적힌 소설이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킬 정도로 널리 전파되었다. 사헌부는 또 "정도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선동하여 미혹케 한" 채수를 교수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설공찬전』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작가를 죽이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작품 전 편이 전하지 않고 『설공찬전』은 그 일부가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의 『목재일기』 내용 중 제3책(1545~1546년 부분)의 뒷장에 기록되어 전하는데²³⁷⁾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라도 순창에 살던 설충란에게 자식 남매가 있었다. 그런데 딸은 결혼하자 바로 죽고, 아들 공찬 역시 장가도 들기 전에 병들어 죽고 만다. 그런데 설공찬 누나의 영혼이 설충란의 동생 설충수의 집에 나타나 충수의 아들 공침에게 들어간다. 공침은 영혼이 몸에 들어오자 병들어 눕게 된다. 이에 충수가 무당을 불러 귀신을 쫓으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찬까지 가세하여 사촌 동생 공침의 몸을 들락거리며 공침을 괴롭힌다. 그 과정에서 공찬은 사촌 동생 등에게 저승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글 소설의 전파는 다른 기록에도 있는데 다음의 두 기록을 보자. 먼저 민진후(閔鎭厚, 1659~1720)의 후처李부인(1664~1733)에 대한『李夫人行錄』에는李부인이 손녀들에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小學』, 『內訓』, 『列女傳』 등의 교훈서 이외에도『역대의 연의(演義)』 정도는 비록 소설이라 해도 볼 필요가 있겠으나, 나머지 '혼인, 부귀, 신선, 귀신 등의 비설잡기(稗說雜記)는 일절 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손녀들에게 이런 충고를 한 시기는李부인의 몰년과 손녀들의 아버지인 민익수의 生年(1690), 그리고 손녀 남편들의 생년(1713년과 1715년)을 감안할 때, 1720년대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서울에서는 다양한 소설들이 유통되고 있었

237) 이복규 편 저(1998). 초기국문 • 국문본소설. 경기 하남:박이정 출판사.

던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소설도 구해보기 어려운 시대에서, 어떤 소설이건 쉽게 얻어 볼 수 있는 시대로 세책(貰冊)과 방각(坊刻)으로 소설 유통 상황이 바뀌었음도 알 수 있다.²³⁸⁾

이 책거리에 나오는 소설 중 『구운몽』은 조선 숙종 때 서포 김만중(1637-1692)이 선천에 귀양 가서 어머니를 위해 지은 고전소설이다. 한문본이 원작으로 보이며, 국문본이 역시 한문본과 비중이 거의 비슷하며, 목판본이 나오게 되면서 대중화되었다. 『구운몽』의 전체적인 내용은 꿈과 현실로 나누어 전개된다. 육관 대사의 제자인 성진이 팔선녀를 희롱한 죄로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환생하여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팔선녀의 후신인 여덟 명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만년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다시 불교로 귀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순환’, ‘행과 불행의 순환’은 모두 불행한 현실을 없애버리고, 행복이 가득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려고 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꾸며진 것이다. 현재의 고난과 불행이 미래에 극복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주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 즐기면서 내일의 행복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액자소설인 『구운몽』은 유교, 불교, 도교의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데 인생무상의 깨달음과 허무의 극복이 주제로 육관대사가 주인공인 성진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다. 유교의 입신양명과 도교의 신선 사상, 불교의 윤회사상과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을 경계한다.

다른 한글 소설 중 하나인 『숙영낭자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백선군은 꿈에서 선녀인 숙영낭자를 만난다. 숙영은 선군에게 자신이 인연임을 알려주고 3년을 기다리라고 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상사병이 걸린 선군은 숙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한다. 이후 선군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과거 길에 오르게 되나 숙영이 그리워 이틀에 걸쳐 몰래 자고 길을 떠난다. 이에 숙영을 시키하던 시비 매월이 낫선 남자가 숙영의 방에 찾아온다고 시부모에게 고하고 도적과 꾸며 모함한다. 이

238) 정병설(2005). 조선후기 한글 소설의 성장과 유통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267-269.

에 숙영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가슴에 은장도를 꽂고 자결한다. 시부모가 이를 숨기고자 하지만 가슴에 박힌 칼과 시신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과거에서 돌아오는 선군이 숙영의 모함을 풀어주고 매월과 도적을 벌한다. 이후 숙영은 옥황상제의 은덕으로 환생하게 되고 선군과 해로한다.

『숙영낭자전』에서는 서로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데 선녀인 숙영은 성리학적 여성젠더의 가치관을 옹골게 실천하고 선군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애정 중심의 가치관을 보인다. 일상의 삶에서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로 당시 얼마나 두터운 여성 독자층을 형성했는지 이해된다.

다른 소설 중 하나인 『심청전』에서는 심청이 아버지의 개안(開眼)을 위하여 인당수의 제물로 던져진 후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고 왕비가 된다. 효를 강조하는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상반되어 신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신분의 변동성도 보여준다. 신분제가 붕괴하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었고 신분 상승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한글 소설의 유행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로 본다면 여성의 자각도 19세기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발전에서 한글 소설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사대부층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었을 것이다. 1775년 이덕무가 편찬한 『사소절』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소설을 빌려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는 모두 투기와 음란한 내용이다. 요즘 부인들의 방탕함과 방자함이 혹 여기서 비롯됐다. 어찌 간교한 무리들이 연애 이야기나 기이한 일을 늘어놓아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 후기의 여성들은 지배층 사대부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주로 한글을 통해 실용적인 필요성에 입각한 문자 생활만을 영위하도록 규제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

고 권장되었던 내훈류의 여성 규범서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실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여성들의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문자로 한글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경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한글 소설은 실용의 영역과 사적 경험의 영역을 초월하여 허구의 이야기가 주는 재미를 느끼게 해줌으로써 여성의 문자 생활에 있어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였다. 여성들은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공감하는 감정을 객관화하여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대중문화의 소비 주체가 되었다. 수동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었던 한글을 조선후기 여성들은 한글 소설을 통해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으로 변화시켜 갔다.

이 책거리는 남녀의 방한모가 여의에 걸려있고 술상이 차려져 있다. 시를 논하고 한글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숙영낭주전』의 숙영과 선군처럼 성리학적 가치관과 애정의 가치관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해본다.

(2)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책거리>-<그림 130, 131>

이 책거리는 자수 책거리라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자수 특유의 미감이 살아있는 책거리이다. 위쪽의 화병에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붉은 꽃이 꽃혀 있고 책을 꽂을 수 있게 바깥쪽이 막혀있는 사방탁자가 있다. 이 사방탁자에는 위에는 두 권이 맨 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치로 재미있게 놓여 있고 사방탁자의 제일 윗 칸에는 책이 꽃혀 있는데 그 아래 칸에는 두루마리가 나란히 세 권이 보인다. 그 아래에는 청색의 매병과 적색병이 색감의 대비를 이루면서 놓여 있다. 사방탁자의 맨 아래 칸에는 바닥에 놓인 책과 색감이나 형태가 비슷한 책 세 권이 비슷하게 세워져 있다. 책거리의 왼쪽으로 네 발 달린 받침대에 놓여 있는 청색 화병에 장춘화인 장미 세 송이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는데 보라색 나는 분홍색으로 위의 붉은 꽃의 화병과 색감을 맞추었다. 바닥에 놓여 있는 책 두 권은 펼쳐져 있고 읽던 중이었던지 책갈피 끈이 끼워져 있는데, 바로 옆에 바늘방석이 있다.

이 책거리는 바늘방석이 있어서 여성의 방이고 여성 책거리로 보인다. 그래서 책이 성리학적 남성젠더의 기물로 여겨지기보다는 여성 자의식의

인식 과정의 도구로 인식되고 조선후기 크게 유행하였던 한글 소설의 유행으로 시작된 활자와 여성의 만남을 보여주는 책거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거리가 여성 책거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물인 바늘방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늘방석과 바늘집²³⁹⁾은 가늘고 뾰족한 바늘이 아무 데나 나돌아 사람을 찌르는 위험한 일이 없도록 보관하기 위해 만든 침선(針線) 도구이다. 바늘방석은 일명 바늘꽃개, 바늘꽃이 또는 바늘겨레라고도 하는데²⁴⁰⁾ 천이나 비단 조각으로 방석이나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속에 머리카락이나 겨, 솜 같은 것을 넣고 걸은 여러 가지 문양을 수놓아 만들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중국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된 한치형(1434년—1502년)이 명나라 황궁에서 요구하는 물품 목록을 갖고 왔는데 그 물품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치형(韓致亨)이 가져온, 황제가 요구하는 물목(物目)은, 자주색 명주[紫綿紬], 녹색 명주[綠綿紬], 다홍색 명주[大紅綿紬], 황색 명주[黃綿紬], 다갈색 명주[茶褐綿紬], 유청색 명주[柳靑綿紬], 초록색 명주[草綠綿紬], 수록색 무명[水綠綿布], 갖가지 색으로 물들인 무명, 표백한 고운 모시[白細苧布], 모시실·명주실을 섞어 짠 베[苧絲兼織布], 갖가지 의복(衣服), 갖가지 저고리·치마, 돼지털 참빗[篋刷], 대빗[竹梳], 나무 빗[木梳], 다리빗[鬚篋], 초서피(貂鼠皮), 토표피(土豹皮), 갖가지 벼루, 큰 황모필(黃毛筆), 중간 크기의 황모필, 토호필(兔毫筆), 갖가지 용향묵(龍香墨), 은서피(銀鼠皮), 활과 화살[弓箭], 갖가지 동기(銅器), 갖가지 크고 작은 가위·바늘, 갖가지 종이, 세죽선(細竹扇), 화면선(畫面扇), 원파선(圓把扇), 소죽선(小竹扇), 변화석(邊花席), 만화석(滿花席), 삼사 도자(三事刀子), 오사 도자(五事刀子), 큰 단도(單刀), 작은 단도, 갖가지 채죽상(彩竹箱), 갖가지 흑칠상(黑漆箱), 채화석(彩花席), 채죽방석(彩竹方席), 채죽침(彩竹枕), 갖가지 주칠목향합(朱漆木香盒), 대록포(大鹿脯), 녹편포(鹿片脯), 마른 문어(文魚), 마른 연어(鱧魚), 마른

239) <그림 131>

240) <그림 132>, <그림 133>

대구[大口魚], 마른 전복[全鮑魚], 마른 오징어[烏賊魚], 마른
 넙치[廣魚], 마른 송어[秀魚], 다시마[昆布塔土麻], 김[海衣],
 미역[海菜], 석이버섯[石耳菌], 향심(香簞)—국내에서 나는 좋
 은 물건, 밀판다식(蜜板茶食), 날복어젓[生鮑魚鮓], 조기알젓
 [石首魚卵鮓], 홍합젓[紅閣鮓], 은어젓[銀口魚鮓], 조개젓[白蛤
 鮓], 새우젓[白蝦鮓], 소주(燒酒)—노란 것과 붉은 것, 잣[松
 子], 인삼(人蔘), 갓가지 호리병[葫蘆]—호골(虎骨)로 만든 것
 과 녹각(鹿角)으로 만든 것과 회양목[黃楊木]으로 만든 것, 진
 짜 호리병 작은 것, 진짜 호리병 바가지, 진짜 호리병 박 등근
 것, 갓가지 호아(虎牙)·장아(獐牙)·산양각(山羊角), 무늬가 고
 운 문합(文蛤) 펜 것, 회합(回蛤) 펜 것, 반합(班蛤) 펜 것, 갓
 가지 소라[海螺], 갓가지 가대(茄袋), 갓가지 수낭(繡囊), 갓가
 지 첩낭(貼囊), 호리병 바늘겨레[葫蘆針家兒], 바늘겨레—여공
 (女工)이 갓가지로 살아있는 듯한 청개(靑介)·원앙(鴛鴦)·청구
 (靑鳩)·녹압(綠鴨)·능각(菱角)·연화(蓮花)·북[鼓] 모양을 정교
 하게 만든 것 등이었다.²⁴¹⁾

위의 인용문 끝에 ‘호리병 바늘겨레[葫蘆針家兒], 바늘겨레—여공(女工)
 이 갓가지로 살아있는 듯한 청개(靑介)·원앙(鴛鴦)·청구(靑鳩)·녹압(綠
 鴨)·능각(菱角)·연화(蓮花)·북[鼓] 모양을 정교하게 만든 것 등이었다.’라
 고 있는데 이는 실용적 목적 외에 장식적 용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늘방석은 여공(女工)이 강조되던 당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족의 의식주는 여성의 노동으로 해야 한다던 시각과 옷의 구조가 솔기

241) (韓致亨齋來皇帝求索物目：紫綿紬、綠絨紬、大紅綿紬、黃綿紬、茶褐綿紬、柳靑綿
 紬、草綠絨紬、水綠綿布、各樣顏色綿布、白細苧布、苧絲兼織布、各樣衣服、各樣衫兒、
 裙兒、豬毛篦刷、竹梳、木梳、鬚篦、貂鼠皮、土豹皮、各樣硯石、大樣黃毛筆、中樣黃毛
 筆、兔毫筆、各樣龍香墨、銀鼠皮、弓箭、各樣銅器、各樣大小剪子、針、各樣紙、細竹
 扇、畫面扇、圓把扇、小竹扇、邊花席、滿花席、三事刀子、五事刀子、大樣單刀、小樣單
 刀、各樣彩竹箱、各樣黑漆箱、彩花席、彩竹枕、各樣朱漆木香盒、大鹿脯、鹿
 片脯、乾文魚、乾鱧魚、乾大口魚、乾全鮑魚、乾烏賊魚、乾廣魚、乾秀魚、昆布塔土麻、
 海衣、海菜石耳菌、香簞、海內所出好的物件、蜜板茶食、生鮑魚鮓、石首魚卵鮓、紅蛤
 鮓、銀口魚鮓、白蛤鮓、白蝦鮓、燒酒、黃的、紅的松子、人蔘、各樣葫蘆虎骨的、鹿角
 的、黃楊木的、眞葫蘆小的、眞葫蘆瓢兒、眞葫蘆圓的、各樣虎牙、章牙、山羊角、細巧文
 蛤穿了來、回蛤穿了來、班蛤穿了來、各樣海螺、各樣茄袋兒、各樣繡囊兒、各樣貼囊兒、
 葫蘆針家兒、針家兒、各樣女工巧作生活靑介兒、鴛鴦兒、靑鳩兒、綠鴨兒、菱角兒、蓮花
 兒、鼓兒). 『태백산사고본』 15책 99권 16장 A면, 『국편영인본』 9책 683면.

를 하나하나씩 뜯어 찢고 다시 바느질하여 붙이고 다리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침선도구를 매일 만져야 했을 것으로 언제나 여성의 방에 있어야 하는 기물이므로 여성성의 상징이다.

이 책거리는 독서를 하는 여성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책거리로 18세기 이후 여성학자들이 대거 출현한 현상이 있었지만 이에 이어 더 많은 여성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흐름을 보여주기에 맞는 책거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거리에는 성리학적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을 별로 보이지 않는데 책은 출세나 과거급제를 의미하기보다 여성인 방주인의 것으로 생각되고 두루마리는 일곱 개로 수량이 많아 실용적인 면보다 남편이나 아들을 위한 상징기물로 생각된다. 이 책거리에 나타난 성리학적 남성젠더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길상을 상징하는 장춘화가 꽃힌 화병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도자기를 놓아둔 사방탁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가구는 사랑방가구와 안방가구로 이미 앞에서 논한 바가 있는데 목수에게 맞춤 제작되어 그 형태가 사망이 트여있어야 함에도 이 책거리에서처럼 필요에 따라 책을 꽂기 위해 칸에 따라 세 면을 막아서 쓰려는 장소에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래서 책거리에 나오는 책장이나 탁자, 머릿장 등의 구조도 다양하여 구분하기 힘들 만큼 다양하였다. 다만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이름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표 61〉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책거리〉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장춘화가 꽃힌 화병	영원한 청춘 편안한 일상	장춘화가 꽃혀 있는 화병은 장춘화의 상징인 지속되는 젊음과 청춘인데 화병이 있어 평안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 책거리에서는 자의식이 있는 여성의 방이라 추정하여 성리학적 젠더에 의한 기물분석은 하지 않았다.

(3) 〈개인 소장 책거리 5〉-〈그림 135〉

왼쪽의 책거리에는 높이 쌓인 책갑 위에 불수감 2개가 접시에 담겨있고 그 앞에 향로가 올려져 있다. 오른쪽 위에는 대나무 가지가 산수화 병풍 뒤에 보인다. 화면의 가운데 부분에는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왼손에는 태극선을 들고 오른손에는 책을 펼쳐 들고 읽고 있다. 여성의 앞에는 경대가 열려있어서 해당화 그림이 새겨진 거울이 보인다. 아래쪽에 청색 매향아리 모양의 백합이 피어 있는 화분이 받침대에 받쳐져 있다. 그 옆 책갑은 마치 테이블처럼 사용되는데 그 위에는 남포등이 켜져 있고 각기 색이 다른 잔과 받침이 놓여 있다. 그 옆에는 난초문(蘭草紋)의 청화백자가 있고 수틀도 놓여 있다. 수틀이 있고 남성 화장대와와는 다른 더 높은 여성 화장대의 모습에서도 여성의 방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책거리는 왼쪽 책거리보다 단출한데, 장춘화가 보이고 그 앞에는 감을 담은 접시가 올려져 있다. 그 아래에는 국화 화분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은은한 청자색이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청색 포복 도자기이다. 화병이 다른 느낌인 것처럼 국화도 품종이 다른데 왼쪽의 것은 소국에 가까운 것이고 오른쪽은 한 송이가 아주 큰 것으로 꽃의 색이나 형태에 어울리는 화병에 각각 꽂았다. 여성 책거리이므로 양쪽 책거리에 나타난 성리학적 여성젠더와 과 다남과 길상에 관한 상징 기물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2〉 〈개인 소장 책거리 5〉에 나타난 여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

	기물	상징성	유래
1	대나무	절개	대나무는 속이 비었으면서도 강하고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고 사계절을 통하여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군자의 품격이나 절개의 상징으로 보았다. 대나무 죽(竹)과 축복의 축(祝)이 동음으로 축수(祝壽)의 의미로도 쓰였다.
2	국	절개	국화는 겨울에 다른 꽃이 없을 때 피어

	기물	상징성	유래
	화 ²⁴²⁾		나서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못 시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도연명(陶淵明)은 오두미(五斗米)에게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관직을 떠나 고향에 묻혀 살면서 소나무와 국화를 매우 사랑하였다 한다. 이에 국화는 맑은 아취와 높은 절개를 상징한다.
3	감	변함없는 마음	감은 껍데기와 안이 똑같이 붉은 과일이다. 따라서 변함없는 진심과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세번창(家勢繁昌)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이 책거리의 병풍에는 산수화가 그려져 있다. 버드나무가 있고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으며 누군가가 그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산수화는 당시의 유행하던 산수화로 비슷한 풍의 그림이 많다. 전체가 잘 보이지 않지만 유사한 산수화를 찾아보니 가장 유사한 것은 봄날의 강가의 풍경을 그린 춘곡 고희동(高羲東, 1886~1965)의 산수화(그림 138)이다²⁴³⁾. 그림 오른쪽 상단에 남송 육유(陸游, 1125~1210)의 시 「유산서촌(游山西村)」의 유명한 구절인 “山重水復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산이 다하고 물길 끊어져 길이 없는가 하니 버드나무 무성하고 꽃이 밝은 곳 또 마을 하나 있네)’를 인용하여 화제를 적었으며 강가의 비스듬한 둔덕에는 무성한 버드나무와 만개한 꽃나무가 자리 잡아 정자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며, 기암절벽 아래에서 다리를 건너는 두 인물이 이를 향해 갈 길을 재촉하고 있는 풍경을 그렸다. 뒤로 꽃이 만발한 마을과 원산이 공간감 있게 펼쳐지는데 물기 많은 먹으로 배경을 그리고 강가의 둔덕, 절벽, 산 등에 수묵으로 점을 찍은 후 청색의 태점을 가미하였으며, 버드나무 가지와 꽃이 핀 나무 또한 각각 청색과 붉은색으로 얹게 색을 바림질하여 화사한

242) 임영주(2004). 앞의 책, 152.

243) 사진 출처-https://museum.seoul.go.kr/exh2/wahyusansu/html/content/wahyusansu_sub05_20.html

봄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처럼 책거리에는 문자도뿐만 아니라 산수화, 화조도 등과의 결합은 정형화되어가는 책거리에 새로운 상징 기물들을 찾아 새로움을 추구하는 측면과 달리 또 다른 의미과 미감을 느끼게 해준다.

〈표 63〉 〈개인 소장 책거리 5〉에 나타난 다남과 길상의 기물분석

	기물	상징성	유래
1	장춘화	젊음	〈표 12〉 참고
2	불수감	복(福) 부(富)	〈표 12〉 참고
3	백합 나리꽃	소원성취 평안 화합이나 화목	백합 ²⁴⁴⁾ 은 ‘권단卷丹’ 혹은 ‘권단화卷丹花’라고도 한다. 그 밖에도 ‘당개나리’, ‘호피백합虎皮百合’, ‘홍백합紅百合’, ‘약백합藥百合’, ‘백합百合’ 등으로 불렸다.

민화 속 백합(나리꽃)은 소원성취, 평안, 화합이나 화목 등의 염원을 담아 그려졌다. 특히 나리꽃과 영지버섯의 만남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주제였다.²⁴⁵⁾ 민화에서 나리꽃과 영지버섯이 함께 그려지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길상적인 큰 의미를 주었을 것이다. 나리꽃을 포함해 여러 계절에 피는 꽃들과 화병이 그려지면 사계절 내내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된다. 한 쌍의 나비나 새와 함께 그려진 나리꽃 그림은 화합과 화목, 그리고 부부의 화목을 상징한다. 그래서 화조도에는 나리꽃과 바위, 한 쌍의 나비를 함께 그린 민화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이 책거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남포등으로 이 책거리의 제작 시기를

244) 김취정(2019). 정원에 핀 소망의 꽃, 참나리. 월간 민화 7월호, 94-99.

245) 김취정. 위의 논문. 〈그림 136〉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쓰던 동식물성 기름 등을 쓰던 등잔과 달리 석유가 수입된 이후의 기물이기 때문이다. 연료의 성격상 조명기구의 모양도 달라졌는데 <그림 139>에서 보듯 등잔불에서 남포등으로 밝고, 연료의 구입이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빠르게 바뀌어 갔다. 조선에 석유가 처음 수입된 것은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통상조약 이후라는 설도 있으나 황현(黃玗)의 『매천야록(梅泉野錄)』의 석유시용조(石油始用條)에서 1880년(고종 17)이라고 기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등잔 형태는 종지 형에서 호형(壺形) 또는 원통형으로 바뀌었다. 석유의 인화성(引火性) 때문에 따로 뚜껑을 만들고 여기에 심지(燈心)를 박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작은 항아리 모양을 닮았다 하여 ‘호롱’으로 불리었지만, 석유등으로서 유리로 된 호롱은 사기나 유리, 놋쇠 또는 양철 따위로 작은 병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아래에는 석유를 담을 수 있도록 둥글게 하고 위 뚜껑에는 심지를 해서 박아 불을 켤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내었다. 바람막이가 있는 남포등(lamp, 洋燈)과 함께 전기 도입 이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간혹 더 밝게 하려고 심지를 쌍으로 내기도 하였는데 우리 속담에 ‘두 눈에 쌍심지(를) 켜다.’라는 말도 이러한 호롱불의 모습에서 유래한다.²⁴⁶⁾

이 책거리에서는 석유를 사용한 호롱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독서 하는 여성이 표현되었다. 오른쪽 책거리에 두 화분의 국화는 품종이 달라 보이는데 이는 19세기 국화도(菊花圖)의 특징 중 하나로 오른쪽 화분의 국화처럼 큰 송이의 국화가 그려진다는 점인데 19세기 국화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긴 화폭에 적별이나 계곡에 국화를 그리는 형식으로 이는 청대 양주팔괴(揚州八怪) 화가들 사이에서 즐겨 다루어졌는데 19세기 조선의 국화도에도 영향을 주어 김수철, 양기훈, 장승업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민화로 이어지면서 화려하고 장식적인 경향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국화 한 송이가 강조되며 국화꽃이 매우 커진다. 국화도에서 이러한 변화는 국화품종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음을 『완당집』에 적힌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서양 국화가 중국에서 들어와 백 수십 종이나 된다. 화가들이 꽃잎이 큰 국화를 그리는데, 동쪽 울타리의 아치를 잃지 않았다

246) 출처-<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8586>

라고 한 것이다.²⁴⁷⁾ 이를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19세기 이전 강세황의 <그림 140>을 보면 대나무와 국화, 돌을 함께 그렸는데 활짝 핀 국화를 대나무가 둘러싸고 있어 편안한 느낌이다. 19세기의 조희룡의 <그림 141>은 S자 곡선을 그리고 있는 한 줄기를 중심으로 국화를 빠른 필치로 그려냈다. 본격적으로 19세기의 국화는 김수철의 <그림 142>에서 볼 수 있는데 묶은 붓질을 여러 번 하는 그는 긴 화폭에 절벽이나 바위 위에 피어난 국화를 신선하게 그려내어 그 당시에 분방하고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림 143>은 안중식(1861~1919)의 국화로 꽃이 크고 탐스러운 뿐만 아니라 꽃잎을 몰골법의 산뜻하고 대담한 필치로 그렸는데²⁴⁸⁾ 이 책거리의 오른쪽 화분의 국화의 묘사법과 유사하여 작가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남포불이나 국화의 묘사법으로 볼 때 이 책거리는 빨라도 20세기 초로 제작 시기가 추정된다. 이 시기는 두 앞의 책거리들과 비슷한 시기인데 독서가 여성에게 생활이 되어가고 그에 따라 여성의 자의식도 성장해감을 알 수 있다.

(4) 같은 시대 유럽의 여성 자의식의 성장과 표현

조선에서 여성의 자의식이 성장하는 동안 책거리의 제작 시기²⁴⁹⁾와 겹치는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주축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²⁵⁰⁾되었으며 1944년 참정권을 얻게 되었다²⁵¹⁾. 비슷한 연대에 앞의 세 점의 우리 책거리에 나타난 여성 자의식의 자각을 보면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대사회로 진보하는 세계적인 흐름 중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II장에서 여성 자의식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민화 책거리에 나타나는 자의식의 성장처럼 유럽의 그림에서도 젠더의 경향을 반영하는 그림들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요한네 마틸데 디트릭손의 <농가의 내부>²⁵²⁾과 페데리코 파루피니의 <독자>²⁵³⁾를 예로 들었다. 조선 사

247) 김정희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1995), 완당전집 6, 서울: 솔출판사, 254.

248) 이선옥(2005), 조선시대 국화도의 전개과정과 변화요인, 전남대학교, 165-171.

249)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250) 1789년 프랑스혁명, 올랭프 드 구즈가 1791년 총 17개 항으로 된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

251)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드골이 프랑스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

252) <그림 144>

회가 여성의 재능을 억누르고 하나의 독립체인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 남성을 보조하는 위치에서 늘 순종하고 절개를 지켜 다남해야 하는 존재로 다양한 방면의 교육으로 여성젠더를 재단하고 있었을 때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북학파였고 실학자였던 앞서가는 지식인인 이덕무(1741~1793)의 『사소절』에 나오는 여성 교육에 대한 내용이 기대만큼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같은 시대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였던 루소(1712~1778)도 그의 유명한 교육에 관한 계몽 저서 『에밀』에서의 여성에 대한 교육내용²⁵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배운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여성에 대한 교육철학이 엄청난 물리적인 거리에 떨어져 살았음에도 두 사람의 생각은 조선에서나 프랑스에서나 젠더적인 환경은 다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두 그림과 동시대인 18·19세기 유럽의 여성자의식 향상에 대한 사회의 염려를 담은 그림을 세 점을 분석하여 보는 것도 이러한 여성의 젠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조선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사의 커다란 흐름의 한 부분으로 거시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조선에서 18세기에 한글 소설이 유행하고 여성 교육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한글이 요긴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가치관의 한글 소설을 통해 현실의 부당함과 신분제에 대한 의구심 등이 생겨났었다. 그것처럼 유럽에서도 18·19세기에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소설 출간의 영향으로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가정과 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시작하였다. 독자들에게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짝 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지배계층에서 경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여성에게 독서는 두려운 것이고 도덕적 교화보다 쾌락의 추구가 목적이며 사회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유행이라고 비판하였다. 소설에 대한 이러한 비판 속에서 요한네 마틸데 디트릭손의 <농가의 내부, Farmhouse Interior>에 대

253) <그림 145>

254) 장 자크 루소 저 김평옥 역(1973), 에밀, 서울: 집문당, 362.

하나의 예: ‘남자는 능동성이 강하고 여성은 수동적이며 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연적으로 남성은 의지와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며, 여성은 겨우 저항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성립된다면 그 점에서 여자는 특히 남성의 기분에 들도록 만들어졌다고 할 것이다.’

하여 소설은 게으름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한 여성의 미덕을 타락시키기까지 한다고 평하였다. <그림 144>, <그림 145>, <그림 146>은 지배층이 여성의 타락을 걱정하면서 그려진 그림이지만 근대로의 이행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유럽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자각한 여성들의 치열한 노력을 통하여 여성 인권을 부여받았다. 다행히 조선에서는 임윤지당같은 선각자를 필두로 내방가사, 한글 소설, 천주교, 동학, 기독교 등의 영향들이 있었고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구국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① <그림 144>

이 그림은 노르웨이의 작가 요한네 마틸데 디트리kson(1837~1921)의 1875년 유화<농가의 내부, Farmhouse Interior>이다.²⁵⁵⁾ 이 그림에서 작가는 젊은 하녀에게 소설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집안일도 미뤄두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독서를 비하한다.

② <그림 145>

여성의 독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탈리아 작가인 페데리코 파루피니(1833-1921)의 그림인 제목이 <독자, The reader>인 이 그림에서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현실도피를 묘사함으로써 책이 주는 유해함을 주제로 표현한다. 이 그림에서 험령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탁자 위 유리병은 이 여인이 술 한잔을 즐기고 있음을 암시한다. 책으로 어질러진 탁자를 통해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그림 146>

수채화인 펠리시엔 로프스(1833~1898)의 <사서>에서는 나체의 여성이 등을 구부리고 침대에 누워 에로틱한 소설을 읽고 있고 커튼 뒤로 숨어서 그녀의 머리 위를 맴도는 자는 타락한 소설책을 배달하는 악마이다. 정치적, 사회적 풍자로 잘 알려진 작가는 이 그림에서 18·19세기에 팽배한 관념인 ‘소설은 여성에게 도덕적으로 위협한 것’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교화

255) 데이비드 트리그(2018). 리딩 아트, 서울: 다홀미디어, 11,161,166.

가 아닌 쾌락을 위해 책을 읽으려는 욕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그 욕망이 여성 독자들을 타락시킬지 모른다는 도덕적 공포를 그렸다. 소설의 문란함을 완전히 옷을 벗은 여성을 통해 소설 읽기의 부도덕성을 시사하는데 작가의 진짜 의도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경멸하면서 똑같이 은밀한 행위를 하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위의 세 점의 그림을 통해 18세기와 19세기의 동시대에 실학과 서학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계몽소설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성들의 사회적 젠더에 대한 불평등과 자의식을 깨달아 가는 자각이 있었고 이는 조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비슷한 움직임으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조선의 책거리에도 유럽의 회화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구국운동에 여성의 역할이 필요해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성의 입지를 넓혀가게 되었다.

V. 결론

조선후기인 17세기 중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소중법으로 성리학적 사회체계가 정점에 이른 조선 사회와 18세기 말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던 우리만의 정물화인 책거리는 그 시간대가 겹친다. 성리학적 이념에 의한 사회적 체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비대칭적이고 불공평한 남녀젠더를 교육과 규범을 통해 내재화시켜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켰다.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들은 본 연구가 고찰하고 분석한 책거리에도 잘 나타나 있다.

책거리에 나타난 기물들은 평범할 수 있는 일상적 생활용품이지만 성리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보는 사람 사이의 암묵적 동의로 상징 기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오래된 동양사상 철학의 체계인 『주역』으로부터 시작된 음양의 원리보다 현재 책거리를 감상하는 우리에게 새롭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춘 젠더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성리학이 지배이념인 조선후기에 젠더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였으며 그것을 실천적 언어로 어떻게 나타내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를 도출하는 과정은 중국에서 가져온 여성교육서로 출발했던 오래된 교재가 아닌 그 당시의 선진적 사상을 가진 이덕무의 『사소절』을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성리학적 압박의 정도를 최하한선으로 전개하였다.

교육목표가 재덕겸전(在德兼全)인 남성과 무재시덕(無才是德)인 여성은 실천 규범이 서로 달라서 남성에게는 입신양명, 출세, 가문의 번창이라는 의무가 생겼고 여성에게는 정절과 생남의 의무가 생겼다. 이러한 무거운 의무감은 책거리에 나타나는 상징 기물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 기물들은 책거리 그림의 기본 사양이 되어 정형화되게 된다.

1000쪽이 넘는 책거리를 성리학적 젠더의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표본으로 23쪽의 책거리를 추출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당시 남성젠더에 따른 책거리와 여성젠더에 따른 여성 책거리, 인물을 그려 넣어 젠더의 실천적 요소를 강조한 책거리의 유형이 있었다. 다른 두 개의 유형은 젠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면서 탈성리학적 요소를 보이는 책거리와 사회환경이 변하고 대중문화가 발전하면서 하층민과 여성들에게 신분의 불평등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음을 한글 소설의 유행을 통하여 여성들과 하층민들의 문자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보

여주는 책거리들을 분류하였다.

사대부계층이 즐기던 서가식 책거리는 거의 남성젠더에 대한 기물들만 있었고 민화 책거리가 유행하면서 석류 외에 다른 다남에 대한 기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민화 책거리에서도 남성 책거리가 수량적으로 현저히 많고 남성젠더를 상징하는 기물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여성에게 학문의 길이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어 안방에 두는 병풍이나 그림들은 화조화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여성 책거리는 수량적으로 희소하고 귀한 자료들이다. 또 여성 책거리에 나타나는 상징 기물들이 남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과 같이 그려짐으로써 사회적 성취의 기회가 없던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들을 통해서만 성공이나 성취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면 책거리에 나타난 성리학적 젠더에 대한 수용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남녀 간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책거리들이 있다. 이는 한글 소설의 유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숙영농자전』이나 『춘향전』, 『심청전』 등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깨고 자신의 순수한 애정을 추구하는 상층 신분의 남성과 성리학적 여성젠더를 철저하게 지키는 낮은 신분의 여성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여성이 신분 상승을 이루는 이야기 등에서 다른 모든 조건, 지식, 권력 등에서 위계적인 남녀 젠더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여성 자의식을 깨우고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이자 매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책거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리학적 젠더에 대한 여성 자의식의 성장은 한글 소설이 그려진 책거리와 여성 책거리에서 펼쳐진 책이나 독서의 모습으로 알 수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여성의 독서에 대한 지배계층의 반응은 똑같이 부정적인 것이었고 그러한 경향이 유럽의 회화에도 나타나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한 결과 여성 책거리나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은 수량적으로 적고,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은 대부분의 남녀 책거리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세기로 갈수록 책거리 기물들이 비슷한 상징 기물들로 정형화되자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위하여 다양한 기물들을 더하거나 다른 분야인 문자도나 화조도, 산수화 등을 조합하여 그리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비대칭이고 차별적인 젠더는 유럽의 회화를 통해 조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대사회로 가

는 인류 공통의 사회·문화 발전의 단계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선후기를 풍미했던 정물화인 책거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성리학에 기반한 젠더에 의한 잣대는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책거리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책거리에 나오는 기물들을 남녀젠더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였고 그 기준으로 기물들을 분석해가면 그림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적용하기 쉬운 도구가 되어주었다.

처음 이 논문의 연구목적인 조선후기에 맞는 젠더를 정의하였고 책거리를 음양의 이치나 조화 같은 기준이 아닌 사회상을 반영하는 젠더를 기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성리학적 사고에 지배를 받던 조선후기에 사대부층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즐기던 책거리에는 다남이나 생남, 출세, 절개 등의 성리학에 기인한 남녀젠더를 주제로 이를 상징하는 소재인 기물들로 그림의 화면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얻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책거리에 젠더라는 새로운 잣대를 앞으로 책거리와 민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



〈그림 2〉 다보각

사진 출처-Chaekgeori, 서울: Suny Dahal media,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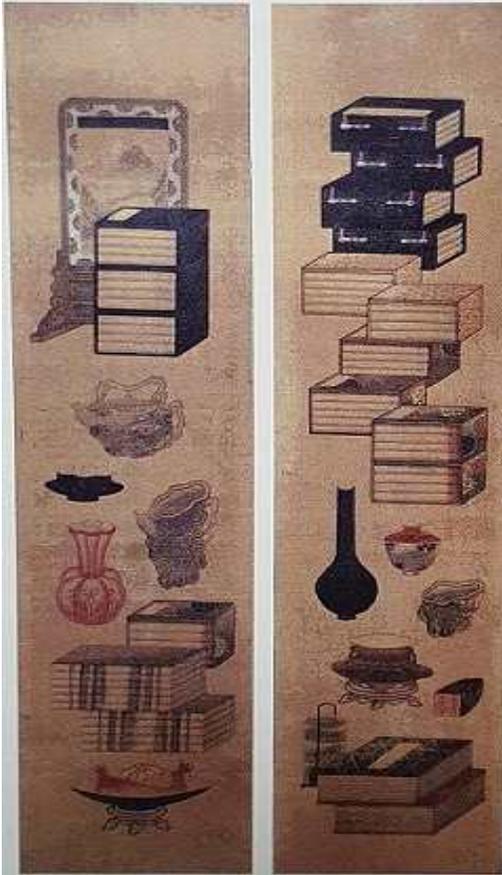
〈그림 3〉 성월스님 진영(眞影)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127.1×92.9cm.

출처: 범보신문

(<http://www.beop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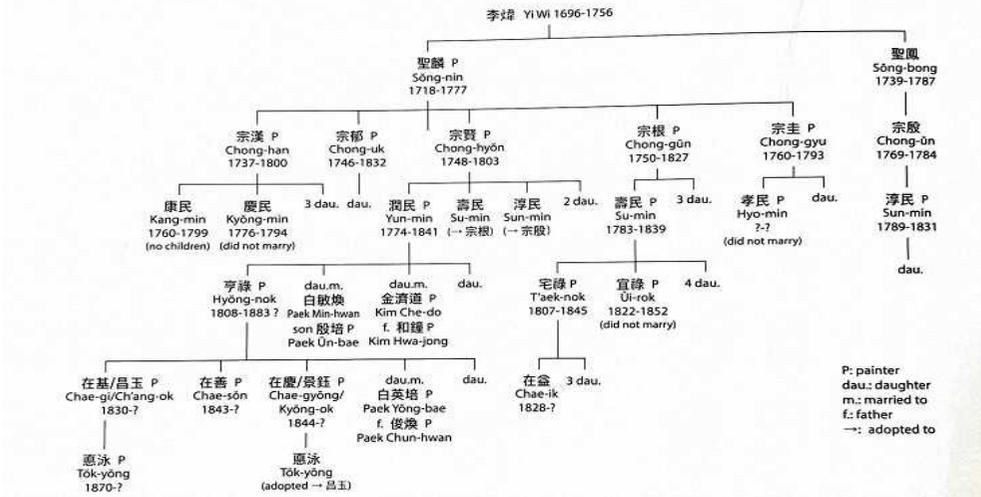
〈그림 3〉 민평우 소장 책거리
 10폭 중 2폭, 19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각 138×32cm. 인장에 혜춘이라는 작가의 낙관이 있다.
 사진 출처-
 Chaekkori Painting: Sahoipyounghon Academy, 46.



〈그림 4〉 리움미술관 소장, 이형록, 8폭 병풍, 종이에 채색, 140.2×468cm,

사진 출처-<https://blog.daum.net/sixgardn/15770482>

Exhibit 13.1 Yi Hyōng-nok's Chōnju Yi Chungin Genealogy



〈그림 5〉 이종현, 이유민, 이형록의 가계도

사진 출처-Ch'aekköri Paintings: A Korean Jigsaw Puzzle, Archives of Asian Art XL(VI): 67.



〈그림 6〉 여사서와 주자대전이 있는 책거리, 20C 전반, 종이에 채색, 각 79.0×26.5cm, 개인 소장. 사진 출처-책거리: 다홀미어, 194.



〈그림 7〉 이형록(1827~1863)의 책거리

10쪽 병풍이었으나 왼쪽 2쪽이 분실, 종이에 채색 163×320cm 개인 소장.
 사진 출처-Chaekgori Painting: Sahoipyounngnon Academy,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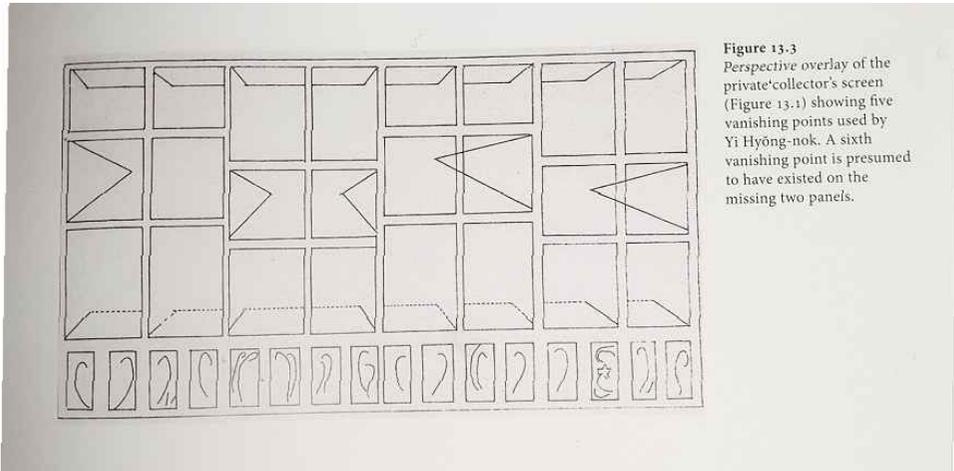


Figure 13.3
 Perspective overlay of the private collector's screen (Figure 13.1) showing five vanishing points used by Yi Hyōng-nok. A sixth vanishing point is presumed to have existed on the missing two panels.

〈그림 8〉 〈그림 7〉의 다시점 분석
 사진 출처-Chaekkori Painting: Sahoipyounnon Academy, 105.



〈그림 9〉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자수 책거리
 사진 출처- Chaekkori Painting: Sahoipyounnon Academy, 105.



<그림 10> 자수사계분경도-포도



<그림 11> 자수사계분경도-매화



<그림 12> 자수사계분경도-연꽃



<그림 13> 자수사계분경도-매화

자수사계분경도 (刺繡四季盆景圖), 포도, 국보 제653호, 4폭 자수.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pack-dong/8174963>



〈그림 14〉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6폭 병풍, 19세기, 종이에 채색, 각 145.0× 40.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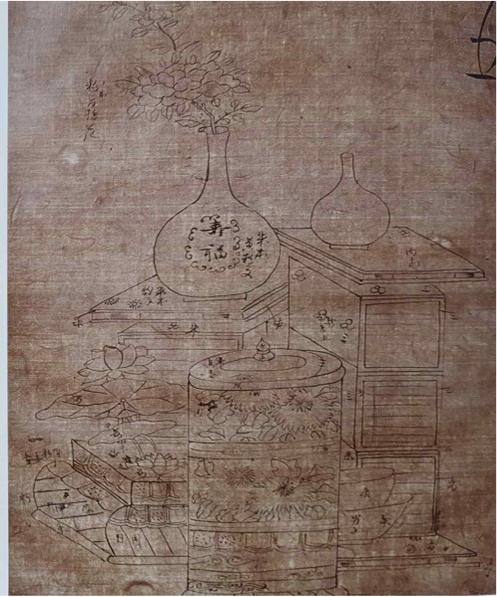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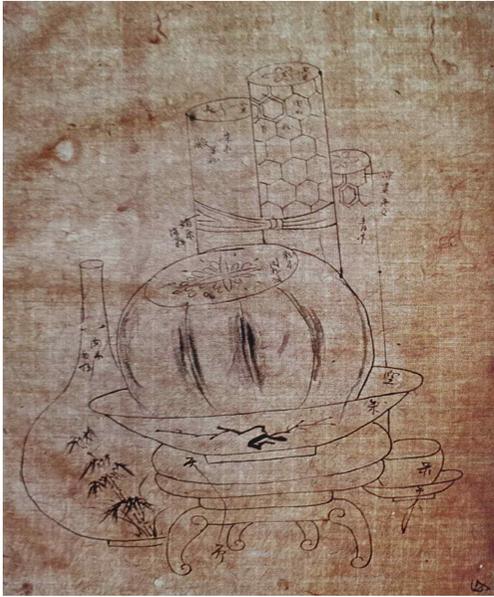
사진 출처- <https://blog.daum.net/sixgardn/15770482>



〈그림 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책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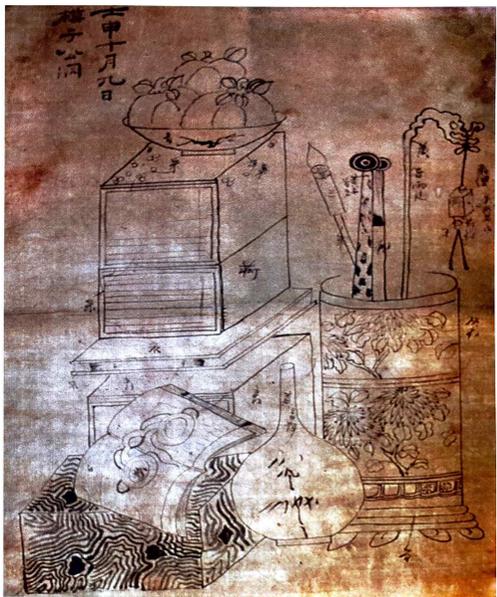
10폭 병풍, 19세기, 종이에 채색, 각 198.3× 39.8 cm.

사진 출처-한국의 채색화 03: 다홀미디어, 48-49.



〈그림 16〉 책거리 본(本) 1, 2

사진 출처-사진 출처-Chaekkori Painting: Sahoipyounnon Academy, 206-207.



〈그림 17〉 책거리 본(本) 3, 4

사진 출처-사진 출처-Chaekkori Painting: Sahoipyounnon Academy, 206-207.



〈그림 18〉 실내 장식에서 민화, 책거리 활용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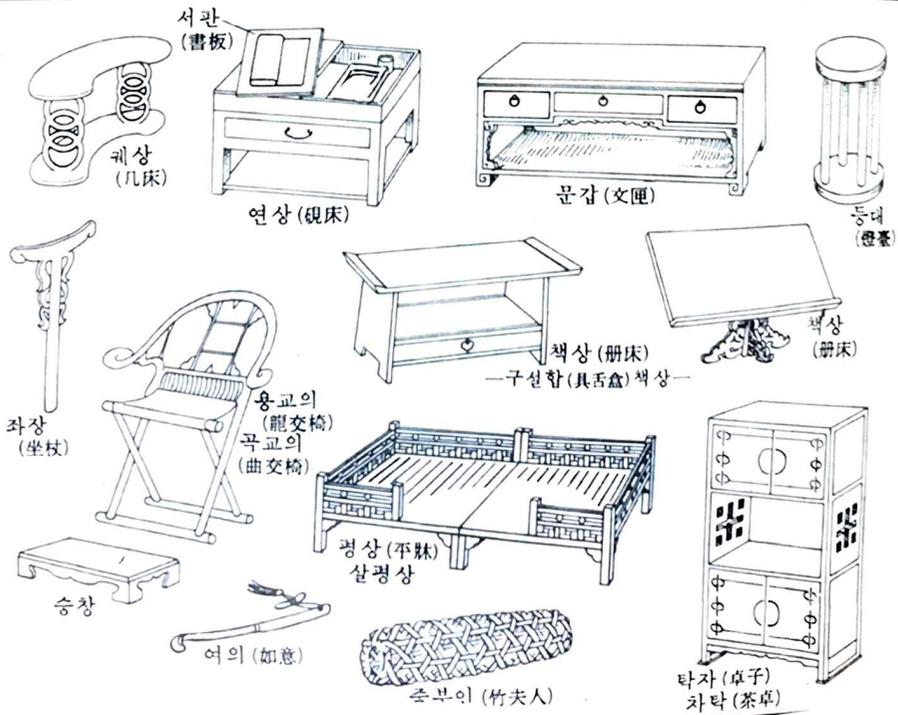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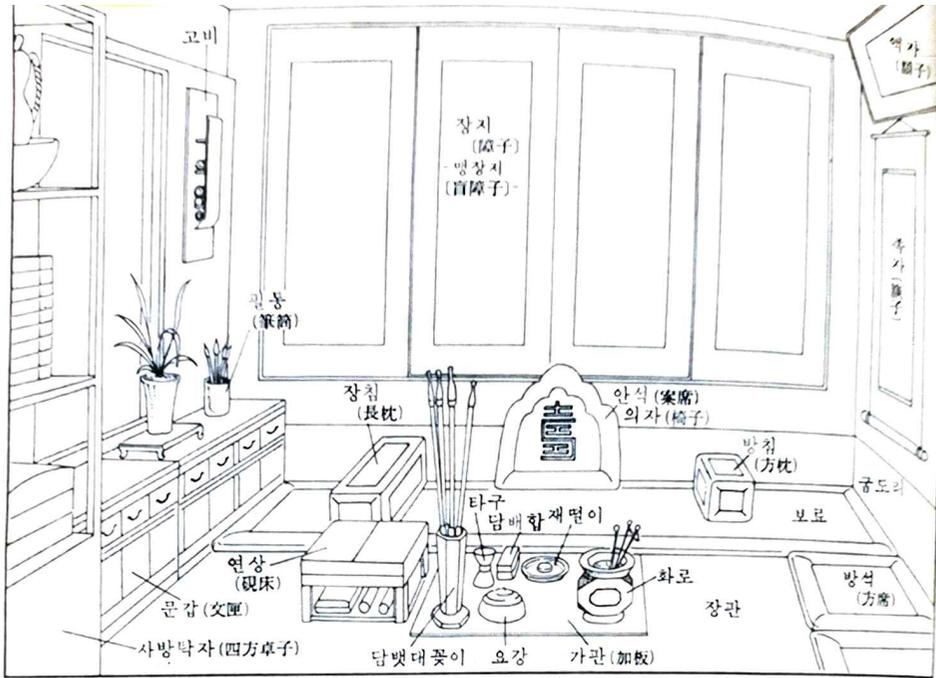
사진 출처: 사진 출처-Chaekori Painting: Sahoipyounngnon Academy, 3.



〈그림 19〉 김세종 소장 책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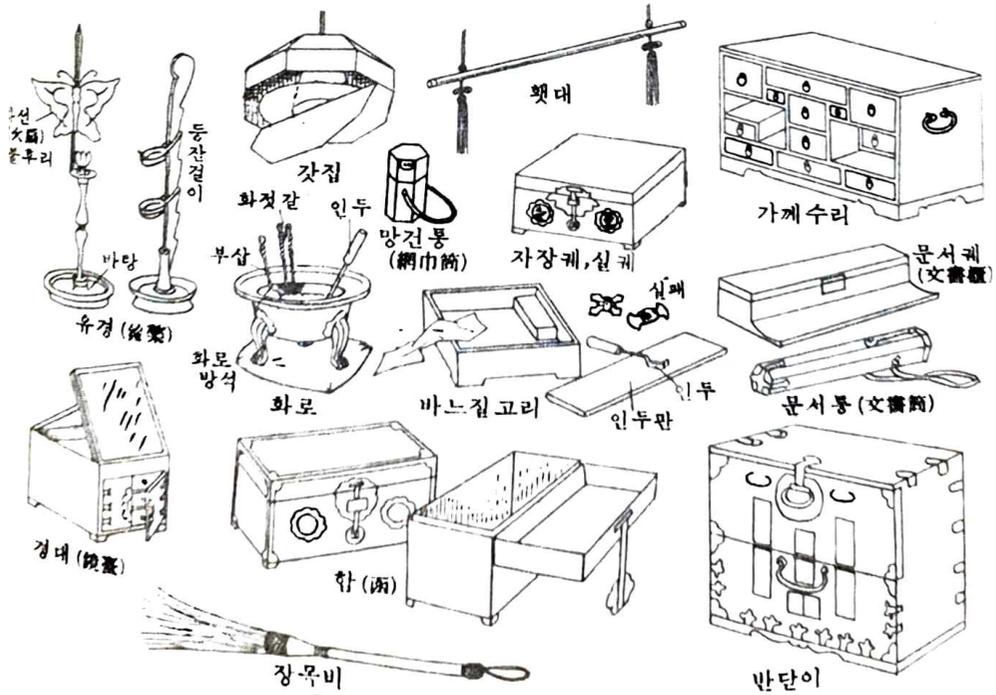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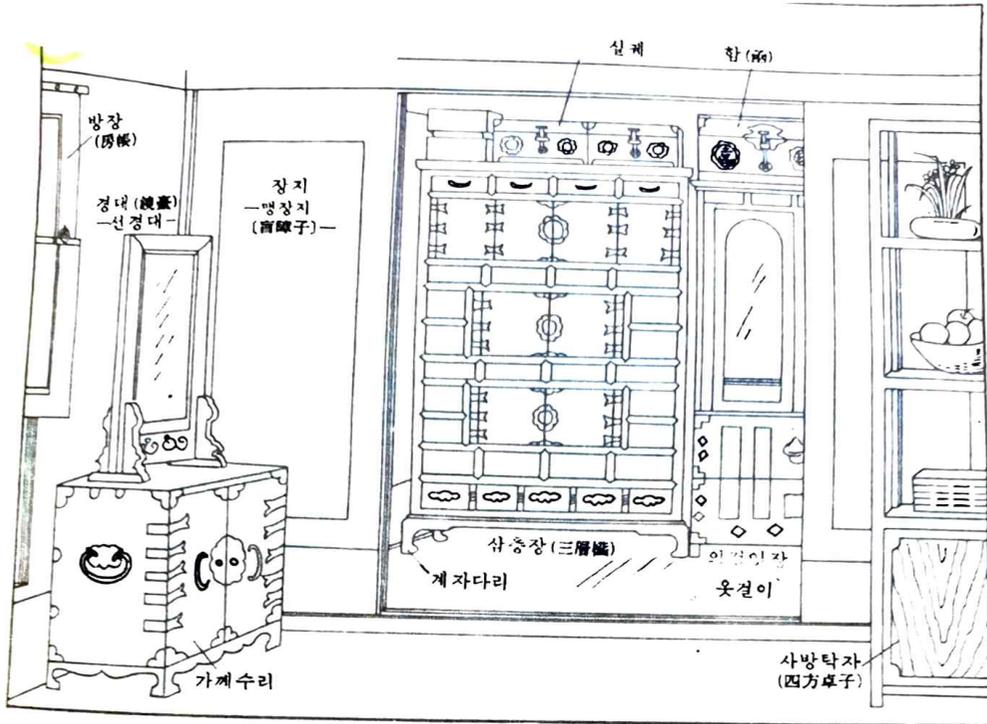
8폭 병풍, 20세기 전반, 종이에 채색, 각 74.8×37.5cm,

사진 출처-한국의 채색화 03: 다홀미디어, 180-187.



〈그림 20〉 사랑방의 모습

사진 출처- 이훈중(1992). 민족 생활어 사전, 227.



〈그림 21〉 안방의 모습

사진 출처- 이훈중(1992). 민족 생활어 사전, 227.



〈그림 22〉 국립수목원 소장 가구 1



〈그림 23〉 국립수목원 소장 가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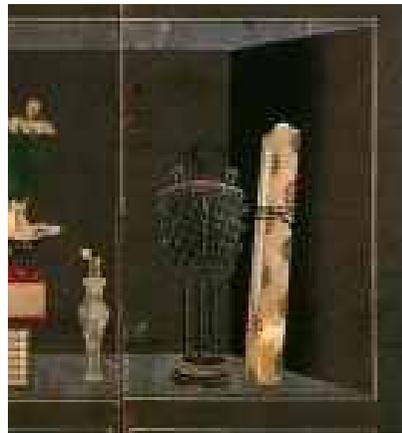
사진 출처- <https://www.forest.go.kr/kna/webzine/2014/4/s6.html>



〈그림 24〉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소장 책거리
 이응록, 19세기, 종이에 채색, 164.5×271.2 cm, . 사진 출처-한국의 채색화 03:
 다홀미디어, 30-31.



〈그림 25〉 〈그림 24〉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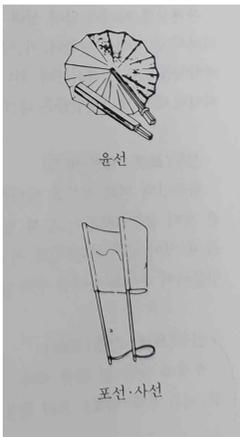
〈그림 26〉 〈그림 24〉의 일부



〈그림 28〉 화로 세트
 사진 출처-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품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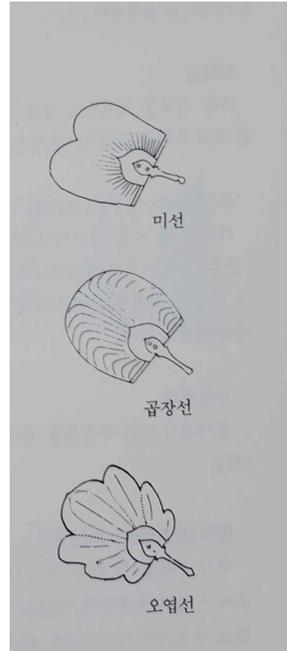
〈그림 27〉 화로
 사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품 도록.



〈그림 29〉 부채의
 종류-윤선, 포선
 사진 출처-민족 생
 활어 사전.



〈그림 30〉 부채의 종류
 - 태극선, 백우선
 사진 출처-민족 생활어
 사전.



〈그림 31〉 부채의 종류
 - 미선, 오엽선
 사진 출처-민족 생활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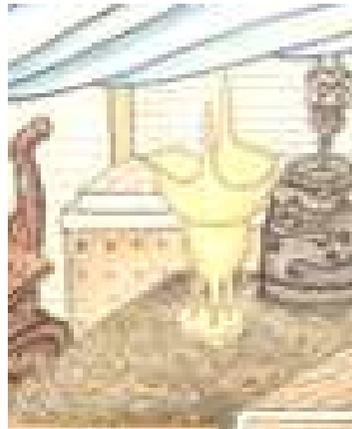
〈그림 32〉 접선(摺扇)
 사진 출처-민족 생활어
 사전.



〈그림 33〉 선추 장식
 사진 출처
 -[https://namu.wiki/w/
 /%EC%84%A0%EC%
 B6%94](https://namu.wiki/w/%EC%84%A0%EC%B6%94).



〈그림 34〉 태극선
 사진 출처- 2020 소수박물관 특
 별기획전, 선비의 영원한 벗, 문
 방사우.



〈그림 35〉 〈그림 38〉의 일
 부분
 술잔 작(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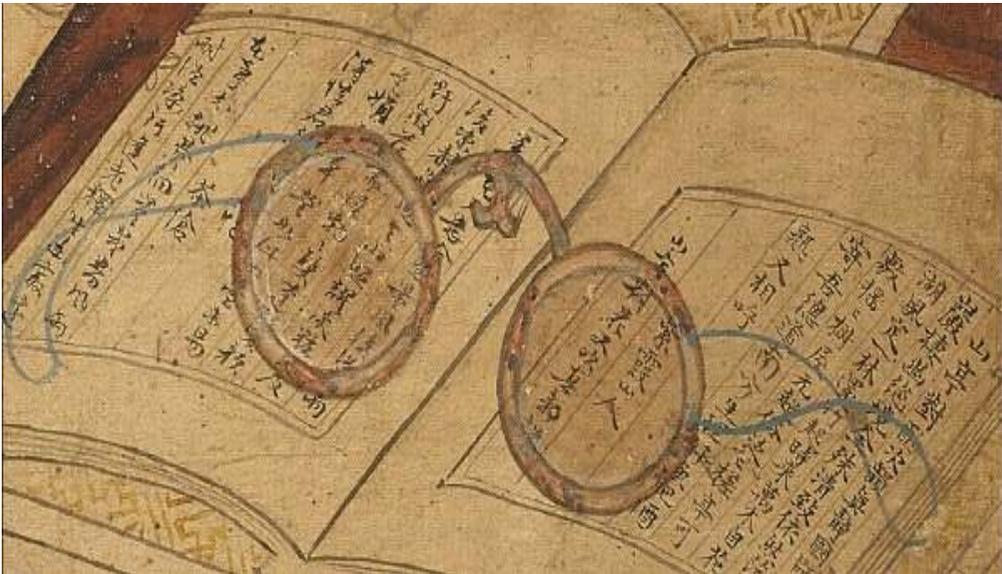
〈그림 36〉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1

19세기. 종이에 채색, 128.0×355.0cm,

사진 출처-한국의 채색화 03: 다홀미디어, 22-23.



〈그림 37〉 〈그림 36〉의 일부



〈그림 38〉 〈그림 36〉의 책 부분.

사진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0DFKKBXXV1>



1961 담뱃대 길이 23.3, 20cm 길이
 담뱃대 길이 24.1, 20cm 길이
 담뱃대 길이 34, 20cm 길이
 담뱃대 길이 36.5, 20cm 길이
 20cm 담뱃대 받침통 길이 6.8, 지름 2.5, 20cm 길이
 담뱃대 받침통 길이 15.4, 지름 5.4, 20cm 길이
 담뱃대 받침통 높이 7, 지름 11.5, 20cm 길이

〈그림 39〉 다양한 길이의 담뱃대와 담배함
 사진 출처-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도록.



장죽꽃이



담배통받이

〈그림 40〉 장죽꽃이와 담배통받이
 사진 출처- 이훈중(1992). 민족생활어 사전.



〈그림 41〉 다양한 안경과 안경집
 사진 출처-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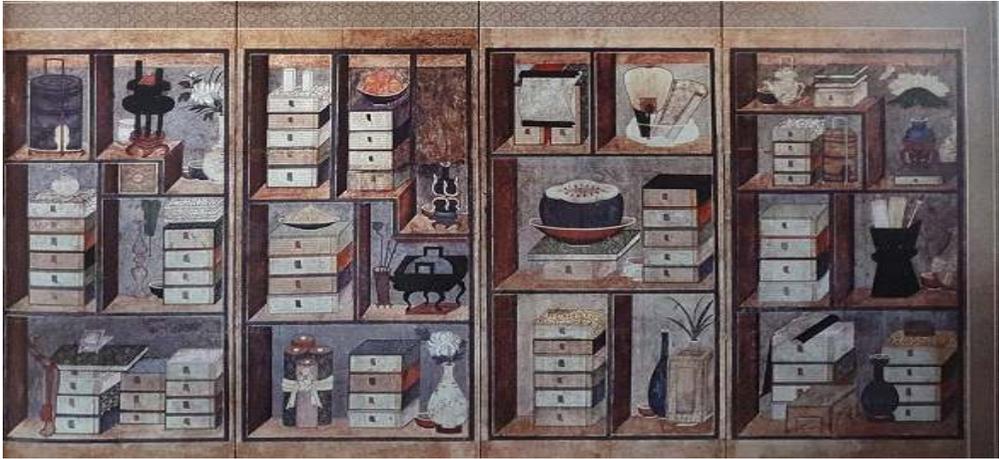
〈그림 42〉 리움미술관 소장 책거리 2

8폭 병풍 중 4폭, 19세기, 종이에 채색, 128.8×4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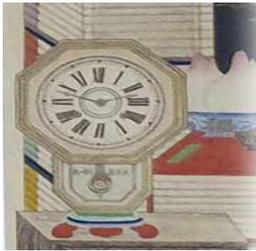
사진 출처- Chaekkori Painting: Sahoipyoungron Academy, 174-175.



〈그림 43〉 〈그림 42〉의 왼쪽



〈그림 44〉 〈그림 42〉의 오른쪽



〈그림 45〉 책거리에서 자명종의 표현 1



〈그림 46〉 책거리에서 자명종의 표현 2



〈그림 47〉 책거리에서 자명종의 표현 3



〈그림 48〉 책거리에서 자명종의 표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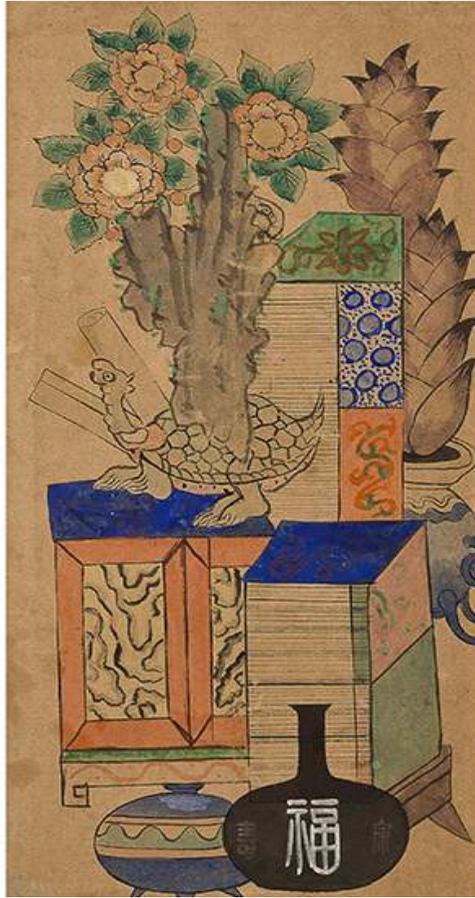
〈그림 49〉 〈그림 48〉과 유사한 자명종



〈그림 50〉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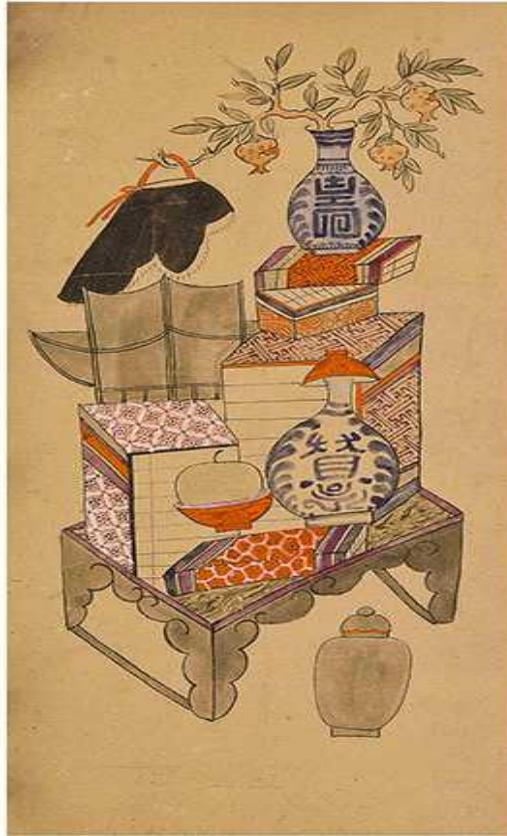
〈그림 51〉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8폭 병풍
20세기, 종이에 채색, 53×30,5cm×8.



〈그림 5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



〈그림 53〉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2
8폭 병풍, 19세기 전반, 종이에 채색, 각 55×27.5cm
사진 출처-가회민화박물관



〈그림 54〉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3



〈그림 55〉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8폭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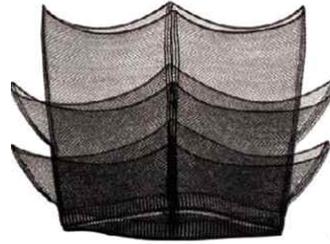
종이에 채색, 19세기, 각 36×80cm



〈그림 56〉 조선시대 여성의 방한모의 종류
 사진 출처-김영숙 편저(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03.



〈그림 57〉 오천원권의 정자관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Korea

〈그림 58〉 정자관의 종류
사진 출처-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도록.



〈그림 59〉 독립운동가 김가진의 초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6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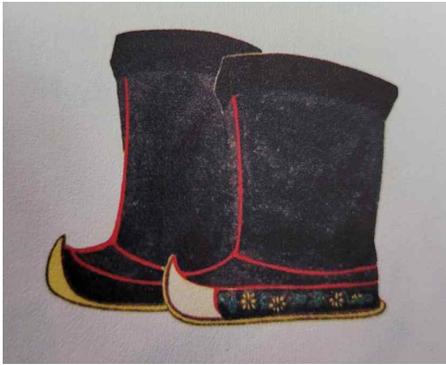


〈그림 60〉 이채의 초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6196>



〈그림 61〉 조선민화 수록 책거리



〈그림 62〉 흑피화

사진 출처-강순제, 김미자, 김정호, 백영자, 이은주, 조우현, 조효숙, 홍나영(공저) (2015). 한국복식사전. 서울: 민속원.



〈그림 63〉 목화

사진 출처-강순제, 김미자, 김정호, 백영자, 이은주, 조우현, 조효숙, 홍나영(공저) (2015). 한국복식사전. 서울: 민속원.



〈그림 64〉 목화 착용의 예

사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도록

236 단령 團領 길이 125, 폭 46.6, 화강 98, 조선 후기
 237 사모 紗帽 높이 16.7, 지름 17, 1910년대
 중요민속자료 제241호
 238 목화 木靴 높이 23.5, 길이 26, 나비 9, 1910년대
 중요민속자료 제241호



〈그림 65〉 봉황도의 예
사진 출처-Chaekgeori, 서울: Suny Dahal media,
182-187.



〈그림 66〉 북한 책거리

19세기, 70×37cm, 종이에 채색.

2007 사진으로 보는 북한회화 p257,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림 67〉 팔 시루떡과 상달 고사 상차림
 사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도록



〈그림 68〉 대모 장도
 사진 출처 <https://blog.daum.net/bluewave/15674337>



〈그림 69〉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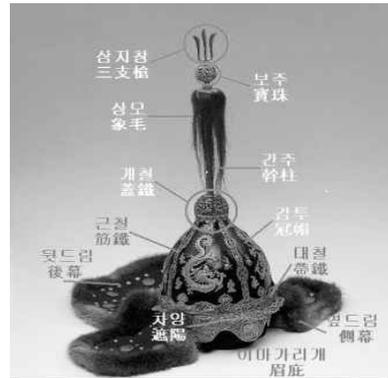


〈그림 70〉 종이에 채색, 크기 미상,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71〉 두정갑(頭釘甲)

<https://namu.wiki/w/%EB%91%90%EC%A0%95%EA%B0%91?from=%EB%B8%8C%EB%A6%AC%EA%B0%84%EB%94%98>



〈그림 72〉 투구의 각 부분 명칭



〈그림 73〉 조선시대 투구
동아대 석당박물관 소장



〈그림 74〉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박물관 소장 갑주의 구성품
갑옷(과 투구, 갑주함, 투구장식함, 투구싸개, 보자기 등 갑주 일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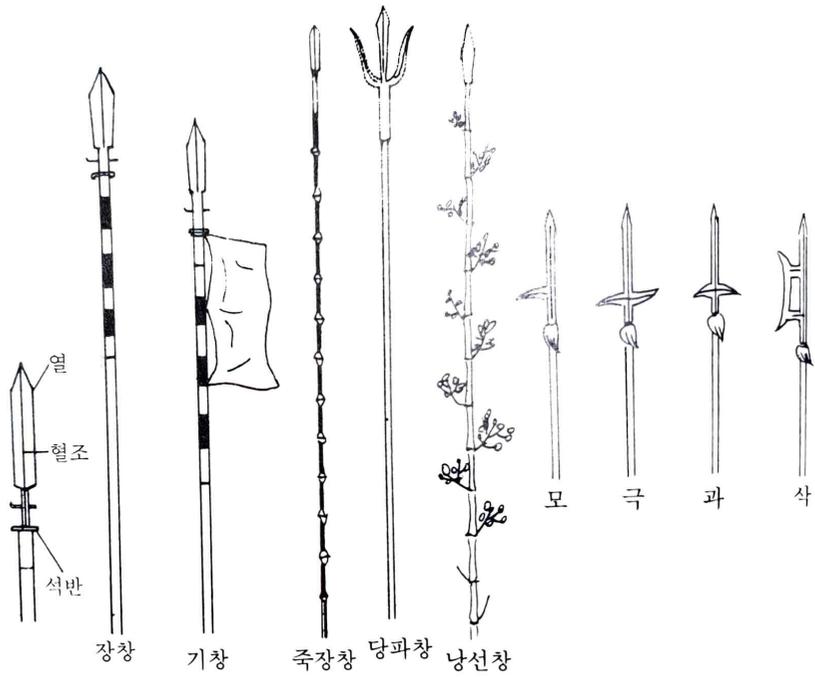


〈그림 75〉 구군복(具軍服)의 구성



〈그림 76〉 방호갑(防護甲)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A%B5%B0%EB%B3%B5>



<그림 77> 창의 종류

사진 출처-민족생활어 사전, 510.



<그림 78> 민화 속의 남성 화장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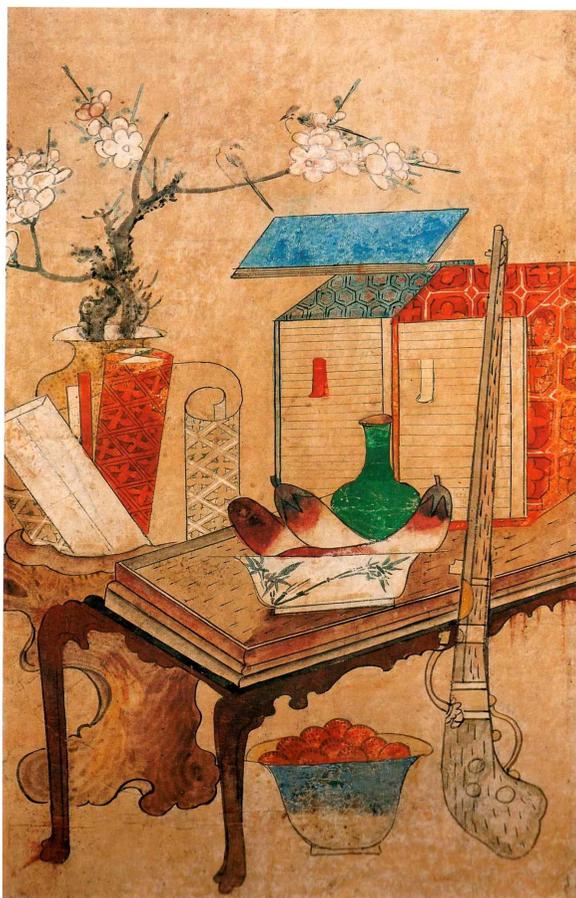
<그림 79> 민화 속의 남성 화장갑 2



<그림 80> 민화 속의 남성 화장대



<그림 81> 남자 화장대 속의 물건 -풍잠, 빗, 살쩍 밀이



〈그림 82〉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거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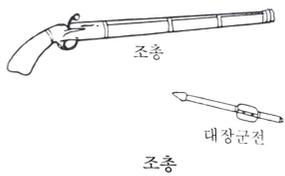


〈그림 83〉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8폭 병풍
종이에 채색, 각 32×57cm



〈그림 84〉 운현궁에 전시된 조총

사진 출처-<https://m.blog.naver.com/shimgyeseop/221737695127>



조총과 화승총

〈그림 86〉 조총과 화승포

사진출처-민족생활어사전,
515.



〈그림 85〉 운현궁에 전시된 조총과 홍이포.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도록.



〈그림 87〉 일본 고려풀관 소장 책거리



〈그림 88〉 일본 고려풀관, 6쪽 병풍
 19세기, 종이에 채색, 각 69.3×35.4cm.
 사진 출처-한국의 채색화 03, 서울: 다홀미디어, 142.



〈그림 89〉 여러 가지 은장도
 사진 출처-한국민속박물관 소장품 도록



〈그림 90〉 다양한 장식의 장도
 사진 출처-<https://blog.daum.net/bluewave/15674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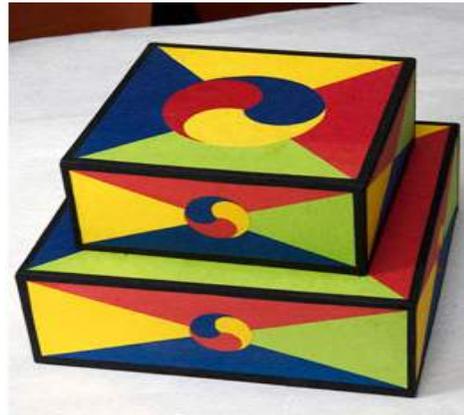
<그림 91>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4
<그림 51> 중 한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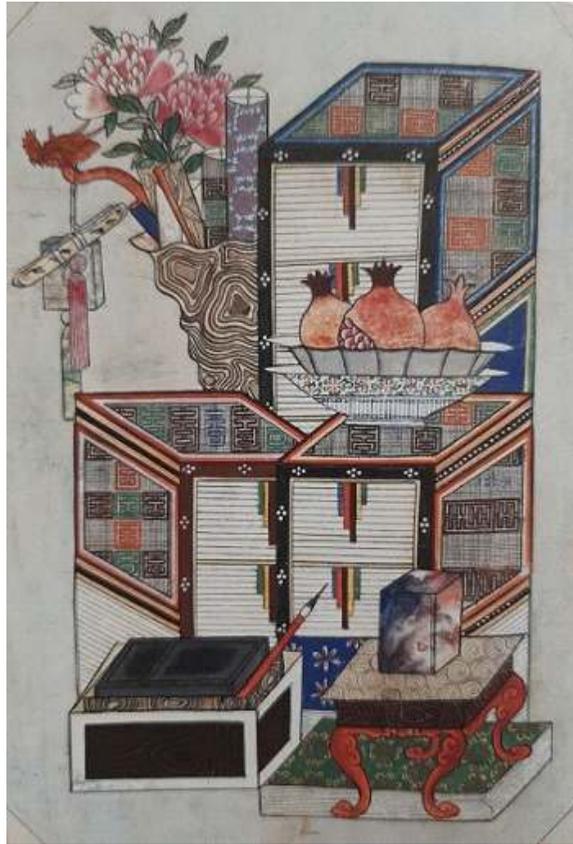
〈그림 92〉 18세기 화협옹주 묘에서 출토된 화장도구들
 사진 출처-https://twitter.com/chlove__u/status/1181123217852813312/phot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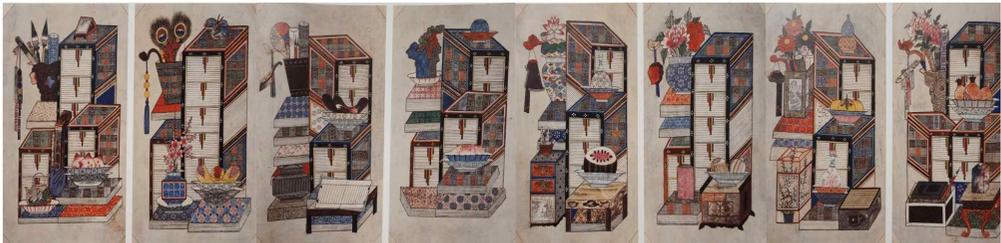
〈그림 93〉 삼합지함
<http://danmee.chosun.com/m/article.html?contid=2008090800630>



〈그림 94〉 삼태극 지함



〈그림 95〉 개인 소장 책거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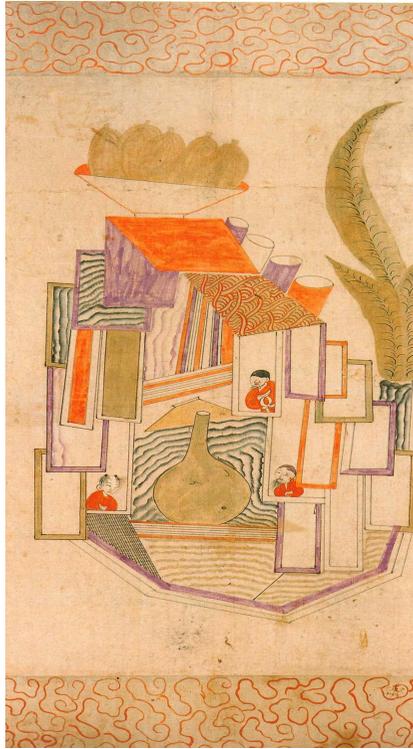


〈그림 96〉 개인 소장 책거리 1

8쪽 병풍, 19세기, 종이에 채색, 각 50×32cm, 개인 소장.
 사진 출처-Chaekgeori, 서울: Suny Dahal media, 21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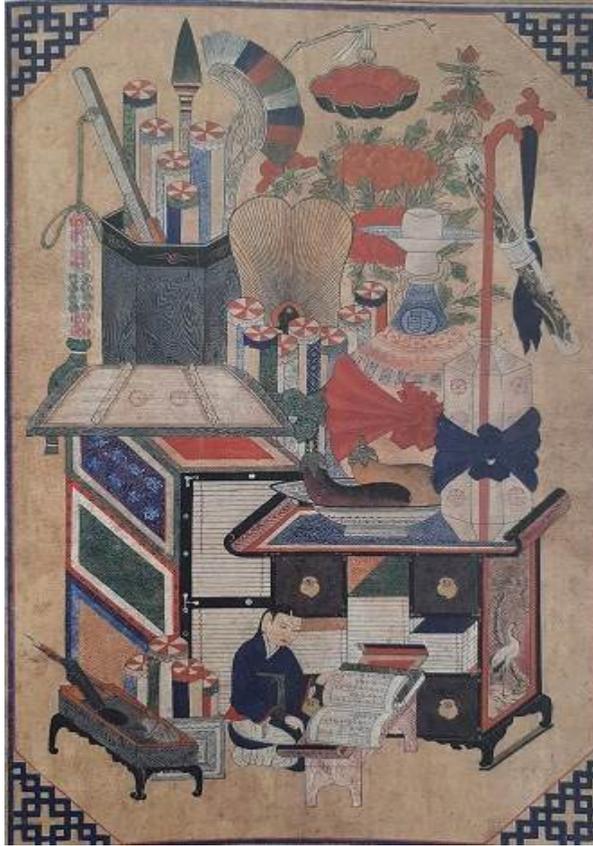
〈그림 97〉 단 폭 책거리
19세기, 종이에 채색, 출처 미상.



〈그림 98〉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책거리 2



〈그림 99〉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거리 2, 6쪽 병풍
 종이에 채색, 각 38×57cm,
 사진 출처-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도록



〈그림 100〉 개인 소장 책거리 2



〈그림 101〉 개인 소장 책거리 2, 4폭 병풍

19세기 후반, 종이에 채색, 각 55×35cm.

사진 출처-Chaekgeori, 서울: Suny Dahal media, 182-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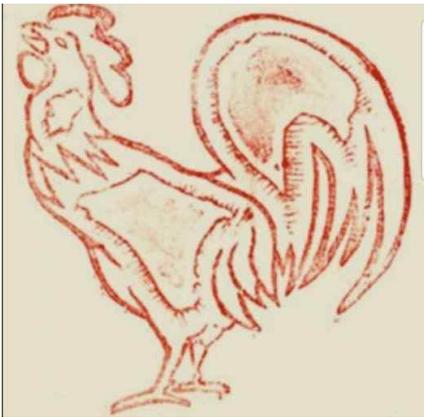
〈그림 10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



〈그림 103〉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5, 4쪽 병풍
종이에 채색, 지본채색, 65×35cm×4,



〈그림 104〉 공명도의 예



〈그림 105〉 새해 부적, 관화
가회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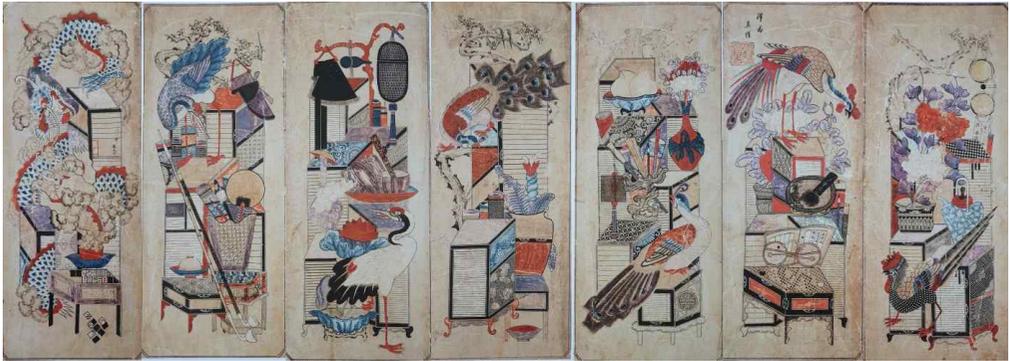
〈그림 106〉 금계



〈그림 107〉 민화 속의 금계



〈그림 108〉 금계가 있는 병풍, 개인 소장, 8폭 병풍
 사진 출처-한국의 채색화 03: 다홀미디어, 142-147.



〈그림 109〉 조선 민화 박물관 소장 책거리, 7폭 병풍
 사진 출처-한국의 채색화 03: 다홍미디어, 142-147.



〈그림 110〉 용
 과 두꺼비



〈그림 111〉 청학
 백학



〈그림 112〉 백학
 백학



〈그림 113〉 공작
 공작



〈그림 114〉 공작
 공작



〈그림 115〉 하마선인도
(蝦蟆仙人圖),
비단에 담채, 22.9X15.7cm,
간송 미술관, 심사정.
사진출처
-http://www.towooart.com/old_korea/simsajung/sajung-9.htm



〈그림 116〉 〈그림 110〉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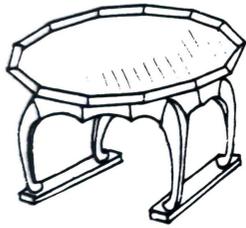
〈그림 117〉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책거리
 단폭, 19세기, 종이에 채색, 57×34.4cm, .
 사진 출처-Chaekori Painting: Sahoipyounnon Academy, 5.



〈그림 121〉 개인 소장 책거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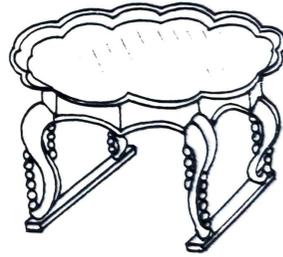
6쪽 병풍 중 한 쪽, 19세기 말 20세기 초, 62.0×35.5cm.

사진 출처-정병모(2020). 책거리. 서울: 다홀미디어. 141.



개다리소반

번상



호족반

<그림 122> 구족반(狗足盤)과 호족반(虎足盤)



<그림 123> 나전칠기 호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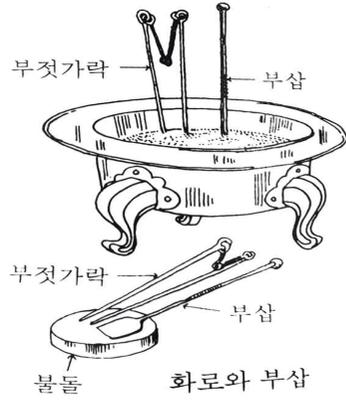
<그림 124> 다양한 크기의 붓
사진 출처-소수박물관 학술총서
22, 94.



〈그림 125〉 장죽 통 안의 장죽과 받침



〈그림 126〉 책거리 속의 화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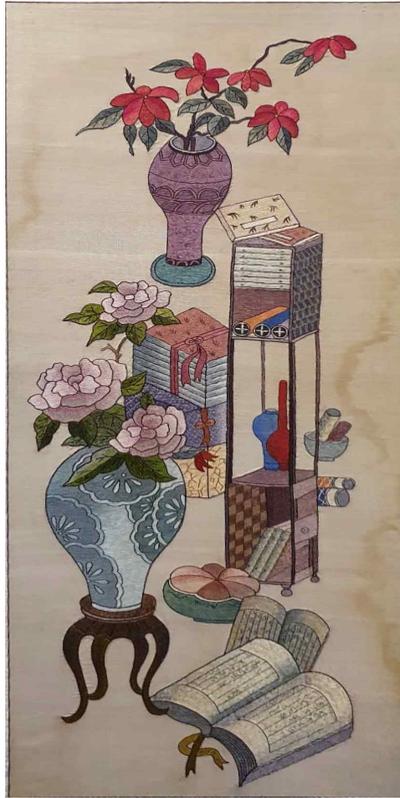
〈그림 127〉 향로와 부삽, 부젓가락



〈그림 128〉 실제 향로와 부삽, 부젓가락



〈그림 129〉 책거리 속의 화로 2



〈그림 130〉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책거리



〈그림 131〉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책거리, 8폭 병풍



<그림 132> 팔공산 자수박물관 소장 바늘꽃이



<그림 133> 룡정 조선족민속박물관 소장 낚바늘집



<그림 134> 연변박물관 소장 바늘방석

<그림 132>, <그림 133>, <그림 134> 의 사진 출처-길림신문.

http://www.jlxcwb.com.cn/sports/content/2019-05/30/content_242303.html



〈그림 135〉 개인 소장 책거리 5, 2폭 가리개
 종이에 채색, 크기 미상,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사진 출처- 한국의 채색화 06: 다홀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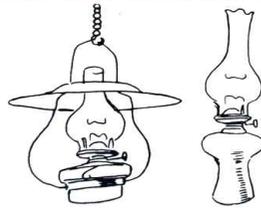
<p>소원성취 백사여의百事如意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도안</p>  <p>▶ 백합화(혹은 백합 구근)와 감(혹은 당사자) 및 영지버섯의 그림으로 도안을 구성</p>	<p>신소여의新韶如意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도안</p>  <p>▶ 꽃병 속에 산다화山茶花, 소나무, 매화 등을 꽂고, 다시 그 주변에 영지버섯, 감, 백합화를 배치한 그림으로 도안을 구성</p>	<p>만복 백사대길百事大吉 모든 일에 복이 깃들어 크게 길하기를 축원하는 도안</p>  <p>▶ 백합百合의 구근 혹은 잣나무[栢樹] 감 [柿子], 큰 괘[大槩]의 그림으로 도안을 구성</p>
<p>평안 사계평안四季平安 일 년 사계절 내내 평안하기를 바라는 도안</p>  <p>▶ 꽃병에 월계화月季花(또는 경신장미庚申薔薇)를 꽂은 그림으로 도안을 구성. 또는 네 개의 꽃병 속에 사계절의 꽃[매화, 난초, 산다화, 연꽃, 백합, 국화, 율계화, 남천南天, 수선 등]을 적당히 선택하여 나누어 꽂은 그림으로 도안을 구성</p>	<p>장수 화합만년蘇合萬年 오래오래 화목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하는 도안</p>  <p>▶ 백합百合 구근 두 뿌리(화합和合을 의미), 혹은 백합 구근 및 호로葫蘆에 만년청萬年青을 배치한 그림으로 도안을 구성</p>	

〈그림 136〉 나리(백합) 도안의 상징

〈그림 137〉 등잔



〈그림 138〉 고희동의 산수화



〈그림 139〉 등잔대와 남포등
한국등잔박물관, 민족생활어
사전



〈그림 140〉 강세황의 국죽석도
18세기, 종이에 수묵, 28.8×33.5cm



〈그림 141〉 조희룡의 국화도
1851년, 지본담채, 112.6×42cm 이화여자대
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42〉 김수철의 국화
1859년, 지본담채, 33×45cm, 간송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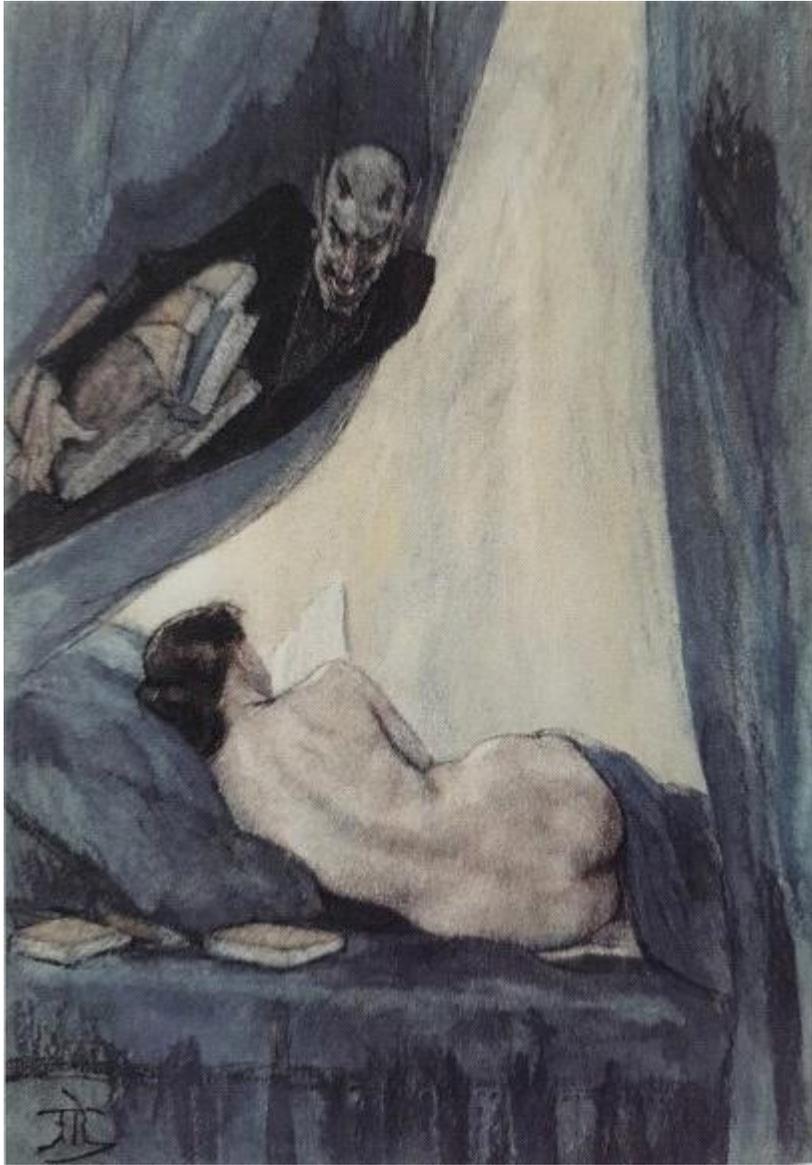


〈그림 143〉 안중식의 국화도
지본 수묵, 33×24.7cm,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144〉 농가의 내부
 (FarmhouseInterior),
 JohanneMathilde Dietricson,
 1875, 캔버스에 유채, 크기 미상.
 개인 소장.
 사진 출처:데이비드 트리그
 (2018). 리딩 아트, 서울: (주)출판
 사 클, 11.



〈그림 145〉 〈독서〉
 Federico Faruffini, 1865, 캔버스에 유채, 크기 미상. 개인 소
 장. 사진 출처:데이비드 트리그(2018). 리딩 아트, 서울: (주)출
 판사 클, 161.



〈그림 146〉 사서, 〈The Librarian〉

Fellician Rops, 1878, 수채, 22×14.5cm, 개인 소장.

사진 출처: 데이비드 트리그(2018). 리딩 아트, 서울: (주)출판사 클, 166.

《참고문헌》

1. 도록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2018년 기획전시 도록』, 2018.
가나아트, 『길상』, 2013.
계명대학교, 『민화,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도록』, 2004.
미술세계, 김재춘의 민화세계, 2018.
조선민화박물관, 『민화의 계곡Ⅱ』, 2010.
경기도 박물관,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2012.
한국학자료원, 『한국의 민화 2, 5, 6』, 2015.
다홀미디어, 『한국의 채색화 03: 책거리와 문자도』, 2015.
Dahalmedia, 『Chaekgeori』, 2017.
Kay. E. Black, 『Ch'aekkori Painting, A Korean Jigsaw Puzzle』, 2020.
미술문화원, 『李朝の民畫』, 1982.

2. 사료 및 문집

- 『조선왕조실록』
『대명률』
『아언각비(雅言覺非)』
『여사서』
『사소절』
『설문해자(說文解字)』
『소학』
『맹자』
『추관지(秋官志)』
『삼강행실도(三剛行實圖)』
『북사(北史)』
『주역(周易)』
『해동죽기(海東竹枝)』

3. 단행본

-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 화원 연구 上, 파주: 돌베개, 2001.
-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연구, 서울:창작과 비평사, 1997.
- _____, 열녀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09.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 복식 사진, 서울: 민속원, 2015.
- 강우방, 민화, 서울: 다빈치, 2018.
- 권영철, 閨房歌辭-身邊嘆息類-, 서울: 曉星女子大學校出版部, 1985.
- 권혜진, 활옷, 그 아름다움의 비밀,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12.
- 유희경 외 고증, 한국복식 2천년사,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김용심, 문체반정, 나는 이렇게 본다, 서울: 보리출판사, 2012.
- 김용섭, 젠더 뉴트리얼, 서울: 부키(주), 2018.
- 김운용,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김정희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완당전집 6, 서울: 술출판사, 1995.
- 김정희, 불화, 파주: 돌베개, 2009.
- 문은배, 한국의 전통 색, 서울: 안그라픽스, 2020.
- 박무영·김경미· 조혜란, 조선의 여성들-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파주: 돌베개, 2004.
- 박용옥,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방병선, 중국 도자사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12.
- 석주선, 한국복식사(韓國服飾史), 서울:보진재, 1978.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 윤열수, 민화 이야기, 서울: 디자인 하우스, 1995.
- _____, 龍, 불멸의 신화, 서울: (주)대원사, 1999.
- 이규상, 18세기 조선 인물지, 서울:창작과 비평사, 1997.
- 이동주,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서울: 시공사, 1996.
- 이복규 편 저, 초기국문·국문본소설, 경기 하남:박이정출판사, 1998.
- 이은선, 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 파주:(주)지식산업사, 2003.
- 이원복, 근대한국미술논총, 서울:학고재, 2009.
-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이종영, 조선전기 사회경제사연구, 서울: 혜안, 2003.
- 이태호, 이야기 한국사, 서울: 마로니에북스, 2019.
- 이훈중, 국학도감, 서울: 일조각, 1970.
- _____, 민족생활어 사전, 서울: 한길사, 1992.
- 임영주, 한국의 전통 문양, 서울: (주)대원사, 2004.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서울: 일지사, 1997.
- 정병모,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광주: 돌베개, 2012.
- _____, 무명 화가들의 반란, 서울: 다홀미디어, 2011.
- _____, 민화는 민화다, 서울: 다홀미디어, 2017.
- _____, 책거리, 서울: 다홀미디어, 2020.
- 정병모, 김성림, Chaekgeori, 서울: Dahalmedia, 2017.
-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서울: 집문당, 1889.
- 조현준·쥬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6.
- 최호 역, 신역 삼국사기 2, 서울: 흥신문화사, 1994.
- 최흥기 외,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서울: 아카넷, 2004.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미술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8.
- 한국여성연구소,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서울: 동녘, 2014.
-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서울: (주)교보문고, 1994.
- _____, 허균의 우리 민화 읽기, 서울: 북폴리오, 2006.
- 홍길주·박무영 외 역, 표룡을침(縹纁乙懺) 下, 서울: 태학사, 2006.
- 홍선표, 조선 시대 회화사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야나기 무네요시 저 이길진 역, 조선과 그 예술-조선의 민화, 서울: 친구문화사, 1994.
- 노자키 세이킨 저, 변영섭, 안영길 역, 중국미술 상징 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데이비드 트리그, 리딩 아트, 서울: 출판사 클, 2018.
- 로빈 라일, 젠더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8.
- E. H. 콰브리치, 서양 미술사,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13.
-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저, 조홍식 역, 제2의 성, 서울: 을류문화사, 1993.
- 오풍(吳楓) 편저, 中華道學通典, 南海出版公司, 1994.
- 장 차크 루소 저, 김평옥 역, 에밀, 서울: (주)집문당, 1973.

조앤 W 스콧 저,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역,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06.

Kay E. Black, Ch'aekkori Painting, 서울: Sahoipyounngnon Academy, 2020.

Kate Millet, 성 정치학, 서울: (주)쌤앤파커스, 2006.

샬리 하인즈 저, 조현준 역, 젠더 정체성은 변하는가?, 서울: 자유의 길, 2019.

4. 논문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 책가도 : 조선후기 '民畫'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小考」, 『미술 자료』 66, 2001.

_____, 「조선 후기 화원 회화의 변모와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 제도」, 『미술사 학보』 17, 2002.

금광복, 「민화와 괴석의 기발한 만남」, 『월간 민화』 3월호, 2019.

김순천, 「朝鮮後期女性知識人의主體認識樣相-女性性的視覺을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김은주, 「규범으로서의 젠더에서 장치로서의 젠더로 버틀러의 젠더 개념을 중심으로 (1)」, 『철학연구』 131, 2020.

김은숙·김민수, 「습합책거리 표현 양식 연구 -'몽타주'와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yle and meaning of Amalgamation Chekulri - Focused on 'montage' and 'allegory' -」, 『기초 조형학연구』 12(4), 2011.

김재임,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에 나타난 여성의식 고찰」, 『한문고전학회』 10, 2005.

김진수, 「조선후기 鳥銃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연구』 139, 2015.

김취정, 「高宗 2년(1865) 『壽進寶酌記』 제작에 대한 一考察」, 『鄉土서울』 88, 2014.

문현상, 「韓國 性理學에서의 人性論에 대한 考察」, 『조선대 생활지도 연구』, 1998.

문현아, 「판결문 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13, 2011.

- 민길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형록필 책가도 : 덕수4832 <책가도>를 중심으로」, 『동원학술논문집』, 16, 2015.
- 민병삼, 「한국인의 天神 思想 속의 鳳凰形象 研究」, 『仙道文化』 18, 2015.
- 박건우·권병화·권민형, 「조선시대 후기 책거리에 나타난 원예식물 종류」,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10, 2009.
- 박경희, 「책가도(冊架圖)에 나타난 도자의 심미의식」, 『한국디자인 포럼』 32, 2011.
- 박광용, 「조선 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론」, 『성평등 연구』 3, 1999.
- 박미해, 「유교적 젠더정체성의 다층적 구조: 『미암일기』, 『묵재일기』, 『쇄미록』, 『병자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9, 2008.
- 박민자, 「신사임당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조명」, 『신사임당 탄신 500주년 기념논문』, 2004.
- 박은경, 「책가도 제작의 다각적 배경」, 『한국민화』 10, 2019.
- 박진태, 「이철괴를 통해 본 산대놀이의 역사」, 『우리말 글』 29, 2003.
- 방병선, 「이형록의 책가문방도 팔곡병에 나타난 중국도자」, 『한국 불교미술사학회 강좌 미술사』 28, 2007.
- 배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페미니즘 연구』 4(1), 2004.
- 백성중, 「16세기 조선사회의 젠더gender 문제와 성리학」, 『역사학보』 197, 2008.
- 서정아,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문화 탐구 및 동서양 정물화의 공간 비교 감상 - 중학교 미술과와 역사과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연구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6, 2016.
- 성민경, 「女訓書의 편찬과 역사적 전개: 조선시대~근대전환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 _____, 「한문학 연구의 젠더적 관점 확장을 위한 시론'남성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학회, 2019.
- 신미란, 「책거리 그림과 기물연구」, 『미술사학연구』 268, 2010.
- 유미림, 「조선 후기의 젠더의식에 관한 연구-이덕무의 사소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2), 2004.

- 유재연, 「한국전통 아동교육이 발달지체 아동교육에 주는 함의-『사소절』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5(2), 2004.
- 윤진영, 「조선 중후기 虎圖의 유형과 도상: 기년작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8, 2012.
-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 -열녀편을 중심으로-」, 『고문문학연구』 35, 2009.
- 이남희, 「조선 사회의 유교화(儒敎化)와 여성의 위상- 15·16세기 족보를 중심으로」, 『원불교 사상과 종교 문화』 48, 2011.
- 이미영·김순구, 「'쌍폭 책거리' 그림의 공간배치 연구」, 『디자인학연구』 19(5), 2006.
- 이배용, 「조선시대 유교적 생활문화와 여성의 지위」, 『민족과 문화』 9, 2000.
- 이선옥, 「조선시대 국화도의 전개과정과 변화요인」, 『전남대학교 연구지원사업』, 2005.
- 이숙인,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 29, 2006.
- _____, 「지속과 변용의 측면에서 본 19세기 유학의 젠더담론」, 『인간연구』 39, 2019.
- 이원복, 「책거리 그림 소고」, 『근대한국미술논총』, 1992.
- 이인숙, 「冊架圖, 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조선 후기 민속문화의 주체』 6, 2004.
- 이영훈, 「기획:조선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 『역사와 현실』 45, 2002.
- 이지양, 「조선조 후기 사대부가 기록한 아내의 일생-행장 26편으로 본 내조(內助)의 힘」, 『인간·환경·미래』 7, 2011.
- 이호철,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그 성격」, 『경제론집』 35(2,3), 1996.
- 이현경, 「책가도와 책거리의 시점에 따른 공간해석」, 『민속학연구』 20, 2007.
- 이혜순, 「여성 담론으로서의 任允摯堂의 理氣心性論 -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서술을 위한 시론」, 『고전문학연구』 26, 2001.
- _____, 「임윤지당의 정치담론」, 『한국한문학연구』 35, 2005.
- 유미나, 「민화 속의 거북 도상과 상징」, 『한국민화학회지』 7, 2016.

- 전종익, 「정조시대 천주교 전래와 평등」, 『법사학연구』 40, 2009.
- 정광용, 「한국 은장도에 관한 제안」, 『대한금속학회 회보』 12(1), 1999.
- 정민, 「리움미술관 소장 표피장막 책가도 속의 다산 친필시첩」, 『문헌과 해석』 77, 2017.
- 정병모, 「조선 민화에 끼친 유교의 영향」, 『한국미술사 교육학회』 23, 2009.
- 정병설, 「17세기 동아시아 소설과 사랑 - 〈구운몽〉, 〈옥교리〉, 〈호색일대담〉의 비교」, 『관악 어문연구』 29, 2004.
- _____,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2004.
- 정혜은, 「조선후기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 『여성과 사회』 8, 1997.
- 정혜원,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와 현실』, 2014.
- 조미란·전종주, 민화에 나타난 무의식세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4, 2004.
- 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24(2), 2008.
- 조태영, 「조선후기 '전'에서 보는 사회와 자아의 형상」, 『한국 문화』 15, 1994.
- 차영순·김우경, 「조선 후기 책거리 자수 병풍에 대한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9(1), 2016.
- 채백, 「한글 고전소설을 통해 본 조선 후기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 『한국언론정보학보』 65, 2014.
- 최복희, 「성리학 인성론으로 본 포스트젠더리즘」, 『철학논집』 61, 2020.
- 최수정, 「'책거리 그림'에 나타난 유럽의 '호기심의 방'의 영향」, 『문화와 융합』 40(5), 2018.
- 최은경·이부영, 「책거리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예 유형과 꽃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화예디자인학 연구』 34, 2016.
- 최영진, 「젠더에 대한 유교의 담론」, 『사회사상과 문화』 8, 2003.
- 김취정, 「정원에 핀 소망의 꽃, 참나리」, 『월간 민화』 7월호, 2019.
- 한세현, 「19세기 책가도의 새로운 경향: 호피장막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 35, 2018.

허라금, 「유교와 페미니즘의 만남홍신기, 「루소와 이덕무의 여성교육관 비교 연구」, 『교육실천연구』 9(1), 2010.

허재영, 「조선 시대 여자 교육서와 문자 생활」, 한글 272, 2006.

Kay E. Black·Edward W. Wagner, 「Ch'aekkōri Paintings: A Korean Jigsaw Puzzle」, 『Archives of Asian Art』 XL(VI), 1993.

5. 인터넷 자료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딸기 설명자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_id=E0017178/2021.6.13.19:25검색

나무위키, 선추 사진.

<https://namu.wiki/w/%EC%84%A0%EC%B6%94/2021.5.28.13:15>검색

오마이뉴스, 독립운동가 김가진의 초상.

http://www.ohmynews.com/NWS__Web/View/at__pg.aspx?CNTN_CD=A0002516766/2021.5.28.13:20검색

문화재청, 화협옹주의 묘 발굴 유적 사진.

https://twitter.com/chlove__u/status/1181123217852813312/photo/1/2021.6.6.13:23검색

고전미술관, 하마선인도 자료.

http://www.towooart.com/oldart/old__korea/simsajung/sajung-9.htm/2021.3.3.03:00검색

한국역사연구회, 담배 이야기.

<http://www.koreanhistory.org/3661/2021.6.6.13:30>검색

책거리 기물들에 표현된 젠더

최 성 진

慶州大學校 大學院

문화재학과

지도교수 장 영 수

(초록)

책거리는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조선에서 유행했던 정물화이다. 이때에는 주자 소종법의 강화로 인하여 조선은 철저한 성리학적 사회체계를 가진 국가였으며, 성리학은 사회를 지탱하는 명분이었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성리학적 규범들을 책거리를 통하여 왕이나 사대부에서 일반 백성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성리학이 사회적 가치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성리학의 사회가 원하는 남녀의 성역할을 책거리가 그려지던 시간대의 남녀젠더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00폭이 넘는 책거리들의 분석을 통하여 음양의 이치가 아닌 이러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적 기준이었던 조선후기 남녀젠더의 기준을 적용하여 책거리 기물들을 분류한 최초의 연구논문이다.

조선후기의 강한 성리학적 체제에 기반을 둔 남녀젠더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젠더의식의 변화도 파악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젠더에 충실한 남성젠더와 여성젠더의 책거리를 분석하였고 남녀 사이의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한 책거리와 여성들과 하층민들에게 자신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들의 자의식 성장을 나타내는 책거리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한글 소

설이 나타난 책거리를 통하여 독서가 여성의 생활 속에도 자리 잡게 됨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하층민의 문자 생활을 엿볼 수 있었으며 독서를 통한 여성들의 각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한 결과 책거리 유행이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라고 볼 때, 책거리 제작의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사회변화에 따라 성리학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변화하는 남녀 젠더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학문 숭상의 주제를 표현하던 책거리에서 과거급제나 다남의 주제로 옮겨갔고 나중에는 현실적 욕망을 대변하는 길상적 주제가 주로 표현되게 되었다. 또 여성 책거리나 여성젠더를 나타내는 기물들은 수량적으로 적고, 다남을 상징하는 기물들은 대부분의 남녀 책거리에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20세기로 갈수록 책거리 기물들이 같거나 비슷한 상징 기물들로 정형화되자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위하여 다양한 기물들을 더하거나 다른 분야인 문자도나 화조도, 산수화 등을 조합하여 그리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비대칭적이고 차별적인 젠더는 유럽의 회화를 통해 조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대사회로 가는 인류 공통의 사회·문화 발전의 단계로 볼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를 품미했던 정물화인 책거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책거리에 나오는 기물들을 성리학적 남녀젠더의 기준을 정의한 후에 그 기준으로 분류하는 남녀젠더에 의한 잣대는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성리학에 기반한 남녀젠더의 잣대로 기물들을 분석해가면 그림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적용하기 쉬운 도구가 되어주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조선후기에 맞는 젠더를 정의하였고 책거리를 음양의 이치나 음양의 조화 같은 기준이 아닌 사회상을 반영하는 젠더를 기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성리학적 사고에 지배를 받던 조선후기에 사대부층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즐기던 책거리에 는 출세, 다남, 절개 등의 성리학에 기인한 남녀젠더를 주제를 표현하는데

이를 상징하는 소재인 기물들로 그림의 화면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얻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책거리에 젠더라는 새로운 잣대를 처음 적용한 것으로 책거리 기물들의 젠더적 분류는 앞으로 책거리와 민화를 연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 Study on the Gender expressed in Chaekgeori Objects

Choi Sung Jin

Department of Culture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ng, Young su

(Abstract)

Chaekgeori is a still life painting that had popularity in Joseon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t this time, Joseon was a country with a thorough Neo-Confucian social system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Jaju Sojong Law, as Neo-Confucianism was the ruling ideology that supported society. It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disseminating these Neo-Confucian norms from kings and high sadaebu layer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Chaekgeori in the late Joseon Dynasty.

Neo-Confucianism created a social value system and defined the gender roles of men and women desired by the Neo-Confucian society as the gender of men and women in the time period in which Chaekgeori was drawn.

Analyzing more than 1000 chaekgeori,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paper to classify Chaekgeori objects by applying the standards of male and female gend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is a social standard that reflects the era, rather than the logic of yin and yang. Based on the strong Neo-Confucian system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riteria for male and female gender were applied and separated into five types. In

the process, changes in gender consciousnes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could be identified.

We analyzed the chaekgeori of male and female gender in the gender perspective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classified the chaekgeori that expresses the free feelings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chaekgeori that shows the awareness of their own identity and the growth of self-consciousness of women and the lower classes. This made it possible to reveal the trend of reading taking place in women's lives through Korean novels in which the chaekgeori appeared. Through this, we could get a glimpse into the life of the lower classes and the awakening of women through reading.

As a result of this type-by-type analysis,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effects the gender role of men and women decreased according to the trend of Chaekgeori reflecting the social changes from the early stage to the late stage of the production of Chaekgeori that is from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addition, the subject of Chaekgeori changed from the veneration of academics to that of the careerism or Danam, and later mainly expressed auspicious themes representing realistic desires. Also, there are only few amount of female chaekgeori and the object that represent female contrary to the prevalent Danam objects shown in most chaekgeori. Lastly, as the elements of Chaekgeori were standardized into the same or similar symbolic objects as the 20th century progressed, various attempts were made to add various objects for a new visual image or to draw by combining different fields such as confucian character drawings, flower bird drawings and landscapes drawings. The asymmetric and discriminatory gender of Joseon is not only a problem of Joseon considering European paintings. However, this gender trend can also be seen as an early stage of common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leading to a modern society.

Through this study, the analysis of Chaekgeori, a still life painting that dominated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the standard by male and female gender from the Neo-Confucian gender standards to classify the objects in Chaekgeori was very useful. Analyzing the objects based on

the gender and gender standards based on Neo-Confucianism became an easy-to-apply tool for understanding the subject of the painting.

We expect that from this first attempt of applying a new standard of gender to chaekgeori, and the gender classification of chaekgeori objects would be helpful to establish basic data for studying chaekgeori and Minwha in the future.